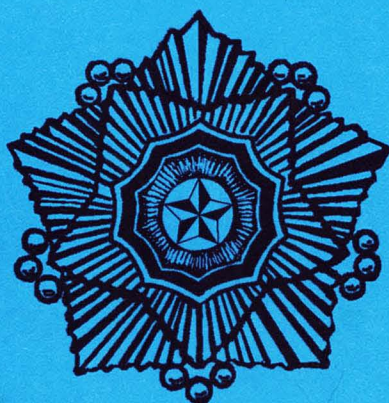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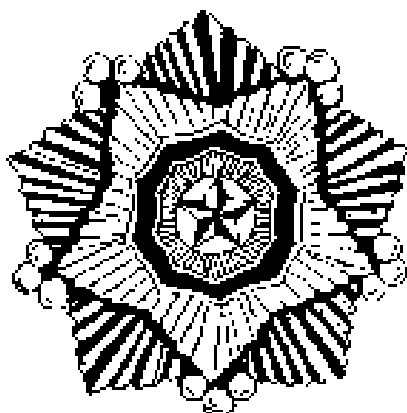
조선문학



7

주체 91 (2002)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91(2002)년 제7호

(루계 제 657 호)

◇◇◇◇◇◇◇◇◇◇◇◇

차례

◇◇◇◇◇◇◇◇◇◇◇◇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문예전통은 주체문학건설의 만년초석이다.....	4
금수산기념궁전방문록을 펼치고(1).....	5
7 월의 노래	6
종소리	7
아름다워라 추억의 밤이여	18
울음홀	19
금수산기념궁전방문록을 펼치고(2).....	20
정일봉의 해맞이 가자.....	21
금수산기념궁전방문록을 펼치고(3).....	30
시대와 함께 걷는 《동지애의 노래》	31
명언해설	35
좋은 앞날이 마중 오누나(외 1 편)	35
아 남산의 푸른 소나무	36
21 세기 초에 예견되는 에네르기구조의 변화	36
수령님의 애국은... ..	37
동지애의 력사는 오늘도 흐른다!.....	38

고향과 추억	42
량자컴퓨터	43
영원히 백두산의 시인으로 살겠다.....	44
삼각산이 보인다	45
민족을 사랑하라	45
한그루 버드나무에 깃들인 농촌정서의 새맛	47
묘향산풍경단시묵음	49
《동요할아버지》에 대한 추억	50
총과 미래(외 2 편).....	64
억천만번 죽더라도.....	64
로병의 말.....	65
추억(외 1 편).....	65
옥에 부치는 편지.....	66
《농악무》와 열두발상모춤	72
추억의 메아리	73
생물(DNA)컴퓨터	75
퀘도우의 세계	76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문예전통은 주체문학건설의 만년초석이다

새 세기에 들어 와서 두번째로 맞는 7월이 왔다.

지금 우리 작가들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 없는 그리움과 뜨거운 숭배심이 용암처럼 솟구쳐 오르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적문예전통을 빛내여 나갈 불 같은 결의가 세차게 끓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하신 영광스러운 전통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로동계급의 수령에 의하여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에 이룩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시대가 도래하던 력사적전환기에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새로운 주체적문예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혁명적문학예술창조와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이룩하시였다.

수령과 그 위업에 대한 태도는 수령이 이룩한 혁명전통과 업적을 어떻게 계승하고 구현해 나가느냐 하는데서 표현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강성대국건설 구상이 전면적으로 실현되여 나가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전통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하는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시켜 나가고 계신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적문예전통을 새 세기의 진군길에서 더욱 빛을 뿌리게 하려는것은 우리 작가들의 한결같은 지향으로 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적문예전통은 주체문학건설의 만년초석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친히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창작하시는 과정에 영광스러운 문학예술전통을 이룩하시였다.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우리 혁명적문학예술의 정수이며 주체의 문학예술을 대를 이어 끊임없이 떠밀어 주는 영원한 생명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이룩하신 혁명적문예전통은 우리 작가들이 창작에서 주체적대를 확고히 세

워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원천으로 되고 있다.

오늘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문학은 우리의 사상과 리념, 우리 작가들의 재능과 지혜에 의하여 창작되고 건설되며 우리 혁명의 리익에 복무하는 주체문학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학예술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우리 문학예술이 철저히 주체의 요구대로 발전하며 우리 혁명에 이바지하는 문학예술로 찬란히 개화발전하도록 이끄심으로써 우리 문학을 주체가 선 문학으로 힘 있게 전진할수 있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이룩하신 혁명적문예전통은 날로 로골화되는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공세를 짓부시고 혁명적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 나갈수 있게 하는 튼튼한 토대이다.

우리의 주체문학건설은 제국주의자들과의 치렬한 사상문화적대결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 주체문학이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도전을 짓부시고 주체의 한길로 역세게 전진할수 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혁명적문학예술건설의 튼튼한 토대가 있었기때문이다.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주체문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전통과 업적을 토대로 하여 전진하는 문학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적문예전통은 주체문학건설의 밑뿌리이며 국보중의 국보이다. 우리 작가들과 같이 선대수령으로부터 문학의 개화발전을 위한 만년대계의 재부를 유산으로 넘겨 받은 공지 높은 작가들은 세상에 없다.

격동하는 오늘의 21세기에도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전통이 있고 그것을 일관하게 계승하고 구현해 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련된 령도가 있음으로써 하여 우리 주체문학의 명맥은 끄떡 없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적문예전통을 주체문학건설의 만년초석으로 일관하게 틀어 쥐고 나감으로써 문학창작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야 한다.

모든 작가들과 창작지도일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 인민의 감정정서에 맞고 우리 혁명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이

고 녀원이었다.

수령님께서 생전에 많은 문학작품들을 지도하여 주시면서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에 적극 이바지하는 작품들을 창작할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쳐 주시었다. 수령님의 유훈에는 문학작품창작과 건설에서 나서는 사상, 이론, 방법 등 모든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

우리는 아버지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높이 받들고 문학창작의 모든 부문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적문학예술전통과 업적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 빛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의 담력과 의지를 지니시고 오직 수령님의 의도대로 선군정치를 펴나가는 길에서 우리 문학을 혁명투쟁의 강력한 무기로 삼으시고 선군혁명문학운동을 정력적으로 령도하고 계신다.

우리 선군혁명문학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정서적으로 안반침하는 문학이며 주체사실주의문학의 높은 단계이다. 우리는 선군혁명문학창작에 모든 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선군혁명문학운동에서 중요한것은 우리 당이 제시한 4대제일주의를 창작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여기에서도 기본은 우리 수령제일주의를 훌륭히 구현하는것이다.

작가들은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나게 형상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재생과 번영의 력사도 강성대국건설의 자랑찬 현실도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전통이 있기때문이라는 것을 소리높이 노래하여야 한다.

우리는 특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어려운 나날에 강의한 의지로 모든 시련을 뚫고 강성대국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해 주신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을 모든 문학부문에 있어 최상의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형상하여야 한다.

선군혁명문학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우리 문학의 사상예술적풍격을 더욱 높이는 것이다.

우리는 소설, 시, 아동문학 등 문학의 모든 형태들에서 자기의 고유한 형상적특성을 살려 문학작품의 사상미학적감화력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

소설문학에서는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 배워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창조되고 있는 인간성격들을 참신하게 창조하여야 하며 시문학에서는 선군시대가 발산하는 시대의 서정을 퍼올려 정서 깊은 시형상을 창조하여야 한다. 아동문학에서도 선군시대 새 세대들의 생동한 성격을 그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창조하여야 한다.

우리 선군혁명문학을 사상예술성이 최상의 경지에 이른 명작들로 빛내이는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나가는 참다운 길이 있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업적과 전통을 계승하고 구현해 나가는 우리 문학의 전도는 끝없이 양양하다.

모두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신념과 의리로 받들고 주체문학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선군혁명문학의 창조자로서의 시대적임무와 본분을 다해 나가자.

금수산기념궁전방문록을 펼치고 (1)

차디찬 감방속에서

당신은 우리의 심장을 불 태운 위대한 태양
교수대에서도 《김일성장군 만세!》를 높이
웨쳤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얼마나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불렀던가

늦게 돌아 온 전사들은
그 품이 그리워 눈물 흘립니다
내 죽어도 한줄의 흠이 되어

당신을 항상 바라보는
해바라기꽃을 피우렵니다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김주석님.

80평생 그 어려운 고비를 다 넘기시고 활짝 피는 봄을 맞이하고 가셨지만 앞으로 더욱 빛나는 업적들을 자손만대에 남기셨습니다.》

문익환목사부인 박용길

7월의 노래

로경철

7월 8일!

이날이 어찌

노래로 되겠습니까

5천년 민족사에 있어 본적 없는

최대의 상실과 아픔의 이날이

하지만 나는 이달에

다른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어버이수령님

내 사는 강계땅 금방 오신듯

어서 만나뵙고서

사람들 파도쳐 가는 거리-

아이들도 갑니다, 손에 손에 꽃을 들고서

수령님 잃은 그해에

태어났음직한 저 애들

어느덧 여덟해를 자랐습니다

저 애들이야 어찌 다 알겠습니까

우리 수령님 늘

저 애들과 함께 계시었다는것을

저 애들과 함께

우리 조국도 인민도 자랐다는것을

나는 묻지 않습니다

슬픔이 용기로 바뀌고

크나큰 상실이 위대한 영생으로 바뀐

기적 같은 7월의 이 아침이

어디서 동 터온것인지

수령님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장군님모습이 떠오르고

장군님을 우러르면 금시 수령님을 뵈옵는듯

오, 수령존대의 세계사적모범을 이룩하신

우리의 **김정일**장군님!

수령님사상으로 난국을 헤치시고

수령님덕망으로 인민을 이끄시고

수령님총대로 조국을 수호하신

장군님, 우리 장군님은

세상에 다시 없는 참으로 위대하신분

인민이 당한 슬픔

영원히 씻어 주시려

지새우신 그 밤들은 얼마입니까

헤쳐가신 눈보라길은 몇천몇만리입니까

생각할수록 목 메이는 이 마음

금수산기념궁전을 바라보아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솟고

강계정신을 창조하시며 헤쳐 가신

이 자강도의 눈보라길을 더듬어 보면

또 눈물에 젖고...

아, 수령님 영생위업 이룩하시려

장군님 바쳐 오신 그 로고, 그 충정앞에

7월에 울던 아픈 눈물

7월이 올 때마다

감사의 눈물, 걱정 of 눈물로 흘러 내립니다

장군님 계시여 수령님 영생하시는

이날이 어찌

노래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날에 내 어찌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나는 노래 부릅니다

장군님 지어 주신 영생의 노래

인민들은 목청 다해 부르고 부릅니다

세월의 한끝까지-

-어버이수령님이시여

천세만세 영생하시라!

종소리

안흥운

1

《여보 관리위원장동무, 조합의 목화창고가 불타다는게 사실이요?》

도에서 내려 온 오부위원장은 승용차에서 내려 서기 바쁘게 미간에 잔뜩 주름살을 모았다.

《좌우간 소란하오. 쪼꼬만 조합에서 무슨 사건이 그리 많소? 반동들 책동이 심한건 사실이지만 동무네두 떨떨해. 왜 각성하지 못하오?》

《...》

관리위원장 김성국은 고개를 떨구었다. 처음 받는 추궁이 아니었다. 그 저주할 방화사건이 있는지도 벌써 한달, 우에서 누가 내려 올 때마다 받는 추궁이였고 그때마다 약국의 감초마냥 꼭꼭 씹어서 삼켜야 했던 《떨떨하다》는 소리였다.

《좌우간 방화현장부터 좀 돌아 보지요.》

농업담당인 오부위원장이 봉황협동조합에 내려 온것은 처음이 아니다. 안내가 필요 없다. 그는 외투주머니에 두손을 찌른채 울퉁불퉁 얼어 붙은 길로 걸음을 떼었다. 성국은 후줄근해서 그의 뒤를 따라 갔다.

《도대체 어찌다 그 모양이 됐소? 그 자초지종을 좀 말해 보오.》

성국은 벌써 진땀이 났다. 그로 말하면 하루에 말을 세마디만 해도 《풍년》이라던 사람이다. 8.15해방후에 리 민청위원장도 하고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락동강에도 나갔다가 돌아 오고 지금은 관리위원장을 하느라니 그럭저럭 말수가 좀 늘기는 했다. 그 무거운 입이 이 한달어간에는 사흘이 멀다하게 그 《자초지종》을 번지느라고 어지간히 신고를 겪었다. 이제는 그 《자초지종》소리만 들어도 진저리가 난다. 하지만 별수가 없다.

《그날 밤에 우리 조합원들은 다 군문화회관으로 연극구경을 갔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 온 연극 《선구자들》은 바로 이 협동조합을 원형으로 한것으로서 연극단이 여기 조합원들을 공연에 초대하였던것이다.

연극은 실감이 있었다. 32호의 농가에 2마리의 소와 달구지를 가지고 첫 걸음을 땀 조합이 힘을 합쳐 농사를 짓고 건설을 하고 반동들과 싸우는 등 모든것이 거의나 사실이었던것이다.

...관중들을 한껏 긴장시키면서 또다시 바뀌어진 무대. 어두운 밤이다. 국부조명속에 관리위원회 마당가의 대추나무에 매여단 목직한 종이 보인다. 정적속에 한 반동놈이 도적고양이처럼 돌아친다. 돌연 삼단같이 일어 나는 불길.

한 장정이 허겁지겁 달려 나와 종을 때린다.

《불이다-아, 공동소우리에 불이 났다-아!...》

기다란 소우리의 지붕을 휩쓰는 불길, 안에서 애처롭게 울부짖는 소들의 울음소리,...

허둥지둥 달려 나오는 각양각색의 조합원들, 삽시에 수라장이 된 무대, 불 타는 소우리앞에서 갈광질광하는 조합원들, 다급한 웨침소리들과 소들의 구슬픈 울음소리, 그 혼잡속에서 별로 스산하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

땡땡땡땡땡...

《에구머니나, 저걸 어찌나!》

《원 저런 처죽일놈의 반동새끼들!》

온 장내가 분노의 파도로 술렁거리는 때다.

어두운 장내의 뒤에서 허리를 낮추 굽힌 그림자 하나가 통로를 따라 중간부분으로 조용히 나오더니 한껏 목소리를 낮추었다.

《봉황관리위원장 어데 있소? 밖으로 나오시오. 빨리, 빨리!》

성국은 아쉬웠지만 별수 없었다.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조합의 《공동소우리에 불이 난》 바람에 화끈 달아 올랐던 그의 몸에 대한무렵의 차거운 바람이 확 끼었어 졌다. 부르르 몸을 떠는데 그를 불러 낸 사람이 옆에 다가섰다.

《잘 보라구. 저게 꼭 봉황에 난 불 같다니.》

《영?-》 성국은 화들짝 놀랐다. 저 멀리 칠혹같은 밤하늘의 상공으로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고있었던것이다. 읍에서 조합까지는 10리길밖에 안된다. 그나마도 청석천을 한참이나 에둘기때문이고 직선상으로는 5리 좀 남짓할뿐이다. 한밤중의 고요를 깨치며 종소리가 들려 온다.

땡땡땡...

봉황의 종소리가 분명하다. 그런즉 봉황에 불이 났다. 불중에도 어방없이 큰 불이다.

성국은 두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났다.

《어느 놈이 불을 댔을가? 왜? 어디에?...》

무엇인가 엄청난 재난을 사방에 알리며 종소리는 그냥 스산스레 울려 퍼진다.

땡땡땡...

성국은 천방지축 내달렸다. 했으나 그가 조합에 도착했을 때에는 그 큰 목화창고가 거대한 불무지로 변해 버린 뒤였다...

성국의 《자초지종》에 오부위원장은 쓰겁게 웃었다.

《허허, 그야말루 연극 같은 소리로군.》

그들의 앞으로 한 녀인이 마주 오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검정황소가 느릿느릿 끌려 오고 있었다.

《그래, 범인은 잡았소?》

《예, 한놈은 간첩이구 하나는...》

성국은 말끝을 맺을수가 없었다. 마주 오던 녀인이 오부위원장에게 공손히 허리 굽혀 인사를 했던것이다.

《예, 수고 많겠습니다.》

오부위원장은 점잖게 중절모를 들었다 놓으면 서 녀인의 인사를 받았다.

인사를 주고받은 그들이 서로 지나치는 순간 그야말로 뜻밖의 인사불성이 빚어 졌다. 길게 늘어진 바줄에 매인채 녀인에게 끌려 가던 황소가 구태여 길손들을 지나치던 때에 기다란 꼬리로 제잔등을 휘둘러 친것이였다. 별로 북방망이같이 몽툏한 꼬리가 허공에서 획 반원을 그리는 순간 오부위원장은 그것이 자기의 면상으로 날아 오는줄 알았던지 후닥닥 비껴 난다는것이 그만 돌부리를 걷어 차는 바람에 몸의 중심을 잃고 비칠거리다가 하마터면 두팔을 벌리고 엎어 질번하기까지 하였다. 간신히 위기를 면하고 난 오부위원장의 얼굴은 오만상이 되였다. 반들반들하던 밤색구두의 코숭이가 돌맹이에 긁혀서 험상하게 벗겨 졌던것이다. 공연히 놀란 가슴과 손상 당한 위엄과 불성사나와 진 구두로 하여 이래저래 끓어 오르던 부아는 마침내 터져 나갈 구멍을 찾아 내였다.

《여보, 장정들은 뭘하구 저렇게 아낙네가 소를 끌구 다니게 하오? 웡?》

《저- 그럴만한 사연이 좀...》

《사연이라니?》

《저 소는 저 녀자의 남편이 관리하던건데 지금 군내무서에 가 있어 봐서...》

《내무서엔 왜?》

《목화창고에 불을 논 사람이 바루...》

《뉘-요 ? 그럼 방화자가 조합원이요?》

오부위원장은 두눈을 홉떴다.

《지금 예심중인데 간첩놈하구 공모를 했다는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그날 밤 연극구경을 안 갔겠소?》

《목화창고경비를 세웠겠습니다.》

《잘하오! 그런즉 범에게 아이를 맡겼했다는 소리겠소?... 헛참!》

어이가 없는듯 잠시 멍하니 서 있던 오부위원장은 고개를 저었다.

《암만해두 안되겠소. 내가 예까지 내려 온건 그따위 방화사건이나 료해하자는게 아니요. 사날 후에 도에서 협동조합관리일군들의 회의가 있소. 동무를 어떻게든 모범일군들만 참가하는 그 회의에 부를가 했더니...》

그는 방화현장은 돌아 볼 필요조차 없다는듯 다시 관리위원회쪽으로 발길을 돌리였다.

《여기로 말하면 전국적으로 이름난 시범조합이요. 이를테면 농촌에 뿌려 놓은 사회주의의 <씨앗>이지. 그런데 그 <씨앗>이 썩었소. 배신자가 지 나왔단 말이요!》

성국은 가슴이 덜컥 내려 앉았다. 그는 허청허청 오부위원장의 뒤를 따라 갔다.

《지금 농촌에서 적지 않은 개인농들이 협동조합을 미심쩍게 쳐다보고 있소. 한데 조합들중의 꽃이라는 봉황에서 조합원이 불을 났소. 그래 이걸 보면서 개인농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소?》

성국은 눈앞이 캄캄해 졌다.

《자, 그러니 동무를 협동조합관리일군회의에 부르다면 사람들이 웃지 않을까?》

성국은 팔소매로 이마에 질린한 땀을 훔쳐 냈다.

그들은 관리위원회마당에 이르렀다.

승용차의 발판에 한발을 올려 놓던 오부위원장은 다시 오만상이 되였다. 구두의 험상해 진 코숭이가 두눈을 찌른것이다. 그는 고개를 돌려 저 멀리 황소가 아닌보살을 하고 뒤통뒤통 사라져 간쪽을 세모눈으로 노려 보았다.

《헛참, 봉황은 미물들까지두 아주 교약해 졌구만. 그것참!》

부르릉, 구식승용차가 자리를 뜨면서 토해 버린 시커먼 연기가 말뚝처럼 굳어 저 버린 성국의 컴컴한 얼굴로 천천히 떠올랐다.

2

올해에는 절기가 망녕이 들었나보다. 우수, 경칩이면 대동강도 풀린다는데 여기 청석천은 우수가 지났건만 얼음우에 눈까지 허영게 들쓰고 있으니 말이다. 오늘 아침만 해도 철눈은 함박눈이 한식경이나 청승 맞게 쏟아 졌다. 그러고도 뭐가 모자라는지 잔뜩 찌프린 하늘에는 모기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오늘도 조합의 남정들은 불 타버린 창고를 다시 짓고 있었다. 엄동에 벌린 건설인데다 불란것보다 두릅이나 크게 짓자니 더욱 조련치가 않다. 그럭저럭 기둥들이 일어 서고 대들보가 건너가고 오늘부터는 서까래들이 올라 간다.

일군들은 많건만 수격수격 일손들만 놀릴뿐 모두 말들이 없다.

《야, 칠성아, 네가 밤낮 얄전이 생각만 하다가 그에 상사병이 날가부다. 어서 잔칠 해라...》

조합의 좌상인 박령감이 대들보우의 칠성에게 서까래를 올려 주면서 하는 말이다.

《간놈의것, 난 색시한테 뉴퐁치마는 커녕 무명치마두 제대루 못 입히구 잔칠 했다만 색시하구 잘만 산다.》

《허허허...》

비로소 웃음소리들이 일어 났다. 했으나 그 웃음소리들은 모래땅에 부은 물처럼 인차 잦아 버

렸다. 다시 침묵속에 툽질소리, 망치질소리만이 요란하다. 방화사건이후로 침묵속에 잠겨 버린 조합이었다. 더우기 사흘전에 오부위원장이 다녀간뒤 조합원들은 더더욱 의기소침해 졌다.

성국이 한숨을 내쉬는데 박령감이 다가왔다.

《관리위원장, 나 좀 보세.》

두사람은 한쪽 구석으로 가서 통나무무에 걸터앉았다. 박령감은 성미가 호방하여 한창적에는 촌구석의 농부일망정 활랑이라는 소리를 듣던 사람으로서 성국의 아버지와는 해방전부터 형제지간처럼 지내던 사이였다. 조국해방전쟁때 성국의 아버지는 적들에게 학살되고 박령감의 맏아들은 전선에서 전사하였다. 이래저래 자별한 그들사이였다.

박령감이 띠엮띠엮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든 맘이 밝아야 잘되는 법일세. 헌데 그 망할놈의 불이 난지두 이젠 한달이나 됐네만 조합은 여적 석달장마속처럼 킁킁하단 말일세.

내 하두 답답해서 실 없는 소리두 좀 해보네만 그건 언 밤에 오줌누기구 우선 관리위원장의 낮빛이 밝아 져야 허네. 헌데 자네가 더 사색이 돼 있으니 이게 참 야단이 아닌가!》

옳은 말이다. 성국이라도 낮빛을 고치려고 애 써보았다. 하건만 지어 먹은 마음은 사흘을 못 간다고 어느 틈에 가슴속의 먹장구름이 밖으로 내비쳐진다. 더우기 오부위원장의 그 어마어마한 말들이 떠오를 때면 손발이 허둥거려서 일손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이왕지사 일이 이렇게 된걸 어찌겠나. 그저 못된 꿈을 꾸셈 치구서...》

문득 다급한 종소리가 박령감의 말끝을 잘라갔다.

뽕뽕뽕...

성국은 화닥닥 일어 섰다. 가슴이 후두두 뛰었다. 그 방화사건이후로는 별치 않은 종소리에도 와들와들 놀라는 성국이었다.

점심때가 되자면 두어시간은 있어야 될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종소리인가? 혹시 또?...

조합원들도 일손을 멈추고 한껏 긴장해 졌다.

회계장이 혈금씨금 달려 오면서 소리쳤다.

《수상님께서 수상님께서 오신대요!》

《엉?!-》 모두 놀란 소리를 질렀다.

회계장은 숨이 하늘에 닿아서 토막토막 숨 가쁜 소리를 쏴아 놓았다.

《수상님께서 우리 군에 오시는데... 방금 우리 조합으로 떠나셨다구... 기별이 왔수다!》

너무도 뜻밖의 소식에 성국은 화석처럼 굳어졌다.

(이건 꿈이다. 내 하도 제정신이 없다보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가?...)

하면서 그의 두볼로는 두줄기의 눈물이 주르르 굴러 떨어 졌다...

승용차들은 동구앞에서 멎어 섰다.

한 차에서 검은색외투에 역시 검은색중절모를 쓰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내리시였다.

중절모를 벗어 들고 환히 웃으시며 조합원들의 환호에 답례하시던 그이께서는 사람들속에서 성국을 알아 보시고 그에게로 다가오시였다.

《관리위원장동무, 잘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축갔소? 너무 무리하는게 아니요?》

《아닙니다. 저-》

그이께서는 당황해 하는 성국을 잠시 눈여겨보고 나서 박령감이며 칠성이들의 손까지 반갑게 잡아 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두손을 허리에 짚고 마을을 바라보시였다.

이 조합은 마을형성에서 좀 류다른데가 있었다. 대체로 농촌마을들은 산밑이나 둔덕에 횡축으로 전개되어 있다. 한데 여기는 봉황산밑에서 별관으로 길게 뻗어 나온 평퍼짐한 등판을 타고 종축으로 마을이 들어 앉아 있고 그끝에서 동구길이 시작된다. 하여 조합어구에서는 마을의 전경을 일별하기가 힘들다.

《내가 여기에 처음 왔던것이 전쟁이 끝난 해 가을이었으니까 이젠 3년이 넘었구만!》

수령님께서서는 자못 감회깊이 말씀에 이으셨다.

《그새 많이 달라 졌소. 우선 길을 새로 시원하게 뚫은것이 마음에 듭니다. 그때엔 길이 어찌나 좁고 오불꼬불한지 차도 들어 갈수가 없었는데.》

수령님께서 그때 이곳을 찾으셨을 때에는 밤이었다. 그날 늦어서야 이 군에 대한 현지도도를 마친신 그이께서는 봉황마을의 농민들이 남 먼저 협동조합을 무으려고 한다는데 그들을 만나보자며 몸소 찾아 오시였던것이다.

그날밤 성국의 집에서는 발기자들과 희망자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짓기 위한 의논을 하고 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성국이네들에게 나라의 형편과 농업협동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협동조합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운영할것인가에 대하여 차근차근 가르쳐도 주고 의논도 해주시였다.

어느덧 밤도 깊어 자리에서 일어 서신 그이께서는 떨어 지기 못내 아쉬워 하는 성국이네들에게 앞으로 또 만나자고 약속해 주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였다. 관리위원장 김성국을 재작년(1955)년 정초에 열리였던 전국다수확모범농민대회에 불러주신것이였다.

그 회의에서 성국은 조합을 짓고 한해농사를 하는 과정에 얻은 경험을 토론하였다. 그가 첫째 농사 결산분배날에 지난 날 조합을 두고 뒤소리를 하던 개인농들이 단번에 20여호나 조합가입을 청원한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였다. 장내에서는 요란한 박수가 터져 올랐다.

수령님께서 먼저 크게 박수를 쳐주시자 온 장내가 호응한것이였다.

그이께서는 토론을 마친 성국을 자신의 옆에

았히고는 그의 한손을 잡아 높이 흔들어 주시었다.

《장하오! 동무야말로 농업협동화의 선구자요!》
파분하게도 성국은 로력영웅칭호를 수여 받았다.

《성국동무, 축하하오. 앞으로 조합을 더잘 꾸리시오. 내 동무네 조합에 꼭 가보겠소.》

수령님의 그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늘 귀가에서 떠나지 않던 성국이였다. 그래서 뛰고 또 뛰어도 성차지 않았고 저 청석천다리에 승용차가 하나만 나타나도 혹시나 하여 가슴이 울렁거리곤 했었다.

한데 굳이 이렇게 집안이 어둡고 어수선한 때에 수령님을 조합에 모시게 된것이다.

성국은 죄스럽기 그지없었다. 한편 통분하기 짝이 없었다.

《조합이 길부터 새로 냈단 말이지. 아주 형상적이지요. 자, 그림 우선 조합원들이 어떻게 사는지 구경해 봅시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마을어귀의 첫 집으로 향하시였다. 새로 지은 집이였다.

토피벽체에 토기와를 올린 집이라 환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종전의 초가집이나 반토굴집들에는 비할바가 아니였다.

부엌문을 열리 저 있었다. 점심밥을 짓던중인듯 넓다란 부엌안에는 큼직한 무쇠가마들에서 새어나온 김이 질게 서리어 있었다. 게다가 아궁앞에는 풍구와 버겨가 담긴 삼태기까지 놓여 있어서 텅텅하고 어수선하였다.

《아주머니, 집구경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수령님께서 미소하시며 부엌안에 들어 서시였다. 아궁앞에서 풍구질을 하고 있던 중년의 녀인이 놀라서 일어 섰다. 그는 너무도 뜻밖이라 당황하여 어쩔바를 모르다가 그이께 길을 올리였다.

《점심밥을 짓습니까?》

녀인을 대신하여 성국이가 대답을 올리였다.

《군봉기계임정소 프락포르들이 봄갈이를 나왔는데 이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응, 그러니까 림시합숙이구만.》

그이께서는 천천히 아궁앞에 마주 앉으시였다.

《여긴 벌방이라 뭘나무가 바르겠습니까.》

수령님께서 한손으로 풍구를 돌리면서 한손으로는 삼태기안의 버겨를 쥐여 아궁안으로 던져 넣으셨다. 연기만 실실 피여 오르던 아궁안에서 부채살모양의 불길의 솔밀창으로 울리뻔었다.

《이것 보시오. 장작불이 울고 가겠습니까.》

불길은 잘도 일어 났다. 멈칫했던 국술이 다시 기세 좋게 벌렁벌렁 끓기 시작하였다. 묵직한 솥뚜껑이 흥겨운듯 들썩거렸다. 그때마다 새어나오는 김이 구수한 토장국냄새를 부엌 가득 풍겨놓았다.

《그 토장국냄새가 정말 기막힙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우리도 한그릇씩 신청해 들걸 그랬습니

다.》

수원들은 물론 조합원들도 즐겁게 웃었다.

수령님께서 손을 털며 일어 서시였다. 그의 한쪽 외투자락에는 노란 버겨들이 다문다문 물어났다. 그이께서 집주인에게 몇식구인가고 물으셨다.

《아들 둘하고 삼니다. 명수는 중학생이고 명남이는 인민학교에 다닙니다.》

《세대주는 어디 갔습니까?》

《저어...》

녀인은 머뭇거리더니 종시 고개를 떨구었다.

할수없이 성국이가 이 집 세대주는 전선에서 돌아 오지 못했다고 대답을 올리였다.

수령님께서 안색을 흐리며 창밖으로 눈길을 돌리시였다. 저 멀리 봉황산의 상공에는 수리개 한마리가 유유히 떠돌고 있었다.

잠시후 그이께서 다시 물으셨다.

《세대주없이 살자니 고생이 많지요?》

수령님께 근심을 드린것이 죄송한듯 녀인은 서둘러 대답을 올리였다.

《수상님, 조합에서 잘 돌봐 줘서 일 없습니다.》

《왜 없겠소...》 수령님께서 다시 창밖으로 눈길을 돌리며 혼자말씀처럼 조용히 뇌이시였다.

《인간생활이란게 먹고 입고 쓰고 사는것으로 전부가 아니지요. 우선 있을 사람이 다 있어야 합니다. 아마 때때로 남편생각이 간절할거요.》

《...》 녀인의 고개는 힘없이 숙어 졌다.

《더우기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생각에 남모르게 눈물도 흘렸을거요.》

녀인의 까만 신발코숭이에 서너방울의 눈물이 점점이 떨어 졌다. 등뒤에 서 있던 녀인이 그의 뒤팔소매를 조심히 건드렸다.

《봐주시오. 애들이 불가봐 눈물인들 맘 놓고 흘려 봤겠소.》

그이의 갈리신 말씀에 녀인의 입에서는 끝내 간신히 잡던 흐느낌소리가 새어 나왔다.

수령님께서도 외투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눈가로 가지 가시였다.

수원들과 조합원들도 조용히 눈곱들을 찍어냈다.

녀인이 먼저 마음을 다잡고 눈곱을 닦아 냈다. 수령님께서도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으셨다.

《그러니까 명남이네는 남들보다 분배를 적게 탔겠습니까? 로력자가 한명뿐이 아닙니까?》

녀인의 얼굴은 빨아 졌다.

《남편이 전사했다고 조합에서 200공수나 보태줬습니다. 그래서 먹을건 넉넉합니다.》

《그거 정말 잘했소!》

그이께서는 대견한 눈길로 성국을 돌아 보시였다.

성국은 당황해 났다. 배은망덕한 죄는 숨겨 두고 하찮은것으로 칭찬을 받는것만 같아서였다.

수령님께서 다시 집주인에게 물으셨다.

《그럼 현금분배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2만 3천원(구화폐)을 받았습니다.》

《2만 3천원이라, 그것으로 아이들에게 옷도 해입히고 산발도 사서 신기고 또...》

그이께서는 손가락을 꼬아 가며 돈의 소요량을 가늠해 보시었다.

성국은 분하기 그지없었다. 목화창고만 불 타지 않았으면 현금분배는 훨씬 높아 졌을것이였다.

그러자 잠시 잊었던 죄의식이 되살아 났다.

수령님께 사실대로 아뢰야 한다. 그러면 그이께서는 얼마나 실망하실것인가. 하지만 별수 없다.

그가 조심히 한걸음 나서려는 때였다. 등뒤에서 누군가 슬그머니 옷가락을 잡아 당긴다. 돌아보니 박령감이였다. 역시 언제나 성국의 마음속을 환히 들여다 보는 박령감이였다.

(자네 정신 있나? 모처럼 찾아 오신 수령님께 그런 불상사를 말씀 올리다니!)

(그렇다고 잡자코 있을수야 없지 않습니까?)

(글쎄 지금은 안되다니!)

속대사들이 오가는 사이에 기회는 사라졌다.

그이께서 다시 녀인에게 말씀을 건네시였던것이다.

《명남이 어머니, 그 돈으로 살림을 하자면 돈이 펴 모자라겠습니까. 그렇지요?》

집주인은 솔직한 녀자였다.

《수상님, 사실 돈은 좀 바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남편은 없지만 나라 위해 목숨 바쳤으니 몇몇하구, 돈은 좀 바르지만 빚은 없으니 근심이 없습니다. 왜정때 종살이두 해보구 전쟁두 치르면서 산전수전 겪어 보니 기름진 밥에 비단옷을

입는다구 잘 사는게 아닙니다. 좀 어렵긴 해두 빚진것 없구 구박 당하는것두 없으니 정말 맘이 편해서 사람 사는것 같습니다.》

《그거 정말 명답입니다. 옳습니다. 사람이 잘 산다는건 결코 잘 먹고 잘 입는데에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뭐니뭐니해도 우선 마음이 밝아야 합니다.》

수령님의 안색은 환해 지시였다.

《명남이 어머니, 가슴을 쪽 꺾고 사시오! 내 자주 여기에 오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게 하시오.》

마을로 깊이 들어 갈수록 그이의 안색은 컴컴더 환해 지시였다. 여기저기 널려 있던 초가집들과 반토굴집들을 훑어 비리고 길 량옆에 나란히 지은 살림집들이 그이를 기쁘게 해드린것이였다.

《대단하오! 관리위원장동무, 농사를 하면서 이 많은 집들을 언제 다 지었소?》

아담한 탁아소며 상점, 학교가 차례로 나타났다. 수령님께서는 어느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였다. 새로 지은 문화회관앞에 이르러서는 정녕 놀라우신듯 수원들을 둘러 보시였다.

《이것 보시오. 이젠 조합원들이 회관까지 가지

고 있습니다! 들어 가봅시다.》

회관안은 제법 널찍하였다.

그이께서는 중간부분의 관람석에 앉아 보시었다.

《멋이 있소. 도시사람들이 울고 가겠소. 그전엔 아동영화가 오면 어디서 봤소?》

성국이 조심히 한걸음 나서려 대답을 올리였다.

《마당에서 봤습니다. 달구지명에채를 올리구 거기다 영사막을 매달구서 영화를 비쳤습니다.》

《음. 나도 농민들과 그렇게 영화를 본적이 있소. 그런데 바람이 불면 영사막이 흔들려서 예쁜 처녀가 병신처럼 되군 했소. 아마 그 배우가 그걸 봤더라면 기절초풍 했을거요.》

드넓은 회관은 즐거운 웃음소리로 가득찼다.

《됐소. 이젠 제 회관에서 영화도 보고, 예술공연도 보고 조합회의도 하고...》

수령님께서는 의자에서 일어 나시였다. 만족한듯 다시한번 장내를 둘러 본 그이께서는 순돌이네 할머니에게 몸을 굽히시였다.

《할머니, 내 다음에 와서는 조합원들의 예술공연을 좀 구경하겠습니다. 그때 할머니도 타령을 한곡조 들려 주시겠습니까?》

《수상님, 이 늙은게 무슨 노래를 다 하겠습니까. 노래라곤 소시적에 베를 짜문서 수심가나 불러 보던게 고작인걸요.》

《그럼 낮에 짜면 일광단이요, 밤에 짜머는 야광단이라 하는 노래랑 잘하시겠습니까?》

《잘이야 하겠습니까마는 한창적엔 우리 령감님두 내 노래가 듣기 싫다군 안했습니다. 내가 생긴건 호박 같애두 노래를 잘해서 정이 든다나요.》

《허허허, 그럼 령감님이 가끔 할머니의 노래를 듣자고 했겠습니까?》

《아, 그러문요. 한곡만 더 하문 안아 준다, 두곡만 더 하문 업어 준다 하문서 그냥 얼리는데 일이 바쁠 땐 남편이 곱다 곱다 해주는것두 영성화더라니까요!》

《허허허...》

《하하하...》

넓은 회관은 즐거운 웃음소리로 넘쳐 났다.

그속에서 성국은 자신을 까맣게 잊었다.

3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다시 길에 나서실 때였다.

이웃 조합에서 치는 웅근 종소리가 들려 왔다. 떼-앵, 떼-앵, 떼-앵...

《벌써 점심때가 됐습니까?... 그 종소리가 참 듣기 좋습니다.》

수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였다.

성국은 종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의 가

숨은 삽시에 어두워 졌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불 탄 자리에 다시 짓는 목화창고가 있었던것이다.

수령님께서는 걸음을 옮기며 농업성 부상에게 말씀을 건네시었다.

《부상동무, 그 량반들이 이 현실을 보면 뭐라고 하겠는지 흥미가 있지 않소? 농업협동화의 <시기상조>를 운운하던 사람들말이요.》

그이의 옆으로 반백의 부상이 따라 섰다.

《솔직히 말씀 올려서 저도 와보지 않았으면 믿기 힘들었을것입니다. 해마다 알곡생산을 대폭 올리면서 서너해동안에 이 많은 건설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꾼들이 현실에 자주 나가서 배우라고 하는거요.》

성국은 급해 났다. 벌써 그이의 어깨너머로 그 우환거리, 목화창고가 보였다.

빨리 죄다 말씀 올려야 한다, 수령님께서 저건 무슨 건물을 짓는가고 물으시기전에!...

성국은 마음을 다잡았다. 허나 좀처럼 기회를 얻기가 힘들었다. 그이께서 수원과 무슨 말씀을 나누시는데 무엄하게 끼여 들수가 없기때문이었다.

성국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공공 하는데 목화창고는 한걸음, 두걸음 가까이 왔다. 그만큼 정국의 가슴도 조여 들었다.

이제는 다 왔다. 빨리 아뢰어야 한다. 빨리!... 허나 때는 늦었다. 그이께서 걸음을 멈추신것이다.

성국은 그만 온몸의 탕개가 풀려 버리었다. 저도 모르게 고개가 폭 떨어 졌다.

《그런데 저 동무는 왜 저러고 있소?》

성국은 제 귀를 의심하면서 고개를 들었다.

수령님께서는 길옆의 목화창고가 아니라 앞을 곧추 바라보고 계시었다.

저기 길앞에는 병아리들을 돌아 가는 엄지닭마냥 한 일꾼이 여러문명의 조무래기들을 앞으로 몰아 가면서 열심히 무슨 말을 하고 있었다.

《학교 갔던 이 동네 아이들이 수상님을 뵈겠다고 달려 오는것 같습니다. 점심식사시간도 되었고 또 일정도 매우 긴장한데 애들까지 매여 달리면...

너무 딱해서 제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수령님께 부관이 올리는 말씀이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우리 나라이니 수상이 왔다고 아이들이 달려 오지 자본주의나라라면 달려 오거나 하겠소. 어서 그냥 놔두라고 하오.》

곧 아이들에 환성을 올리면서 달려 왔다. 인민학교 1, 2학년생의 울망줄만한 조무래기들이었다.

삽시에 그이의 량팔과 옷설에 그리고 앞뒤좌우에는 애들이 오롱조롱 매여 달리었다.

...배고프지들은 않느냐, 춥지들은 않느냐, 오늘

은 무엇을 배웠느냐...

그이께서 한 애에게 물으시면 모두 일시에 대답을 올려서 하나도 똑똑히 알아 들을수가 없었다.

뒤전으로 밀려 난 조합원들은 자기네 애들이 너무도 부잡스럽게 그이를 부여 잡고 돌아 가는 바람에 송구스러워 어쩔바를 몰라 하였다.

한 녀인이 보다 못해 그이의 팔을 그냥 붙안고 있는 자기 아들을 떼어 내려고 하였다.

《허허, 놔두시오. 아이들이야 그래야지요.》

환히 웃으면서 녀인을 만류하시던 수령님께서는 문득 어른들의 어깨너머에 눈길을 주시었다.

《가만, 저 애는 왜 저러고 있느냐?》

수령님의 눈길이 향한 곳으로 어른들의 《울타리》가 갈라 졌다. 그러자 먼발치에 외로이 서 있는 한 소녀가 드러났다. 여덟살쯤 되었을가, 까만 교복에 까장치마, 까만 신발에 곤색책보 자기를 들었다. 왜서인지 소리없이 울고 있었던 모양으로 동그스름한 두볼에는 두줄기의 눈물자욱이 그어 져 내려 갔는데 턱밑에는 금시 떨어 질듯말듯 한방울의 눈물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넌 왜 그러느냐? 이리 오너라. 어서 !》

그이께서 부르셨다. 그러자 그 애는 다가올대신 참고 참았던듯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다.

잠시 닫기였던 애들의 입이 일시에 열리었다.

《원수님, 옥희네 아버지 잡혀 갔습니다.》

《목화창고에 불을 냈거든요.》

《옥희 울보가 됐습니다. 걸핏하면 옵니다.》

수령님께서 처녀애에게로 다가가시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응?》

성국은 그만 눈을 감았다. 차마 더 이상 보고 들을수가 없었다.

아, 수령님을 조합에 모실 날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애 타게 기다려 왔던가. 허나 모든것이 죄다 망쳐 졌다. 그 저주할 천복(방화광모자)이때문이다. 성국은 이미 천복이를 내심 조합원명단에서 아니 인간명단에서 지워 버리었다. 하건만 그의 존재는 이처럼 지긋게도 코코마다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것이였다.

물론 수령님을 맞이한 첫 순간부터 성국은 어느때이건 그이께 사실을 말씀드릴수밖에 없다는 것을 통절히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가슴아프게 번져 질줄은 몰랐었다.

《됐다, 울지 말아.》

성국은 가까스로 눈을 떴다.

수령님께서 손수건으로 옥희의 눈물을 닦아 주고 계시었다. 어린것은 그래도 지각이 있는듯 입술을 깨물며 울음소리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하건만 그럴수록 흐느낌소리는 더 크게 터져 나 올뿐이었다. 그것이 오히려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애달프게 해주었다.

그이께서 옥희의 어깨를 다독여 주며 달래셨다.

《자, 옥희야. 이제 그만 그쳐라. 응!》

그러자 옥희는 간신히 참고 참던 울음을 소리 내어 터뜨리면서 그이의 품에 와락 안겨 들었다.

수령님께서도 그만 더 말씀을 못하고 옥희를 품에 그럭 안은채 조합원들에게 물으셨다.

《여기에 옥희의 어머니가 없습니까?》

《...》

대답이 없었다. 있을리 만무했다. 철부지조차 차마 그이께 다가오지 못하고 소리없이 울고 있었음에랴. 필경 어디서 슬피슬피 울고 있을것이다. 성국은 천근마냥 무거워진 발을 움직여 한 걸음 나섰다. 더 이상 피할수 없는 일이 다가온 것이다.

《수상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일을...》

성국은 말문이 막혀 버렸다. 수십번이나 속으로 곱씹어 두었던 말머리를 잃어 버린 것이었다.

그를 구원해 준 사람은 역시 박령감이었다.

《수상님, 주책없구 외람되오나 제가 대신 여쭙으시면 합니다. 얼마전에 우리 조합에서 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위원장이 담고생을 좀 합니다...》

《예,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

박령감과 성국어도 조합원들도 모두 숨들을 멈추었다. 지나가던 바람마저 멎어 선듯 하였다.

수령님의 친근한 미소가 어린 눈길은 빙 둘러선 조합원들을 거쳐 길옆의 목화창고에 머물렀다가 놀람에 굳어진 성국에게로 와서 멈춰 섰다.

《관리위원장동무, 보아하니 저것은 그 불 탔다는 목화창고를 다시 짓는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올해(1957년)는 류달리 분망하신 해였다. 이해부터 우리 인민은 제1차5개년계획의 첫째 파업수행에 들어갔다. 류씨가 없는 방대한 전투였다. 그 아름다운 파제우에 또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결정적으로 다 그쳐야만 하였다.

지난해에 공업부문에서는 총 생산액중에서 사회주의적성분의 몫이 98%에 이르렀다. 현재 남아있는 개인상공업과 수공업이란 보잘것 없으며 그나마 곧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될 것이다.

한편 농업부문에서는 지난해까지 협동조합에 망라된 전국의 농가호수가 80.9%로서 공업부문보다 사회주의적개조가 좀 뒤떨어졌다고 볼수 있었다. 올해에는 농업협동화가 기본적으로 수행될 것이며 다음해에는 그 완성을 확고히 내다보고

있다. 결국 농업협동화의 완성은 곧 전국적인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의 완성으로서 사회주의제도의 완전수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여 30여년전 《E.C》의 리념이 제시된 때로부터 20성상 항일의 혈전만리와 해방후 새 조국 건설시기, 전후의 기초건설을 거쳐 드디어 사회주의제도의 완전수립을 눈앞에 둔 지금이었다.

이처럼 농업협동화가 중요하기에 그이께서는 정초부터 전민을 천리마대고조예로 불러 일으키는 한편 농촌실태를 료해하기 위하여 농촌현지지도의 길을 이어 가고 계시었다. 그러던중 이 조합에서의 방화사건소식도 들으셨던 것이다.

수령님께서 성국이네들에게 방화사건에 공모했다는 그 조합원은 어떤 사람인가고 물으셨다.

박령감으로 말하면 조천복의 아버지는 물론이고 할아버지까지도 잘 알았다. 그들은 모두 순박하고 정직하며 랑심과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성국으로 말하면 천복이와 같이 이 고장에 태를 묻고 자란 사이였다. 《꼬투리시절》에는 청석천에서 같이 개혜염을 배웠고 고지주네 참외밭에 기여 들다가 같이 줄경을 치르기도 했으며 더벅머리시절에는 풀머슴살이의 서러운 눈물도 같이 짜보았다.

8.15해방후에는 민청생활도 같이 했고 전후에는 협동조합원도 같이 되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성국이가 군복을 입을 때 천복이는 평발이라 군복을 입지 못한것뿐이었다.

성국이가 과묵하다면 천복이는 말이 좀 험프다고 할가, 어쨌든 그들은 친구지간이었다. 서로 상대방의 집을 지나칠 때에는 퇴마루에 걸터앉아 담배를 한대 피우거나 하다못해 찬물 한그릇이라도 달래서 들이키고 가던 사이였다. 했던것이 지금은 제일 먼 사이로 돼버렸다. 천복이네 집을 지날 때면 저절로 고개가 비틀어 지는 성국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신 수령님께서 저으기 신중해 지시였다.

조천복의 근본으로 보면 우리 당정책을 의식적으로 반대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인간됨으로 보아도 친구나 한고향사람들을 쉽게 배신할 악한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시대의 반동으로, 악한으로 되게 하였는가? ...

수령님께서 그때까지 품에 안고 계시던 옥희에게 어머니를 찾아 오라고 이르시었다.

《어머니보고 내가 찾는다고 일러라.》

처녀애는 종주먹을 부르쥐고 구울듯이 달려갔다.

그이께서는 뒤집을 지고 다시 짓고 있는 창고로 천천히 다가가시었다. 어방없이 큰 창고였다. 든든한 주춧돌에 받들리워 서 있는 굵다란 소나무기둥들에는 송진이 방울방울 맺혀져 있었다.

그이께서는 천천히 창고를 돌아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시었다.

지금 나라의 농업협동화는 성과적으로 추진되고있다. 그럴수록 적들의 파괴책동도 더욱 악랄해졌다. 하여 도처에서 각종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계급투쟁의 응당한 합법적적과정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문제로 되는것은 국부적이긴 하지만 기본군중인 조천복과 같은 사람까지 적들에게 흡수되는 그것이였다. 온 나라가 사회주의에로의 전면적인 이행전야에 있는 현 상황에서 볼 때 그것은 사회주의의 앞길에 제기될수 있는 그 어떤 심각한 사회문제성을 시사한것으로 볼수 있었다.

사회주의, 이것은 백만년의 인류사가 파란만장의 자기 행로를 총화하고 얻은 진리이다. 허나 진리라고 다 생활에 쉽게 구현되는것은 아니다.

직립보행의 재간을 익히고 첫 사회를 이룬 때로부터 인류는 자기의 리상향을 찾아 끝 없는 gap론을박속에 무수한 피의 홍수들을 건너 왔다. 하여 한단, 두단 뿔아 오른것이 원시사회, 노예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였다. 도합 겨우 네개의 사회에 올라 와보고 머리를 흔드는 사이에 무려 백여만년의 세월이 흘러 간것이다. 하물며 인류가 수수만년 공상해 온 리상향에로의 길, 사회주의에로의 길이 과연 순탄할수 있겠는가!

사실 벌써부터 안팎으로 걸림돌도 많고 뺨방군들도 많고 적들도 많은 사회주의에로의 길이었다. 밖에서는 미제와 리승만피괴들이 공화국북반부의 불순분자들에게 열심히 입김을 불어 넣고 있다.

현실적으로 미제는 불장난의 도수를 점점 높이고 있다. 하여 분계선에서는 무시로 총포성이 울부짖고 있다. 그 국부전의 불티가 전면전쟁의 불씨로 번져 지지 않으리라라는 담보는 없는것이였다.

수령님께서는 상념에서 깨어 나시였다. 조천복의 안해가 나타났기때문이었다.

4

녀인은 첫눈에 순박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것이 알리였다. 고뇌에 시달려 비록 얼굴은 상해 보였지만 행동거지는 준수한 녀인이였다.

수령님을 뵈옵자고 나서기까지에는 마음의 준비를 여간만 하지 않았을것이건만 그는 아무 말씀도 못 올린채 하염없이 흐느껴 울기만 하였다.

수령님께서도 가슴이 아프시였다.

《우리는 옥희의 아버지가 어떻게 돼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리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마침내 애 써 자신을 수습한 녀인은 조용하면서도 침착하게 남편이 길을 잘못 들게 된 경위를

그이께 말씀 올리기 시작하였다.

…지난해 가을 어느 장날이었다. 읍에 나가서 장을 보고 난 조천복은 락심천만해 졌다. 돼지시세가 폭락되어 예상보다 어방없이 적은 값을 받았던것이다. 이미전부터 푼푼이 모아 온 돈에다 이번 돼지값만 합하면 오래전부터 눈독을 들인 읍소비조합상점의 라지오는 때놓은 당상으로 믿었던것이 허무하기 짝이 없었다.

망연자실해 진 그의 눈앞에 떠오른것은 울상이 된 딸애의 얼굴이었다. 오늘 아직 장으로 떠나면서 딸애에게 꼭 라지오를 사다 주겠노라고 장담한것이 후회막심하기만 하였다.

이제나저제나 아버지가 돌아오기만을 안타까이 기다릴 딸애한테 빈손으로 털썩털썩 돌아 가자니 차마 발이 떨어 지지 않았다.

그가 우거지상이 되여 비 맞은 수답모양으로 후줄근해서 어정거리는데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쏟아져 내렸다. 하는수 없이 장마당근처의 가게방으로 쫓겨 들어 가서 비를 곳게 되었다.

원래 꾸집이 좋은 조천복이라 인차 가게방주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방가성을 가진 가게방주인은 천복이보다 두살 아래인 매우 사근사근한 사람이었다. 두루 통성과정에 천복은 방가가 강원도에서 온 《소개민》이라는것을 알게 되었고 상대편은 조천복이 봉황의 조합원이며 관리위원장파는 친구기간이라는것까지도 알게 되었다.

방가는 자기 이종형의 성씨가 바로 조가라면서 매우 반색을 했다. 그는 타향에서 외롭던차에 《이종형》을 만났다면 소갈비에 받쳐 막걸리를 푸짐히 냈다. 막걸리사발이 몇순배 돌아 거나해진 《형제》간에는 곧 무릅잡는 말이 오가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 오늘 조천복이 처한 딱한 사정이 묻어나온것은 물론이었다.

《형님, 녀려 마슈. 내 도와 주리다. 그까짓 라지오가 뭐라구 귀한 자식을 올리겠소!》

방가는 소비조합상점에까지 따라 나가서 조천복이 라지오를 사는것을 거들여 주고 그 우에 딸애에게 줄 《모란과자》통까지 덧놓아 주었다.

그후에도 방가는 조천복을 만날 때마다 드문드문 돈을 쥐여 주었다. 그때마다 조천복은 아니아니하면서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 돈을 꼬당기군 하였다. 돈에 맛을 들이고 보니 쓸수록 필요되는것 이 돈이었다.

게다가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조합원들속에서는 은근히 경쟁식으로 살림살이에 신경들을 쓰기 시작하였다. 누구네는 재봉기를 사놓았다, 누구네는 라지오를 갖추었다, …들리느니 그 소문이였다. 조천복이도 폐외가 아니였다. 한가지를 해 놓으면 두가지, 세가지가 탐이 났다. 그럴 때에 방가가 쥐여 주는 돈이야말로 가물에 단비였다.

드디어 운명적인 날이 었다. 그날밤 조천복은 목화창고앞에 앉아 있었다. 경비였던것이다.

밤도 어지간히 깊은 때였다. 땅속에서 솟아 난 듯 두억시니 같은 그림자가 코앞에 불쑥 나타났다.

조천복은 화닥닥 일어 섰다. 가슴이 널뛰듯해 졌다.

《앉소, 앉아!...》

유령의 사나이는 조천복의 어깨를 꼭 눌러 앉히고는 자기도 옆에 바싹 붙어 앉았다.

《아니, 도- 동생이 이 밤중에 어떻게?...》

조천복은 가슴이 방아질을 하는 속에서도 《동생》의 거동이 전에 없이 딱딱하고 거칠어 진것을 푹푹히 느끼었다.

《조형의 신세를 좀 저야겠소.》

이번엔 또 《형님》이 《조형》으로 달라 졌다. 《시-신세라니?》

방가는 간단히 방화계획으르 말하고 나서 덧붙였다.

《뭐 별루 신세랄것두 없소. 조형은 그저 잠간 눈만 감아 주면 되니까.》

조천복은 초풍만난 사람마냥 몸을 와들와들 떨었다. 그는 이를 덜덜 맞조으며 떠듬떠듬 물었다.

《도-도대체... 임잔... 누-누군가?》

《뭐 그쯤 알아 두시구레. 조형이 이답에 팔자를 고치저들랑 이 방가의 은공을 잊지나 마소!》

(음, 네놈이 그런 놈이겠구나. 내 그런걸...)

《자, 그럼 거사를 치뤄두 되겠소?》

《...》 조천복은 대답할수가 없었다. 온 조합원들이 사시장철 팽이처럼 돌아 치며 아글타글 가꾸어서 한섬, 두섬 들이쌓은 목화였다. 자기 역시 손발이 닳도록 이랑마다, 포기마다 피땀을 쏟아 부었다. 그런데 거기애다 불을 질러?...

불더미로 변해 버린 이 앞에서 땅을 칠 조합원들, 한뼘 회로애락을 같이 해 온 고향마을사람들의 그 처참한 광경이 언뜻언뜻 그의 눈앞을 지나갔다. 더우기 꼬투리시절부터 오늘까지 별로 떨어져 본적이 없는 친구, 성국의 시꺼멓게 죽은 얼굴이 너무도 생생히, 너무도 가슴 아프게 떠올랐다.

안된다, 설사 내 몸이 부서진대도 안된다!...

그는 마음을 도사려 먹었다. 온몸에 독이 퍼져 올랐다.

《내가 날 잘못 봤구나!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어수룩한줄 알았더냐. 이놈아!》

《아아, 조형은 신세 갚는 법이 고약하구려. 조형이 내 신세를 작게 지지는 않은것 같은데?》

《...》 천복은 대답이 궁해 졌다. 사실 방가에게서 수차 받은 돈이 약차했던것이다.

《조형이 이렇게 나오니 나도 회계를 좀 봐야겠소. 내 조형의 코가 잘 생겨서 그 많은 돈을 준 건 아니니까.》

천복은 눈앞이 캄캄해 졌다. 그 많은 빛을 갇자면 몇해가 걸려야 할지 막막한 일이었다. 그는

비로소 자기가 무서운 올가미에 든듯히 걸려 들었음을 깨닫고 머리를 싸쥐었다. 온몸에 뻗쳐 올랐던 독기는 찬비를 맞은 모닥불마냥 사그라 졌다.

《어련하겠소만, 이왕지사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차후에 입건사를 잘하시우, 나한테 뒤탈이 생기면 당신도 무사치는 못할테니까. 적당히 둘러 대시우. 경비원을 의심할 사람은 없을테니까.》

방가는 짧게 휘파람소리를 냈다. 어둠속에서 세놈의 피한이 달려 나왔다.

조천복은 그제야 정신이 펴쩍 들었다.

《안된다. 이놈들,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

그는 펄펄 뛰었다. 했으나 그것은 의무감에 못이긴 항거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잠간사이에 팔다리를 묶이우고 입에는 자갈까지 물리웠다.

일은 순식간에 저질러 지고 악한들은 사라졌다. 목화는 화약의 근본이라 불은 빨리도 일어 났다.

(아아, 저걸 어쩌누? 저걸, 저걸, 저걸...)

조천복은 곤두벌레마냥 눈썹린 땅우를 데굴데굴 굴었다. 사지가 움짹달짝 못하게 묶이운것이다.

성성한 팔다리가 있으되 무용지물이었다. 다름 아닌 돈이 방금전만 해도 멀쩡하던 자기를 산송장으로 만들어 버린것이다. 바로 그 돈이 대대로 가난은 할망정 깨끗이 살아 온 가문의 후손을 순간에 악한으로, 역적으로 만들어 버린것이다.

(아아, 내 이제 무슨 닳으루 하늘을 보누!)

그는 언 땅에 자기의 머리를 그냥 짓조았다.

종곡창고와 축사의 경비원들이 달려 왔을 때 조천복은 이미 실신한 상태였다...

허나 그는 역시 정직하고 량심 있는 사람이였다. 피골이 상접하도록 식음을 전폐하고 죄의식에 시달리던 그는 마침내 모든것을 각오하고 집을 나섰다.

그의 비장한 심사를 알아서인가 하늘이 미여지게 눈이 내렸다.

마당앞에 나선 조천복은 나서 자란 고향산천과 영결하는듯 추연한 눈길로 뽕오얀 눈밭속에 회미해 진 빌판이며 봉황산이며 저 멀리 청석천이며를 하염없이 둘러 보았다. 이 고향, 이 조합에 다시 살아 예이제 변함없이 씨 뿌리고 열매 거두어서 검둥개 꼬리 저어 반기는 이 정든 집에 또 다시 들락날락, 사랑하는 처자들에게 너털웃음을 푼푼히 나눠 줄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허나 되돌려 울수 없는것이 세월의 흐름이요, 덧없는것이 인생이라 이미 잊지른 물이었다.

그는 군내무서로 떠나기에 앞서 슬피슬피 우는 안해에게 떠엽떠엽 이런 탄식을 남기었다.

《여보, 내 돈에 맛을 들이다 보니 잠간사이에 머처리가 되구 역적까지 됐구려. 돈이란게 그렇게 치사하구 무서운줄을 몰랐던게 정말 통분하구

려!》

곧 방가일당이 체포되었다. 방가는 전쟁때 미군첩보부가 파견한 간첩이라는것이 판명되었다. 그것은 바로 열흘전의 일이었다.

5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다시 길을 따라 걸음을 옮기시였다. 모두 조용히 그이를 뒤따랐다.

그이께서는 못내 가슴이 아프시였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유족한 생활이나 부귀향락도 돈, 황금에 있다. 하여 고급동서에 돈, 황금이 낡은 비화가 그 얼마였던가.

우리 혁명의 도상도 결코 레외가 아니였다. 조국광복과 새 조국건설에 나섰던 혁명가들이나 애국자들도 역시 인간들이였으며 구체적인 생활속에 있었다. 장구한 혁명의 로정에서 돈, 황금에 유혹되어 변질되거나 배신의 길로 굴러 떨어진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 그로 인한 우리 혁명의 손실 또한 그 얼마였던가.

수령님께서서는 걸음을 멈추셨다. 길옆에 자리잡은 관리위원회가 나타났기때문이었다.

관리위원회는 크지 않았다. 새 건물도 아니였다. 일신된 조합의 면모에 비하면 작고 초라하다고도 할수 있다.

관리위원회 앞마당가에 사람들의 눈길을 확 끌여 당기는 게시판이 세워져 있었다.

든든한 통나무로 랑기둥을 박아 세우고 직관물들이 비에 젖지 않게 채양까지 달았다.

수령님께서서는 천천히 그리로 다가가시였다.

누가 쟁취할것인가?

이런 큼직한 표제아래에는 두가지의 직관물이 붙어 있는데 첫번째는 조합원들의 개인별경쟁도표였다. 두번째는 그 경쟁에 따르는 시상내용인데 백테터박에서도 확 안겨 오도록 대서특필된 상품명세였다.

1등 라지오

2등 재봉기

3등 뉴통옷감

...

수령님께서서는 그 직관물들에서 인차 눈길을 땔수가 없으시였다. 얼핏 보면 조합원들의 생산의욕을 높이는데 효과적일것으로서 나무랄것이 없는것 같다. 하면서도 무엇이든 비정상적인것이 느껴지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렇다. 여기에는 분명 비정상적인것이 있다. 그것은 경쟁을, 그것도 개인경쟁을 유혹에 가까운 강한 물질적자극으로써 극단적으로 고취하고 있는 그것이였다. 개인경쟁의 극단이 생존경쟁이고 생존경쟁의 극단이 약육강식이며 그런 사회가

자본주의사회일진대 생산관계는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해 놓고 사람들의 의식은 자본주의적으로 고취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모순이 아닌가.

수령님께서서는 그만 눈길을 돌리시였다. 게시판 옆에는 한그루 큰 대추나무가 서 있는데 두어메터우에서부터 굵은 가지들을 사방으로 내뻗치고 우로 올라 가면서 무수한 잔가지들을 펼쳐서 그 풍만하고 거대함이 사뭇 장관이였다. 소소리 높은 상고대에는 줄 끊어진 낙지연이 걸려서 불우한 자기 처지를 슬퍼 하듯 차거운 하늬바람에 꼬리들을 애처로이 날리고 있었다.

잠시 그 모양을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아래로 내려 오다가 한 굵은 가지에 매여 달린 목직한 종에 눈길을 멈추셨다. 어느 조합에서나 흔히 볼수있는 폭탄깎지로 된 종이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종앞에 다가서서 손끝으로 두어번 두드려 보시였다.

데-엥, 데-엥... 사뭇 웅근소리가 났다.

이 세상에는 하많은 종들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농촌들에서만 종이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것은 쉽지 않을것이다. 태고적부터 모든 활동을 개별적으로 하는데 습관된 우리 농민들을 집단생활에로 부르자니 거의 필수적인것으로 된 종이다.

일 나오라, 들어 오라, 모이라, 하루일과는 물론이고 경사, 불상사 등 모든 일들이 종소리로 지령되고 전해 진다. 한마디로 개인주의에 굳어진 우리 농민들을 집단주의에로 부르는 종이었다.

한데 이 종은 자기의 사명을 왕창같이 수행하는셈이다. 조합원들이 종소리에 따라 일터로 나가고 들어 올 때에는 대체로 이곳을 지나치게 되어 있다. 그밖에도 여러가지 모임으로 조합원들을 부를것인즉 하루에도 몇번씩 이 직관물들에 눈길이 끌리게 될것이다. 그때마다 부단히 자각케 되는것이 무엇 이겠는가.

...남보다 이겨야 한다. 그래서 기어이 저것은 내가 가져야 한다!...

수령님께서서는 성국을 가까이 부르신후 경쟁을 계속 이렇게 해왔는가고 물으셨다.

한순간 당황했던 성국은 곧 자신을 수습하고 침착하게 대답을 올리였다.

《그전엔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오부위원장은 확실히 이곳 조합에 《관심》이 많았다. 군에 내려 오면 꼭 성국을 불러 구체적인 《지도》를 주었다.

지난해 여름에는 조합에까지 내려 왔었다. 삼복이라 그는 이 대추나무 그늘아래에 의자를 놓고 앉았다. 그리고는 활활 부채질을 하면서 관리위원회의 위치가 참 좋다고 칭찬했다. 그러던 그는 게시판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관리위원장, 무슨 경쟁이 저 모양이요?》

그는 부채를 접어서 지시봉처럼 만들어 가지고 계시관의 첫번째 직관물을 가리켰다. 그것은 작업반별 경쟁도표였다.

《경쟁이란거야 사실 승벽내기를 시키자는건데 저렇게 작업반경쟁으로 두리몽실해서야 무슨 승벽이 생기겠나. 당장 개인별 경쟁으로 고치오.

개인경쟁으로 고치되 특히 상품내용을 큼직하게 써놓소. 예...1등에는...》

그는 상품명세까지 짜주고 나서 덧붙였다.

《모든 사물현상은 치열한 경쟁속에서만 그 발전이 가속화되는거요. 조합의 모든 일을 개인경쟁으로 일관시키시오. 치열하게!》

그는 조합을 떠나면서 확인했다.

《두고 보오, 이제 큰 변화가 일어 날거요!》

6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뒤짐을 지고 대추나무아래를 거니시었다. 분격을 금할수가 없으셨다. 적들의 반사회주의적공세는 더욱 악랄해 질것이다. 이제 사회주의제도를 완전히 수립한 이후에도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나가지 않는다면 일쫓 쌓아올리었던 사회주의의 탑이 일조일석에 무너질수도 있다. 그 위험을 예고하는 경종이 바로 여기 자그마한 협동조합에서 울려 퍼진것이였다!...

수령님께서서는 걸음을 멈추시었다. 관리위원장 김성국이 주저주저하며 다가왔기때문이었다.

《수상님, 죄송합니다. 제가 당정책을 잘 모르다나니 그만...》

그가 말끝을 맺기 힘 들어 하자 박령감이 삼가한걸음 나섰다.

《수상님, 모처럼 저희들을 찾아 오셨는데 근심만 끼쳐 드려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는 깊숙이 허리를 굽힌채 퍼지 못하였다.

수령님께서서는 가슴이 뜨거워 지시었다. 자신의 어두워 진 안색에서 이들은 벌써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은것이였다. 그이께서는 박령감의 두손을 잡아 굽힌 허리를 일으켜 주시었다.

《로인님, 우리는 산천구경이나 하고 혼시를 하자고 다니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걸 배웠습니다.》

그이께서는 박령감의 손을 놓고 조합원들에게로 말씀을 돌리시었다.

《우리는 모두가 평등하고 골고루 잘 살기 위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저만 잘 살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시오. 벌써 저 목화창고가 불 탔습니다. 래일은 낱알창고가 불 탈것이며 다음에는 조합이 불 탈것입니다. 종당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줄기의 차거운 바람이 지나갔다. 험벗은 대추나무가 우수수 떨어 뜨리고 꼭대기에서는 연꼬리들이

신음소리를 내었다.

《결국 무슨 결론이 나오니까? 사회주의사회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빈부의 차이를 절대로 용납할수 없으며 따라서 저만 잘 살겠다고 하는것은 사실상 제 무덤을 파는것이나 다름이 없다는것입니다.》

그이께서는 조합원들의 뒤전에서 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씻고 있는 조천복의 안해에게로 다가가시었다. 그러시고는 남편의 일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따듯이 위로해 주시었다.

《여러분, 물론 조천복동무는 조합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법적처벌을 각오하고 자수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과연 용서해 주지 말아야 옳겠습니까?》

성국은 고개를 들수가 없었다. 누구보다도 조천복의 사람됨을 잘 알고 있으며 더우기 그와는 친구지간이였던 자기였다. 그런데 이번 일로 하여 쓴외보듯 한 자기야말로 얼마나 용렬한 인간이였던가. 한편 따져 보면 자기 역시 오부위원장과 같은 사람의 지시에 맹종맹동하면서 조합을 위험한 길에 떨어 지게 할번 하지 않았는가.

《이번 사건때문에 온 조합이 풀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하고 그이께서는 조합원들과 다시 말씀을 계속하시었다.

이 방화사건의 주모자는 간첩놈이며 그놈을 파견한것은 미국놈들이다, 결국 이 사건의 진범인은 미국놈들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럼 미국놈들은 왜 그렇게도 이 조합을 미워 하는가?

《만약 여러분들이 협동조합을 못지 않았다면 과연 이 많은 일을 해놓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협동화의 힘이고 사회주의의 위력입니다. 미국놈들은 이것을 무서워 합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사회주의의 길로 앞장서 나가는 이 조합의 기를 꺾어 보려고 불을 지른것입니다.》

얼마나 명백히 리치인가?

조합원들속에서 환희의 파도가 일어 났다. 그의 말씀을 더 잘 들으려고 저마다 키를 솟구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아까운 목화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대신 그 목화보다 몇배나 더 귀중한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여, 황금은 귀하다, 허나 그속에는 위험한것이 있다, 그 위험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길로 가기 힘들다는것을 명심하라!...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면서 명심해야 할 귀중한 교훈을 남편저 얻었던 말입니다. 역시 이 조합은 선구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선구자의 자격이!》

그이께서는 환히 웃으시면서 엄지손가락을 높이 쳐들어 보이시었다.

《성국동무! 물질적자극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조합원들의 가슴속에 조국애, 집단주의

의식을 심어 주는것이요.

나라가 강해지고 조합이 부유해 질 때 조합원 개개인의 몫도 많아 저 모두의 생활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겠소.》

조합원들은 감격의 선풍에 휩싸였다. 그이의 환하신 존안을 우러르는 얼굴마다에서는 감격이 눈물, 환희의 눈물이 흘러 내렸다. 녀자들도 울고 남정들도 울었다.

성국은 누구보다도 큰 걱정속에 울었다.

내려 오는 사람마다 눈을 흘기고 머리를 흔들고 가슴 아픈 말만 했었다. 그때마다 고개를 들 수 없고 가슴에 먹장구름이 끼였으며 눈앞이 캄캄해 지면서 맥이 풀렸었다. 허나 그 모든 수모를 달게 삼켰었다. 역적이 나온 집안을 누가 끊다고 하랴...

승용차들이 조용히 미끄러 저 왔다. 수령님께서 떠나실 시간이 된것이다. 그이께서는 못내 떨어지기 아쉬워 하는 조합원들에게 후에 또 찾아 오겠다고 하시면서 일일이 인사를 나누시였다.

그때였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 왔다. 이웃조합에서 오후작업으로 부르는 종소리였다. 그러자 화답이라도 하는듯 밀고 가까운 곳에서 종소리들이 울리기 시작하였다.

한개 리에도 서너개의 협동조합이 있던 시기와 종소리들도 그만큼 많았다.

수령님께서 그 종소리들이 정다운듯 마지막 종소리까지 듣고 나서 성국에게 물으셨다.

《관리위원장동무, 여기서고 종을 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 그런데...》

《왜 그러니까?》

《가까이에선 종소리가 너무 요란해서... 저, 이번만은...》

《아니요. 나때문에 제정된 질서를 어겨서야 되겠소. 어서 종을 치시오.》

성국은 뜨거운것을 삼키면서 종앞에 다가섰다.

드디어 웅근 종소리가 산촌의 맑은 대기속으로 울리어 갔다.

조합원들은 승엄한 표정으로 종소리를 듣고 있었다. 마치도 종소리를 새로 듣는것처럼.

그렇다. 그것은 그전날의 종소리가 아니었다. 비로소 진정한 집단주의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부르는 종소리였다.

떼-엥, 떼-엥, 떼-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도 그 종소리를 의미심장하게 듣고 계시였다.

아름다워라 추억의 밤이여

오필천

감격은 끓으며 파도되어 굽이치고
박수소리는 이어 저 밤 가는줄 몰라라
수령님을 그리는 추억의 밤

돌우에 바위 솟고 바위우에 달이 솟는
철산봉마루에 오르시여
10년만 났었다면 쇠돌을 깨고 싶으시다고
착암공의 가슴에 금별을 달아 주셨다는
팡부의 이야기에 장내는 박수를 보내고

파도우에 격랑 솟고 격랑우에 해가 뜨는
조국의 수만리 먼 바다에서
큰 배로 잡고 작은 배로도 잡아
만선의 보고 올리니 기쁘시여
수령님 전화기에 대고 부르셨다는
그 바다의 노래를 부르는
동해선장의 선창에 모두가 따라 부르고

생애의 마지막해 연백별을 찾으시여
정보당 열툰은 나의 희망이라고
장군님 받들어 풍년농사 지으라 하신
수령님유혼 생명처럼 안고 산다는
녀성관리위원장의 이야기는

만사람의 가슴을 흔들어 놓누나

밤이 깊으면 끝이 있고
시간이 흐르면 끝이 있으면만
끝도 없는 밤 끝날줄도 모르는 무대

아, 수령님 한평생 인민들을 안으시여
한생을 사랑만을 베푸신
그 덕망우에 꽃 핀 언덕이
감격의 바다로 펼쳐 졌으니
7월의 이 밤이
백밤 가고 천밤 간들 끝이 있으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이 추억의 밤에 부르는 노래
세상에 가장 뜨거운 이야기는
이 력사의 밤에 흐르는 이야기

아, 아름다워라 추억의 밤이여
못 잊을 추억과 추억으로 이어 저
위대한 수령님 세월은
백년 또 천년
가장 빛나는 영생의 력사로 영원하여라

울음흘

송명근

1

감히 딛고 선
대리석바닥이 뜨겁구나
방울방울 뿌려 진 눈물이
민족의 슬픔이
눈물로 즐벼한
오늘도 식지 않은 울음흘

비통한 7월이
여기 대리석바닥에 박혔다
너무도 너무도 절통해
내려 친 주먹과 주먹들이
폭폭 박혔던 자리에 고인듯
고여서 끓는 피눈물...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수령님 우리려
끝없이 이어 진 흐름
온 조선이 오고
세계가 온다
80성상의 피로를 푸시려
우리 수령님 잠시 쉬시는데
눈굽은 또 왜 저러 오는가

입술을 깨물고
가슴을 부들켜 안아도
가누기 어려운 이 몸, 이 마음
후더운 바닥을 쓰다듬는다 쓰다듬는다

아 우리 민족이
왜 그러도 많은 눈물을 쏟았던가

2

상실의 아픔속에 깨달은것
얼마나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우리 살아 왔던가
깨달음 깊을수록
그 품에서

누려 온 복도 눈물이 되더라
받아 온 사랑도 눈물이 되더라

우리 수령님
피바다에서 건져 주신 조국
불바다에서 지켜 주신 조국
폐허의 바다에서 가꿔 주신 조국이
나의 운명이였고
민족의 력사였거니

지난 날 대대로
너무도 가난하고
너무도 수난 많아
그리도 많이 흘려 온 눈물을
누구도 멈출길 없던 눈물을
민족의 가슴에서 깨끗이 씻어 주신
아버이수령님!

그이의 한평생은
민족수난의 나락에서
행복의 상상봉으로
자주의 존엄 높은 조국은 떠올리신 한평생
수령님 안겨 주신 만복속에
눈물을 잊었던 인민이 있기에
아버이를 잃은 눈물은 바다를 이루었도다

하어 **김일성** 민족의 력사에
울음흘도 생기지 않았느냐

3

수령님 말기고 가신 이 조국
이 인민, 이 사회주의를
한 어깨우에 떠메신 우리 장군님
무거운 손수건을 움켜 쥐시고
금수산기념궁전층계를 내리실 때
력사에 남기신
선군혁명의 첫 자욱 따라

우리도 붉은 눈을 주먹으로 닦았다

오 울음흘!

너는-

더하지 못한

더하고 싶은

수령계의 충정을

불덩이 같은 눈물로

대리석에 쪼아 박은

맹세의 글이며

심장의 노래!

웨치라!

흐느낌의 홀이여

우리의 맹세를 담아

저 먼 하늘가

지심 끝이라도

무한대의 깊이와 폭의 울림으로

7월의 피눈물에 씻겨

그토록 순결해 진 인민의 맹세우엔

세월도

한점 티를 없지 못하리라

오, 인민이여

이 맹세의 집에서

불처럼 추켜 든 심장들을 앞세워

내 조국의 만대번영을 펼치고 빛내자!

금수산기념궁전방문록을 펼치고(2)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해주시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여 주신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위대한 인민의 수령이십니다.

김일성 주석님은 비록 서거하셨지만 우리 민족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계실것입니다.

김일성 주석님은 오늘 **김정일** 장군님께 의하여 영생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김일성 주석님을 잊지 못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금수산기념궁전에 그이를 잘 모신 **김정일** 장군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우제 손원래는 주석님생각이 날 때마다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석님께로 오겠습니다.

김일성 주석님! 장군님께서 계시니 마음 놓으시고 고이 잠드십시오.》

손원래, 리유신

《인류의 위대한 대선배앞에서 사람으로서 살아나가는 의의를 다시한번 생각할수 있게 하는 중

은 기회를 마련해 준데 대하여 감사, 감사합니다.》

총련 박재복일행

《영원히 우리 민족의 뱃속에 살아 계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의 조국수호혁명정신을 우리 해외동포 오세안주모두는 잊지 못할것입니다.》

재오스트랄리아경제인연합회 회장 김용만

《수령님, 우리 수령님,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님, 그 장구한 세월 우리 조선인민의 독립과 자유를 이룩해 주신 너무나 위대하신 수령님,

우리는 수령님께서 교시하신 그 성스러운 가르침을 단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실천할것입니다.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수령님의 영생을 빌고 바랍니다.

은 인류의 스승이시여!》

아메리카주자주련합대표단

정일봉의 해맞이 가자

김진성

1

지구가 또 한번 크게 굴러
한세기가 지나갔다
인류가 얻은것도 많았고
잃은것도 많았던 20세기...

오늘도 여전히 새 세기의 시간들을 감으며
돌고 있는 지구의 축인양
대동강반에 우뚝 솟은 주체사상탑
그앞에 지금 한사람이 서 있다
인디아의 유명기자 수르지트

그는 어릴적부터
세계의 지붕이라 일컫는
히말라야 대산줄기를 탐승하는
길손들의 길안내를 하며
그 삶전으로 대대로 살아 온
한 유목민가정의 자손
태를 묻은 고향이
태양에서 제일 가깝다는 그 자랑으로 살아
와서인지
후일 뉴델리의 주체사상연구소조원으로
기자생활을 하는 나날에도
그가 집념해 온 문제는
《태양과 인간》 문제였다
그는 동료들에게 종종 말하곤 했었다
...사람은 자기에게 생명을 준
태양을 받들기 위해
짐승과 달리 두손을 가진것이다
아플론산전 기둥에는 새겨져 있다
《인간이여 너 자신을 알라》고
나는 그것을 너를 낳은 태양을 알라는
말로 생각한다, 태양의 빛발속에 살라!
하기에 예로부터 새 세기의 첫 아침에
명산 명지에서 뜨는 해를 제일 먼저 보면
100년 행운을 얻는다고 했거니
하여 21세기 첫 해돋이를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 천금을 뿌리며
태양이 제일 가깝다는
태평양의 섬들로 혹은 적도상의 프린시페섬으로
배를 달리고 비행기를 날렸지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보고 얻는것은

오대체 무엇이었던가
그날의 해가 지니 남은것은
어둠과 공허뿐
사람들의 생활에서 달라진것은
아무것도 없었거니 나의 실망은 컸었다
고대에 지구상에는
태양 가까이에서 살려고
안데스산정을 뚫아 오르며 산 그런 종족들도
있었던만
그모두의 운명이 어찌되었던가
결코 저 하늘의 해 가까이에 산다고 하여
사람들 복을 누리는것 아니였거니
오, 태양, 태양이여
과연 인류 만민을 다 안아 행복을 주는
그런 생의 태양은 정녕 어디에 있는가?...
이러구러 2001년
21세기 첫 해돋이도 지나갔는데
2002년 2월에 정일봉에서
세상이 모여
21세기 태양맞이모임을 한다니
아 그 경이적인 소식에
제일 반가웠던 인디아의 첫 사람도
수르지트였거니
그 경축준비위원회 성원으로
서둘러 조선으로 평양으로 달려 온 그는
지금 여기 주체사상탑전망대에 감회깊이 서 있다

지금
수로지트의 눈앞엔 백두장군이 계시는
평양의 거리거리가 장쾌하게 펼쳐 졌다
오, 불굴의 도시 평양
엄숙하면서도 평온하고
긴장하면서 태연하며
《거만》하면서도 따뜻한
조선의 수도 세계의 심장이여!

수르지트 깊은 생각속에 잠겨 있는데
누군가 등뒤에서 반갑게 부르는 귀 익은 소리
《아, 수르지트, 인디아의 벗-》
《아니 이제 누구요. 야스끼 사부로!
여기서 다시 만나다니-》
《정말 반갑구려. 그런데 어떻게
태양을 숭상하는 사나이가 하필 조선으로?!...》

《바로 태양을 숭상하기때문에
조선으로 찾아 온걸세》
《오호- 그렇다면 수르지트도
이 나라 정일봉고향집에서 가진다는
21세기 태양맞이모임에 온게 아니요?!》
《야스끼, 잘 맞췄소!
한데 일본보도계의 <촉수>이고
위인을 찾아 머리가 희여 졌다는 당신은
어떻게 되어 평양엘 이렇게...》
《수르지트, 당신도 알다싶이
얼마전까지도 서방세계는
조선을 고장나서 기수를 낮춘
그런 비행기와 같은 나라로 보았었지
그래서 그 <하강>흔적도 찍어 오는걸
이번에 **김정일**장군님의 고향산천에서 가지는
21세기 태양맞이모임장에도 촬영기를 세우라는
우리 텔레비존방송국의 위탁을 받았지.》
《으음, 거 용건이 간단치 않구만.
한데 그 <하강>흔적이 눈에 담길까?!
좌우간 우리들의 이 상봉은 아주 극적이로구만.》
《하긴 그래!...
론객이 없어서 그랬는데 아주 잘 만났군.》
두사람은 허허 웃어도
서로의 마음속을 들여다 보는
그들의 속심은 같지 않았거니
일본 텔레비존방송국 기자 야스끼 사부로,
수르지트가 그를 처음 알게 된것은 언제였던가
세계를 차갑게 보는데 습관되었고
랭담한 객관성을
탐방기자의 철칙으로 삼는
좀 까다롭고 도고한데가 있는 야스끼,
그는 세상의 수많은 국경을 넘나들며
한다하는 국가수반들을 만나보고 나서
이 지구의 현대 비극은
탁월한 위인이 결핍에 있다고
감히 말한 도도한 자본주의나라 기자,
모두가 이것이 남으면 저것이 모자란다는 식으로
두뇌는 있으나 실천적의지는 박약하고
백성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인덕은 없으며
세계를 《걱정》하나 제 나라는 모르매
모두가 순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작은 별들
자기가 찾는 력사의 위인은 못 만났다나
그러던 그가 미국의 전대통령 지미 카터가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고 돌아 가서 한 말
-**김일성**주석은 미국의 건국과 번영을 이룩한
조지 워싱턴과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을
합친것보니 더 위대한분이시다!-
그 심장의 고백을 듣고

평양을 향해 마음의 등불이 켜졌던 야스끼,
(가자, 평양으로 가보자!)

그무렵 수르지트도
주체사상연구소조 일원으로
평양에 왔거니
두 유명기자 처음 만난것은
너무나도 뜻밖인

김일성주석님 서거로

인류 만민이 비애에 잠겨 있던
아픔의 7월 피눈물의 조의식장이었으니
수령님 접견을 며칠 앞두고
뜻밖의 국상앞에 서게 된 그들의 심정
애석도 해라 원통도 해라

정녕 그것은 갑자기 하늘의 해를 가리운
때 아닌 력사의 일식이었던가
세계가 캄캄한 어둠에 잠기는듯 싶은데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는
한쪽의 붉은기를 가슴에 안으신채
지구가 멈춰 선줄도 모르시고 조용히 누워
계시였다

바로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마침내 투구를 벗고 찾아 오는
어제날 적장까지도 웃음으로 만나주시고
미국의 전대통령 지미 카터와도
80고령의 희끗한 은발 날리시며
대동강의 쾌속정 타시고
친절히 담화를 나누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그 모습
이제 50년 분별의 림진강철교를 넘어
서울로 나가시기만 하시면
그때는 통일이라고 말씀하셨다는분
그리고 모든 일 잘되어 가는 이 나라에
이 무슨 번고입니까
주석님, **김일성**주석님!-
지 하늘이 낸분이시여서
이젠 그 하늘로 가시려는가
이, 이 행성에 넓은 공허 큰 공백 생겼으니
지구에 금이 가고 균열이 간다 해도
인류가 모다들어 그 균열을 메울수도 있으리
허나 이 공백을 그 무엇으로 메우랴
오 력사여 대답해 다오, 말해 다오!
태양이 떨어 저 생긴 공간은
오로지 그런 태양만이 메울수 있는것이니
그 태양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어디에...

피 라는 갈망이 심장을 뚫이는 그 순간
수르지트는 그 희망의 태양을 보았거니
아, 수령님 령구앞에 상복을 입으시고
강건하신 의지로 비애의 눈물 씹으시는
김정일장군!

혼절해 쓰러진 이 나라 인민을
다시 안아 일떠세워야 하시기에
마음 놓고 울지도 못하시는분

삼키시는 그 눈물 다 모은다면
대하가 되리 바다가 되리
저분은 이제
조선을 이끌고 조선을 지켜 가실분
저분이 이제
조신의 새 령수로 추대되는 사변만이
우주에 생긴 이 공백을 메우고
멈춰 선 지구도 다시 돌게 하리라 생각하며
수르지트도 야스끼도
눈물에 젖어 조의식장을 나섰더라

그 이튿날 야스끼는
조신의 정국에 대한
하많은 생각을 안은채
본국으로 돌아 갔고
인류의 대성인이신
김일성주석을 바래우는 영결식이 끝난 뒤에
수르지트도 본국으로 떠나며
이 땅에 두고 가는 마음 그지없이 뜨거웠더라
잘 있으라
아버이를 잃고 눈물도 많이 흘린 인민이여
부디 평온과 행복이 있기를 축복하노라
오늘은 아프고 피로워도
이 나라 앞날을 두고 서방세계가 우려하여도
나는 믿노라 백두산장군을 모신 장래를!...

2

여덟해만에 조선에 다시 와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 동상에
심장의 인사를 담아 꽃다발도 정히 드린
수르지트와 야스끼 사부로

이 땅의 방방곡곡
찾아 보고 들리고 싶은 하많은 고장중에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슭 태양의 집은
그네들 발걸음 먼저 닿은 곳이였거니

아 **김정일**장군님의 도덕의리의 상징인양
그 자태 장엄하고 숭엄한
이 행성에 하나인 태양의 궁전이여
장군님은 한해 세월 소문도 없이
군대를 이끄시여 이 훌륭한 궁전을 세우셨다니
전설 같은 그 사연 새길수록 놀라워라

천지조화라면 믿을가
주석님 쓰고 사시던 옛집을,
지붕도 그 지붕, 벽도 그 벽
신선이 아니고서야 어찌
천년 돌기둥을 순식간에 다듬어 옮기고
그우에 만년대들보 없어
억년 빛을 뿌릴 새 궁전 세웠으랴
어디 보자 정말로
사람의 손자리나 나 있는지
기념궁전어구에 들어 서면
아침노을속의 해님 같으신 주석님
그이의 립상은 준수하기 그지없어라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는
장군님 마음 충충 대리석으로 깔렸는가
수만계단되어 하늘로 아득한데
주석님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아 그 방은 그 방은
흰 구름속에 잠겨 있는듯
은하수 흐르는 그 소리도 들리어 오고
달나라의 계수나무 꽃향기도 풍겨 들듯 신선해
정말로 하늘신선 사는 집 같아라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영원한 국가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흘러 간 세월 흘러 오는 세월도 주체의 년호로
재계 하시며
태양절의 봄빛속에
만민의 삶이 꽃 피게 하신
김정일장군님의 그 충의 그 지성이여
여기서 **김일성**주석님
매일 주무시고 깨여 나시여
새 저서를 집필하시기도 하시고
군대의 장령들도 만나보시며
저 연백벌의 농사작황도 알아 보신다
바로 여기서 그이께서
이 세상 모든 정사를 다 돌보신다
바로 여기서 **김정일**장군님
때없이 주석님을 찾으시여
나라의 대소사를 친근히 의논도 하시며
주석님과 함께

조선의 7천만 겨레를 안고 사신다

아, **김정일** 장군님은 정말로 특수한분
수령님 서계시던 신성한 자리만은
영원히 비워 두시고 비워 두시고
태양이 하시던 일을
태양이 되시여 도맡아 하시니
조선을 번영의 오늘에로 이끌어 오신
장군님의 그 위대한 정치의 비결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여러 곳을 참관한 수르지트와 야스끼
대동강변을 거닐며 생각도 많았어라
《수르지트,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오?》
《아니 그제... 한데 야스끼선생,
그래<하강>장면을 좀 얻었소?》
《...》
수르지트의 그 물음에 묵묵부답인 야스끼
《어찌된 일이요?! 그러도 기세롭던
탐방기자가...》
《수르지트, 정말로 이상한 일로구만
어디 가나 눈에 띄우는건 <하강>은커녕
<상승>장면뿐이니...》
혼자말처럼 중얼 거리는 야스끼의 고백
8년전 조선을 떠나갈적에
그래도 선량한 인류광심의 편에 서서
아버이를 잃고 슬픔도 컸던
이 나라 인민에게 평온과 안정이 있기를
맘속으로 바랐던 야스끼 사부로였다
그런데 그때의 피눈물이
아직도 짜거운 그 땅에 대고
감히 투기하는 자들이 있었던 말인가
들려 오느니 흥흥한 소식들뿐
봉쇄와 《압살》의 그물이
질식의 마지막밤을 껴하고
하늘의 번덕이 또한
물과 불로 모든것을 휩쓸었다는 소식
그것이 참말이란 말인가
굶주린 사람들 생의 막바지로 기여 간다는
가슴 아픈 소리도
전혀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었을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조선에 와 보고
내 기이스럽게 여기는건
제국주의의 다국적포진들이
조선에서 세가지 소리-
기적소리 웃음소리 글소리를 없애려고
이 땅에 무시무시한 포문을 돌리고
게다가 전대미문의 대자연광란이 휩쓸어도
파괴된 그 흔적을 통 볼수 없고

그대신에 야스끼는 보지 않았던가
마냥 백두산거인이 걸어 간 자취마냥
큼직큼직한 력사의 자욱들이
이 땅 그 어디에나 무수히 새겨 저 있는것을
대자연개조가 일어 난
황해남도과 평북도, 강원땅의 넓어 진
대지로부터
락원의 행군을 하고 있는
자강땅의 변화찬란한 모습도
그 자욱이고
새로 솟은 거창한 발전소 언제들과
동해가에 높이 솟은 흰 소금산
조선사람들 《강성대국에로 가는 대통령》 라고
일컫는
평양-남포간 청년영웅도로도
바로 그 자욱이며
관리공 한 처녀가 1만마리 닭을 치는
컴퓨터로 현대화된 닭공장으로부터
열대의 날짐승 타조목장과 메기공장
공도 함흥의 산기슭에 펼쳐 진
세계적인 염소목장도
그 자욱이 아니었던가!

《야스끼,
오늘 이 나라는 <고난의 행군>으로부터
락원의 행군을 하며
강성대국건설의 발걸음을 높이고 있소!》

그의 말에 경탄을 금치 못해 하며
자격지심에 머리를 수그렸던 야스끼
《수르지트, 나는 지금
이 땅에 <전화위복>을 가져다 준 조물주이신
탁월한 령수에 대한 경애심을 금할수 없구려.》
《야스끼, 더 정확히 말하면
장군님의 절대무비의 현명한 정치의 덕분이요
여러 해만에 다시 온 이 땅에서
나에게 제일 뜨겁게 안겨 온 구호가 무언지
아오?
<위대한 선군정치 만세!> 이것이요.》
<우리 자본주의세계에서
제일 두려워 하는 말이지...》
《바로 그 선군정치가
이 나라를 지키고 조선을 살렸소!... 조선을...
김정일 장군님께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오
나는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군사를 중시하고 총대를
강화하였으며
1995년 설날에 다박솔중대를

현지도하는것으로부터
선군정치를 시작하였다고…》

오, 선군정치와 다박솔초소!…
수령님을 잃고 피눈물속에 맞은 첫 설날의 0시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여
위대한 수령님께 영생축원의 경의를 드리신
김정일장군님
이 땅의 천년미래를 내다보시며 찾아 가신
다박솔초소여
거기서 시작된 선군혁명천만리여

5천년 조선력사에서
가장 비통한 설날이었던 그 아침
멀리 만경대고향집과
만경대갈림길을 바라보시며
눈 덮인 다박솔언덕에 서계신
장군님모습을 마음속에 그려 보며
수르지트 감동에 젖어 하는 말
야스끼의 심금을 울려라

《야스끼, 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해 생각할 때
매번 감탄하는것은
인류정치사에서 처음으로 선군정치를 발견하시고
그 실현을 결심하신
그이의 비상한 선택력이요!
개인의 선택은 한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지만
령도자의 선택은 한 민족 한 나라
나아가서 세계의 흥망을 결정한다는 진리를
나는 조선의 현대 정치사에서 찾아 보았소.》

수르지트의 말에 공감하며
야스끼도 입속으로 다시 외워 보는
다박솔초소!…

오늘에 와서 그 이름은
이 나라 아이들도 다 알고 세계가 다 아는 이름
만경대를 떠나 백두에서 시작한 수령님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리라- 그 위대한 심장의
울림으로
한치한치 만민의 마음속에 키를 높인
다박솔언덕…

수령님의 영생을 지켜 드리고
주체위업의 승리를 이룩하는 길도
천층만층 시련의 장막을 거둬 올리고
김일성민족의 운명을 지키는 길도
다박솔언덕을 넘어야 뻗을수 있어
이 나라를 광복하신 수령님

만경대갈림길을 지나 찾으신 곳이 강선이였듯이
95년 설날 자주나 노예나, 총이나 쌀이나 하는
력사의 《갈림길》을 지나
장군님 찾으신 곳이 다박솔초소였거늘
그날부터 장군님 주소는
평양의 당중앙이 아니라 멀고 험한 전선천리였다
그때부터 세계가 접한 백두령장의 모습은
위장망을 친 최전방지휘소와
바람 세찬 고지에 서계시는 전선사령관의
모습이었다
오, 선군혁명!
그것은 오랜 세월 제국주의독점물로 여겼던 힘의
정치를
진리의 편, 정의의 편에 옮겨 놓고
제국주의를 사상과 함께 정치로 제압하며
인류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세계사적대결전…

돌이켜 보면 조선은
수백년간 대국들의 포위속에 있었던 나라
오랜 세월의 수난속에서
《강자는 내려다 보고 약자는 올려다 본다
강자는 짓누르고 약자는 짓밟힌다》는
피의 교훈을 뼈에 새긴 나라
그 나라가 오늘은 백두산형의 장군, 장군형의
수령을 모시여
군대를 가져도 무적장군을 가졌고
인민을 가져도 지구덩이도 주무를
혼연일체의 인민을 가졌으니
오, 이 모든것을
위대한 선군정치가 안아 왔어라!
…대동강엔 어느덧 석양이 비끼는데
이 나라 안내통역원이 들려 주는 몇해전의 사연
수르지트와 야스끼의 가슴을 처라

달리는 야전승용차의 차창에
뜨는 해와 지는 날들 이끝면
이 땅의 흙모래가 다 밝히도록
선군혁명의 길을 이어 가시던 장군님
어느 날 점심때
바람 찬 산굽이를 돌아 서니
송기를 벗긴 산협에
외딴집 한채 기다린듯 마주 왔더란다
바라보시니 작은 아름에 넘치게
삭정가지를 안고 마당에 들어 서는
예닐곱살의 어린 소년
장군님은 문득 길가에 차를 세우셨다
다가오시는 장군님을 뵈옵자
무춤 걸음을 멈춘 소년

(낮 익은 모습이신데?! ... 뒤실가?)
 아이는 방에 뛰어들어 초상화를 보고
 다시 또 다가오시는분을 번갈아 보며
 마침내 장군님이심을 《확인》했던지
 어푸러지며 달려 나와라
 《아버지 장군님!》
 《오냐, 너 참 똑똑하게 생겼구나
 집구경을 좀 하구 가자고 왔다.》
 그러시며 어린 주인을 앞세우고
 부엌에 들어 서신 장군님
 부뚜막의 솔뚜껑을 열어 보시려는 순간
 쪼르르 달려 와 가마뚜껑을 몸으로 덮은 아이
 《장군님, 안됩니다, 열어 보시면...》
 《그러지 말고 어디 보자
 오늘 아침에 뭘 해먹었는지...》
 그러시며 장군님 몸소 뚜껑을 열어 보시니
 아, 가마속엔 아침에 아껴 남긴 시퍼런 풀죽
 숟가락으로 네등분해 놓고 그 한몫은
 점심때를 못 참아 낸 어린것이 벌써 축낸듯
 제대로 먹지 못해 피기 없어도
 부끄러워 두볼 붉히며
 해죽이 웃음 짓는 그 철부지
 《애야, 우리는 너에게 풀죽도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데
 그래도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하는구나...》
 그러시며 그 어린것을 품에 꼭 껴안으시는데
 그 여윈 어깨뼈가 가슴에 박히는듯
 아 장군님 눈가에 어리는 뜨거운 눈물이어

다음 순간 장군님께서는
 그 마음의 아픔을 누르시며
 일군들에게 근엄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여라...
 《그전에 번역극 <크레믈리 종소리>를
 본 동무들이 여기 있소?
 그 연극에
 어두운 밤 공원에서 레닌에게 동냥을 구하던
 한 거지로파의 이런 대사가 있지,
 크레믈리성탑의 시계, 나라의 엄지시계는 멎고
 지금 크레믈리에서는
 레닌자신도 검은 빵을 먹구 산다오...
 그날 밤 레닌은 가슴이 저렸소
 <퓌바코브동무,
 지금 비행선을 타고 우주에 오르면
 이 행성에는 암흑의 땅이 내려다 보일거요
 그 암흑의 땅이 바로 쏘베트 로씨야요
 우리는 그 불 없는 땅에
 불을, 전기를 주어야 하오
 쏘베트 켈류스 전기! 이것이 공산주의요!>

동무들, 레닌이 그때
 로씨야를 암흑의 땅이라고 자인했듯이
 나 역시 오늘의 조선을
 금세기에 최대의 시련을 겪는
 고난의 땅이라고 인정하는것을 서슴지 않소
 그러나 레닌이 그때 전기를 주장했다면
 나는 오늘 《선군》을 주장합니다
 선군에 바로 전기도 있고 쌀도 있고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주의도 있습니다!》
 찬 바람 부는 산협외의 외딴 집에서
 마당가로 나오시는 장군님의 웅심 깊으신 음성
 《애야, 우리 다시 만나자, 다시!》
 그렇게 뜻 깊은 말씀 남기고
 차에 오르신 장군님,
 차창으로 아이에게 손 저어 주시며
 눈물 글썽이는 그이의 모습이여

뒤따르는 일군들에겐 왜서인지 그날 따라
 다시금 생각 났더라
 언제인가 들려 주신 장군님의 《꿈이야기》...
 그렇듯 우리 인민이 고난을 겪고 있던
 어느 날,
 달리는 차중에서 쪽잠 드신 장군님
 참으로 기이한 꿈을 꾸시였어라
 하늘에서 위대한 수령님 내려 오시여
 어려운 나라일에 쓰라고
 글썽 돈을 주시더라는 꿈이야기...
 아 가시였어도 나라일 근심되시여
 두고 가신 인민들 걱정되시여
 돈을 내려 보내신 수령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도 심상치 않은 꿈이여서
 《해몽》을 해보신 장군님
 일군들에게 심중을 터놓으셨어라
 《정말 수령님께서도
 우리들의 고생을 아시는것 같소.
 가시였어도 마음 못 놓으시는
 수령님의 걱정을 무엇으로 풀어 드려야 되겠소
 그건 군대로, 선군혁명으로
 수령님의 제일 가는 유산인
 사회주의조선을 끝까지 지켜 드리는것이요
 우리의 총대우에 당도 있고
 나라도 평화도 통일도 있소!》
 오, 혁명승리의 철학이 담긴 장군님의
 꿈이야기여
 이 땅에 그 이야기 전설처럼 전해 지던
 그후의 어느 날 밤이었다네
 집무탁에는 결론을 기다리는 수많은 문건들
 그것은 경제사정과 인민생활에 대한

제의서들과 반영문건들,
 다른컨엔
 아, 《광명성 1》호 발사와 관련한 문건
 어느쪽을 중시하고
 어느 문건에 먼저 결론을 줄것인가
 생각 깊은 걸음을 창가에 옮기신 장군님
 조용히 창가림을 여시는 그이 눈앞엔
 풀죽가마를 두팔로 덮어 안던
 산골 외딴집 그 아이도 떠오르시는데
 그이께 들려 오는 인민들의 뜨거운 목소리
 -장군님, 장군님 우린 일 없습니다
 혁명의 길에 고생이 없고 희생이 없겠습니까
 조선을 업수이 보는 제국주의원썬들에게
 본때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조선의 본때를-
 장군님 가슴속에도 심장의 말이 울리었다
 -고마워라, 사랑하는 나의 인민이여
 그대들은 이제
 나의 마음을 알아 줄 때가 있으리라-
 하여 장군님 《광명성》발사문건에
 날으는 룡의 기상인 친필을 달려라
《김정일》!

오, 우리의 위성이
 저 우주에도 조선의 세상을 떠올린
 력사의 날이여
 거대한 반충력으로 몸을 떨던 지구는 순시에
 조선을 향한 격찬의 함성으로 가득찼어라
 -잘한다. **김일성** 조선이여, **김정일** 조국이여
 그대는 저 광명성을 타고
 력사의 절정, 세기의 절정에 올라 섰도다
 아, 이 행성의 광명성, 승리의 큰 별이여
 그것은 이 나라를 두고 우려하던 세계앞에
 조선이 어떻게 일어 서고
 조선이 어떻게 솟구치며
 조선이 어떻게 빛나는가를 보여 준
 선군혁명승리의 격동적인 상징!
 그 폭음은 천하를 들깨우며
 강성대국에로의 진군을 선포한
 장엄한 력사의 우뢰소리!
 그날 우주에서 쏟아 저 내리는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 소리를
 집무실에서 들으시며 기쁨에 넘쳐
 금수산태양의 집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여신 장군님
 아, 그날
 수령님과 마음속대화를 나누시며
 눈시울 젖으시는 장군님모습은

20세기 절정, 력사의 절정에
 조선을 안아 올린 태양의 모습이였다!

3

세계의 수많은 위도와 경도를 밝아 본
 수르지트,
 그는 만사람의 목소리를 합쳐
 야스끼에게 이렇게 말했다
 조신은 하나의 대전을 치렀다고
 그렇다
 땅크들의 방수포를 벗긴 일이 없고
 총탄 한알 날린적 없었어도
 그 규모에 있어서나
 그 기간에 있어서나
 그 치렬성에 있어서나
 한 나라로서는 너무도 파중한
 그런 최대의 격전을 벌였고
 인류사가 모르는 최대의 승리를 전취하였다!
 허나 그 승리를 기념하는
 탑 하나도 그 어데 세워 지지 아니했고
김정일 장군님은 너무도 겸손소박하시어
 훈장 하나 더 다신것 없단누나

장군님에 대한 숭배심에 백두산이 더욱 그리워
 저
 야스끼의 심장은 높뛰였다,
《수르지트,
 우리가 백두산으로 떠나려던 날이 언제던가,
 내 마음엔 지금
 백두산을 향해 나래가 돋쳤소!
 그리움의 나래가...》

그로부터 이틀후-
 백두의 품에 몸을 묻힌 이방의 두 유명기자
 그들의 발걸음 먼저 닿은 곳
 어데일가 어데였던가...
 오 신성한 절정에 정일봉을 떠올린
 신비로 가득찬 백두광야의 새벽이여
 창창- 절벽을 뛰어 내리는 폭포수
 세월의 돌확을 파는 소리에
 세상의 온갖 소음 다 달아 나는듯

해 뜰무렵
 바위를 뒤흔으며 굽이치는 소백수는
 그 붉은 노을을 한폭한폭 비껴 안으며
 비단필 너울치듯 아름답게 흐르고
《정일봉》

이 행성의 가장 위대한 성지의 문패인양
 산정에 빛나는 글발은
 하늘이 새겨 준듯 승엄히 부각되는데
 고향집 마당가에 들어 선
 수르지트와 야스끼
 정말로 하늘나라에 온듯이
 황홀함에 경건함에 발걸음 굳어 졌어라

《잘 있었느냐
 봄의 고향, 생의 고향 정일봉고향집이여!》
 수르지트가 이렇게 웨치는데
 야스끼가 두팔 벌리며 걱정을 터쳤다
 《정일봉이여, 고향집이여
 용서하시라
 반백이 되어서야 그대를 찾은
 무례한 이 필객을...》

구면인 수르지트도
 초면인 야스끼도
 마음 하나되어 둘러 보는 정일봉고향산천은
 그대로 시의 나라
 그대로 노래의 왕궁!

이 세상 억조창생은
 태양의 빛과 열로 살아 가건만
 인간세상에는 그 태양도 녹이지 못하는
 천태만상의 《동토대》가 있어
 그런 《동토대》가 없는 첫 나라가 여기 조선이고
 이 행성우에 《동토대》가 없는 세계를 넓혀
 가시며

인간자주의 봄을 꽃 피우시는분이
 인간태양 **김정일**장군님
 허나 그이 탄생하신 집은 저렇게도
 통나무로 엮은 귀틀집이란 말인가, 귀틀집이란
 말인가!

야스끼는
 격렬해 지는 심장의 박동을 억제 못했거니
 그의 심장은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무색해 하라
 력대로 무수한 황제 왕족이 살며
 황태자와 공주들을 낳은 궁성과 고대광실이여
 눈물을 흘리라
 60년전 저런 산중의 통나무집에
 인류의 아들을 안아 올린
 그 성스러운 력사앞에!
 그리고 해마다 년례행사로
 메카와 예루살렘을 찾는

수천수만 순례자들이여
 걸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라
 그대들은 그 길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못 보며 무엇을 잃고
 있는가를...
 듣거라 정일봉고향집에 너무도 인사가 늦은
 인류만민이여
 우리는 무례했던 그 보상을
 무엇으로 한단 말인가

야스끼 사부로
 노을에 젖은 돌 하나 쥐여 들고
 신기한듯 이리저리 굴려 보는데
 수르지트 넌지시 말을 건넸었다
 《그게 무슨 돌인지 아오? 부석이지. 화산부석
 이 행성이 겪은 경난의 흔적이라 할가
 참, 옛날에 공룡시대가
 무슨 변고로 끝장났는지 알고 있겠지?》
 《알다마다. 무서운 일이었지...》
 아, 눈앞엔 금시 무서운 환영이 떠올라라
 아득한 우주공간에서
 지구를 향해 육박해 오는 거대한 운석!
 피할수 없는 충돌과 폭발, 진동과 퇴우,
 파국적인 화재와 해일의 범람
 그 불길속에서 드디어 공룡시대도 끝나는가
 하늘을 덮은 연기구름은 해를 오래 가리워
 지구는 다시 얼음덩어리
 그다음엔 모든것을 휩쓰는 빙하시대...
 이것이 이 행성의 무서운 재난의 력사
 《야스끼 사부로

몇해전까지만 해도 서방은
 조선을 떨어 지는 비행기에 비유했었지
 당신네 자본세계가 떠든대로
 성난 조선이 만약
 그 운석처럼 이 지구와 맞부딪친다면
 세계가 어찌 되었을가를 상상해 봤소?
 아마 이 지구가 통채로 마사 졌을것이요
 백두산이 낳은 **김정일**장군님은
 조선이 없는 지구는 깨버려야 한다고
 정의와 진리가 없는 지구는
 폭파해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소
 그 백두의 의지와 담력
 그 백두의 드팀 없는 배짱과 결단으로
 위대한 최고사령관은
 선군혁명의 기치높이 이 조선을
 강성대국에로의 상승비행으로 돌려 세우셨소
 그런즉 조선만이 살았는가

아니요 아니요
 이 지구가 살고 인류가 구원되었소
 그런즉 공통멸살기와도 같은
 그 무시무시한 재난을 피하게 된 인류는
 그 하나의 리유만으로도 조선에
 아낌 없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오
 인류가 겪을 20세기 고생을 도맡아 하며
 평화를 구원하고 세계를 살린 조선인민에게
 당신이나 내나 이 행성우에 살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절을 드려야 하고
김일성민족을 승리로 이끄신
 인류의 구원자 **김정일**장군님께
 우리는 최대의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할걸세!》

《야스끼, 세인들은 그 력사의 인사를
 다가오는 2월 16일
 장군님 탄생기념일에 하려는게 아니겠소》
 《수르지트
 전적으로 공감일세. 전적으로 동감일세.》

두사람 걱정으로 두손 마주 잡는데
 드디어 태양이 솟는다
 층층절벽들에 서리꽃 핀 밀림의 바다에
 불덩어리들을 팔죽처럼 똑똑 떨어지며
 이글거리는 붉은 태양이
 지구를 차며 불쑥 솟아 올랐다!

순간 수르지트와 야스끼
 약속이나 한듯 손을 쳐들며
 60년전 그 아침
 항일선렬들의 감격의 그 환성을 이은듯
 해님을 향해 환희에 넘쳐 웨쳤다,
 오, 해가 뜬다
 보아라 세계여
 인류의 태양이 어디서 솟아 오르는가를
 아아, 해가 솟는다 백두산 정일봉에 해가 솟는다!

오 우아찬란코도 숭엄한 백두의 해돋이는
 두 기자의 온 넋을 빼앗는가
 그네들은 부사산과 에베레스트산에 솟는 해와
 알프스의 얼음산을 비쳐 주는 해도
 황홀한 마음으로 다 보았어라
 허나 이때까지 보았던 그 해들은
 확실히 저 해가 아니었다, 저 해가...

그러하다, 바로 그러하다

백두에서 솟아 오른 조선의 저 해에는
 하늘이 낸 만고의 위인
김일성주석님의 신령하신 모습 함께 어려 있거니
 저 하늘의 해에 앞면과 뒤면이 따로 없듯이
김일성, 김정일 두 수령은
 둘일수 없는 하나의 광원, 하나의 태양
 8년전 주석님은 애석히 서거하시였어도
김정일장군님 그 위대한 광원의 세기로
 그 뜨거운 심장의 열도로
 자신의 한몸 불 태워 불 태워
 이 행성에 드리웠던 어둠 가시고
 지구를 다시 돌게 하셨거니

보아라 백두산에 솟구친 태양의 저 모습을,
 너울치는 붉은 노을을 바탕으로
 황금빛 해님 눈 부신 너 백두의 하늘이여
 아, 그것은 통채로
 광막한 우주를 덮으며 휘날리는 기발-
 그대로 세계의 푸른 창공에
 태양과 함께 새겨 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영상을 모신 거대한
 초상기발이런가!

그이는
 우리 동방 우리 태양계에
 공전절후이신 탁월한 명수
 백두산처럼
 가리워 지지 않는 영원한 태양,

야스끼 사부로로는 심장으로 부르짖었다
 -바로 저분이시다
 내가 찾고 찾던 력사의 위인이
 정녕 저분이시다,
 흐르는 세월이 싸안고 간
 이 세상 력대의 성인군자 다 모인대도
 할수 없는 일을 이 행성에 해놓으신
 백두산의 사나이!
 태양을 떠올린 백두산을 굽어 보며
 수르지트도 심장으로 말했다
 -백두산이여
 때없이 터치는 번개와 우뢰
 지심을 뚫는 폭포수와
 때없이 비끼는 현란한 무지개
 하늘을 치받는 거악거봉과
 거인의 입김마냥 쏟아 지는 안개바다...
 아, 우주가 품은 최상의 숭엄함과 장엄함으로
 우주가 품은 최상의 황홀함과 아름다움으로

우주가 뿜는 최상의 색깔과 음향으로
우주의 한복판에 솟은 너를 닮아 너를 닮아
백두산의 아들은
아니될래야 아니될수 없이
지구를 굴리고 역사를 빛는
대장군이 되셨구나!
만민을 품어 안은
태양이 되셨구나!

무한한 걱정엔 휩싸인 수르지트와 야스끼
그들의 심장은
세계를 향해 이렇게 웨치고 있었다
-사람들이여 선량한 인류여 눈을 뜨라
자연의 해만으로는 인간이 살지 못한다
만민에게 큰 덕을 입히는 생의 태양
우리 마음의 하늘에서 지지 않는
은혜로운 인간태양을 안으려거든
여기 조선으로 오라
여기 백두산정 정일봉으로 오라
팔 벌려 가슴 헤쳐

위대한 인간태양 **김정일** 장군을
세기의 하늘에 높이 우러러 보시는
21세기의 태양맞이-
태양환영의 환호를 터치자

아, 이 세상 수만 축포들이여
칠색령롱한 축포탄을 재우라
다가오는 2월 16일
태양의 성지 저 정일봉 상공을 향해
인류의 머리우에 축복의 억만 불꽃을 터치자

오, 의리의 태양
령도의 태양
인간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
그 빛나는 광명속에 인류는
천년을 만년을 살리라
길이길이 복락하리라!

(주체91. 2. 13)

금수산기념궁전방문록을 펼치고 (3)

《친애하는 나의 벗이신 **김일성** 동지!

당신은 너무도 일찌기 인민의 결을 떠나시였습니다.
사회주의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당신의 적극적인 활동과 높은 덕망으로
하여 당신께서는 인민의 열렬한 존경을 받으
시였습니다.

당신은 뛰여 난 국가정치활동가, 군사가로서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 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뜻밖의 서거에 애도의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김일성** 동지! 고이 잠드시라.

당신과 당신의 공적에 대한 추억은 조선인민과
세계 모든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길이 살아있
을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추억은 영원할것입니다.

그 어느 때도 당신을 잊어 본적 없는 쏘련영웅

엔. 라센코》

《**김일성** 주석님께서서는 저를 알지 못하셨어도 주

석님께서서는 저의 아버지이시고 수령이십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혁명가의 고귀한 품성을 가
르쳐 주시였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하여, **김정일**
장군님을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겠습니다. 저는
생의 모든것을 바칠것을 결심합니다.

저는 위대한 아버지를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저의 심장속에 영원히 모실것입니다.》

에스빠냐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

《력사의 위대한 인간들은 후세에도 영원히 추
억됩니다. 위대한 인간이신 **김일성** 각하께서는 제
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모든 인민들의 마음속
에 영생하실것입니다. **김일성** 주석님께서서는 조선
의 역사를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으로서 세계자주
애호인민들의 영원한 수령으로 계실것입니다.》

이란외무성 인사총국장

시대와 함께 걷는 《동지애의 노래》

신경애

시대의 명곡은 흘러 가는 세월속에서도 자기의 가치를 잃지 않는 법이다. 그 울림 역시 영원하다.

이런 의미에서 가요 《동지애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 준 감동의 깊이에서, 철학적 내용의 폭에 있어서 한계를 모르는 가슴 뜨거운 추억을 불러 주는 사색적인 노래이다.

동지에 대한 노래가 많고 많지만 이 가요처럼 수십년세월이 지난 오늘에도 널리 불리워 저 선군시대의 주제가로 울려 퍼지는 노래는 없다.

가요 《동지애의 노래》에 과연 그 무엇이 깃들여있기에 우리 장군님께서 선군의 자욱을 찍으시던 그 나날에도 즐겨 부르시었고 우리 인민이, 아니 온 인류가 심장으로 따라 부르고 있는것인가.

가요 《동지애의 노래》는 조선혁명의 전 력사적과정을 관통하고 있는 동지애에 대한 철학적인 사상을 종자로 찾아 쥐고 그것을 기름진 형상의 토양위에 뜨거운 열정과 정서로 가꾸어 알찬 열매로 무르익혔다. 하여 가요는 위대한 동지애가 낳은 수령송배송가, 신념의 찬가로 오늘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불리워 지고 있는것이다.

숭고한 동지철학의 세계

가요 《동지애의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간고한 우리 조선혁명의 력사, 동지애로 혁명을 시작하고 승리를 이룩해 오신 백두산3대장군의 성스러운 력사가 숭엄한 화폭으로 가슴깊이 새겨진다.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시련의 고비 넘으리
불바람 휘몰아 쳐 와도 생사를 같이 하리라
천금 주고 살수 없는 동지의 한 없는 사랑
다진 맹세 변치말자 한별을 우리러 보네

돌우에 피여 나는 꽃은 그 정성 키운것이고
죽어도 잃지 않는 생은 그 사랑 주신거라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
다진 맹세 변치말자 한별을 우리러 보네

참으로 가요에는 몇백편의 장편서사시에 담아도 다 담지 못할 깊은 뜻이 짧은 시구절속에 력력히 맥박치고 있다.

가요를 다시금 음미해 보느라면 위대한 동지애로 수 놓아 진 아버지수령님의 한생, 동지를 품

에 안으시고 동지의 대오로 백승을 떨치시던 수령님이 수억만리 피어린 자욱자욱이 가슴 뜨겁게 안겨 온다.

김형직선생님의 동지획득사상을 제일유산으로 넘겨 받으시고 압담했던 20세기 초엽 빛을 찾아 곡절 많은 시련의 가시밭을 헤매던 이 나라 청년들을 한품에 안아 동지로 믿어 주고 혁명의 대하에 이끌어 주신 아버지수령님.

한명한명의 동지를 위해 우리 수령님께서 넘고 넘으신 바람 세찬 만주광야의 험한 가시밭, 시련의 고비는 얼마이며 걷고 걸으신 험로, 역경의 길 또한 몇천몇만리인가.

이역만리 오두막에서 《너는 김혁, 나는 성주》라는 숭고한 동지애의 글발을 남기신 아버지수령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수십년전에 떠나간 혁명동지를 한생토록 잊지 못하시여 자신의 금고속에 동지의 사진을 간직하시고 그와 마음속생각을 함께 나누시며 동지애의 전통을 혁명유산으로 물려 주신 아버지수령님.

진실한 동지는 제2의 나라고 하시며 자신의 살붙이와 같은 충실한 동지들이 희생되었을 때에는 쏟아 지는 눈물로 추도문을 쓰시었고 각지에 흩어져 생사여부를 모르는 전우들의 자녀들을 빠짐없이 찾아 자신의 곁에 불러 주시고 혁명의 대를 곳곳이 잇도록 보살펴 주신 자애로운 아버지사랑.

우리 수령님의 가장 친근하고 제일 가는 혁명동지이시였던 백두산녀장군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혁명적동지애를 천품으로 지니고 계시었다.

나는 굶어도 좋고 열어도 좋고 아파도 좋다, 그러나 동지들이 배 고프지 않고 춥지 않고 아프지 않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다, 내가 죽는 대가로 동지들을 살릴수만 있다면 아무런 미련도 없이 웃으면서 죽음의 길을 택할것이다, 이것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남다른 동지관, 인생철학이었다.

하기에 어머님의 마음속에는 자기라는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직 한생각 혁명동지들생각뿐이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엄동설한에 사령관동지의 젖은 옷들을 품속에 넣어 말리시였고 대사하치기 전투때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시여 사령관동지의 안녕과 조선혁명을 보위하시었다. 때로는 총탄알이 비발치는 가렬치절한 전장을 누비며 동지들의 손에 만두도 쥐여 주시고 펄펄 끓는 죽가마를 머리에 이고 고지에 오르기도 하시었다.

정녕 백두산위인들이 지니신 동지애는 노래에

도 있는것처럼 천금 주고도 살수 없는 사랑, 목숨과도 바꿀수 없는 사랑,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위대한 사랑인것이다.

우리는 가요 《동지애의 노래》를 부르면서 동지애로 생을 시작하시고 동지애로 생을 빛내이신 아버지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의 혁명적동지애의 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동지애에 대한 혁명철학, 철의 신념과 의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동지를 가지고 혁명을 시작하시고 동지애로 혁명을 개척하여 오시듯이 위대한 동지애로 백승을 펼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뜻이고 확고부동한 철의 신념과 의지이다.

혁명적동지애의 최고화신이신 아버지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의 가장 숭고한 동지적결합으로 시작된 숭엄하고 아름다운 동지의 세계-백두산에서 탄생하시여 동지애를 피줄처럼 천품으로 물려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 백두산에 뜻을 두시고 동지애의 혁명철학을 남먼저 터득하시였기에 우리 장군님께서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몸은 비록 낱알이여도 신념우에 피는 심장은 하나인 동지의 심원한 철학을 시에 담아 부르시였으리.

그렇듯 특이한 동지애의 소유자이시기에 우리 장군님께서 동지애에 대한 많고 많은 노래중에서도 《동지애의 노래》에 비긴 동지철학세계를 값높이 사시여 이 노래를 선군시대의 주제가로 내세워 주신것이 아닌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영화 <조선의 별>의 주제가 <동지애의 노래>의 가사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 다진 맹세 변치말자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는 혁명의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니라 준엄한 시련의 길이며 그 길은 어떤 난관이 앞을 막아도 반드시 뚫고나가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요에 있는것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다. 이 길에는 어려운 난관도 있고 가슴 아픈 고통도 있으며 때로는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쳐야 할 때도 있다. 이런 혁명의 머나먼 길을 끝까지 가자면 동지가 있어야 한다.

옛날부터 팔백금으로 집을 사고 천금으로 이웃을 산다고 했다. 그러나 천만금을 주고도 못 사는것이 동지이다. 동지를 얻자면 권력이나 재부가 아니라 뜨겁고 진실하며 헌신적인 사랑이 있어야 한다.

동지애의 밑천이 사랑이여서 혁명 그자체가 사랑임을 선포하신 우리 장군님의 혁명철학!

하기에 그이께서는 언제나 동지들속에 계실 때

가 제일 좋다고 하시며 동지를 위해 하루밤에도 천리길을 가시고 동지를 위한 일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시며 가시는 곳마다 위대한 동지애의 역사를 수놓아 가신다.

《너는 허담, 충실한 당의 전사

나는 정일.》이라는 불멸의 글발로 영광의 자리에 내세워 주시고 로투사들은 당과 수령밖에 모르는 진짜배기충신들이라고 그리도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뜻밖에 사랑하는 동지들이 곁을 떠났을 때 예는 사품치는 강물도 헤쳐 넘으셨고 그들의 모습을 돌사진에 새겨 영원히 지워 지지 않는 모습으로 세워주신 아버지장군님!

그이께서 피눈물의 언덕에서 제일 먼저 찾으신것은 총대동지들이였다. 그들을 만나시여 수령님의 존함을 새긴 총대를 안겨 주시며 혁명을 끝까지 같이 해 가자고 마음속언약을 나누기도 하시였고 그들에게 피부보호제도 보내주시고 솜옷의 안설킨까지 만져 보시며 뜨거운 사랑을 부여 주시였다. 북변땅을 가시여서도 강계땅을 찾으시여서도 친아버지심정으로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돌보아주시고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서도 조국땅에 두고오신 수천만 동지들이 그리워 잠 못 이루시고 인민들의 생활을 돌보아 주라고 한 일군을 먼저 보내주신 장군님.

언제나 동지들이 있기에 최고사령관이 있고 천만의 동지들이 있는 한 그 무엇도 두려울것이 없다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신 우리 장군님께 있어서 혁명적동지애는 선군정치의 모든 활동의 출발점이었다.

그래서 우리 장군님께서 자신의 신념과 의지가 깃든 《동지애의 노래》를 제일로 사랑하시며 선군혁명의 머나먼 천리전선길과 북방의 차디찬 현지도 길우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시며 힘과 용기로 얻으시고 수령님의 뜻을 받드시여 《동지행렬차》를 씩없이 끝없이 타고 가신다.

가요는 위대한 동지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적동지애가 장군님의 혁명동지들인 우리들로 하여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가야 할 선군혁명의 길을 변심없이 역세계 걸어 나가게 하는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라는것을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노래한것으로 하여 선군시대의 진군 가로 메아리쳐 울리고 있다.

세기를 넘어 울려 퍼지는 한별의 노래

가요 《동지애의 노래》는 혁명의 길, 투쟁이 길에서 다진 맹세 변치말고 오직 한별동지만을 믿고 충성을 다하려는 열혈투사들의 혁명적신념을 격조높이 노래하고 있다.

가요의 1절에서는 혁명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해도 천금 주고 살수 없는 동지애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생사운명을 같이 해나가려는 열혈투사들의 굳센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그것은 2절에서 죽어도 잃지 않는 생을 주신 한별동지를 우리르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서 다진 맹세 변치 않으려는 그들의 필승의 신념으로, 사상정서적고조를 이루고 있다.

가요의 기본주제를 이루고 있는 1920년대 혁명투사들의 고귀한 한별정신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들어 나가는 오늘의 진군길에서 21세기 위대한 한별동지를 따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생사를 같이 하고 다진 맹세 변치 않으려는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승화되고 있다.

한별정신, 수령결사옹위정신은 20세기 20년대로부터 21세기로 이어 지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의 정수를 이루고 있다.

수령에 대한 절대적순배와 수령결사옹위를 전통으로 하고 있는 조선혁명의 력사가 이 말속에 집약되어 있다.

한별정신,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위대한 혁명동지이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지애에 매혹되어 수령님의 사상과 의지를 받들어 피 끓는 청춘을 서슴없이 바쳐 싸운 1920년대 열혈투사들의 님이다. 그것은 또한 그 님을 이어 장군님과 운명을 함께 하고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앞장 서 결사관철해 나가려는 우리 인민이 사상감정의 최대발현이기도 하다.

수령과 전사, 령도자와 인민의 위대한 혼연일체는 저절로 이루어 지는것이 아니라 수령과 혁명동지사이에 오가는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한것이다.

우리 혁명의 첫 세대들은 혁명이 언제 승리할지도 모르던 엄혹한 시기에 어버이수령님을 민족의 위대한 한별로 받들고 그이의 사상과 의지, 운명을 하나로 해온 한별정신의 불사신들이었다.

위대한 한별동지를 우리러 혁명에 다진 맹세 변치 않으리라는 철의 신념과 의지를 담아 한별의 노래를 지어 부른 김혁! 목숨은 버릴지언정 한별동지의 뜨거운 사랑을 저버릴수 없기에 한별만세를 부르며 웃으며 죽음을 택한 혁명투사들!

장군님의 안녕을 위해서는 자기의 혀도 서슴없이 끊었고 두눈을 잃는 최후의 순간에조차도 위대한 태양의 모습을 그려 보며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친 열혈의 투사들...

20대 젊으신 청년장군과 혁명동지들사이의 사랑과 믿음에 기초한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우리는 강도 일체를 쳐부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였고 그 위력으로 또다시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고 영웅조선의 기상을 떨쳤다.

가사에 관통된 한별정신은 또한 미제국주의자들과의 총포성 없는 치렬한 격전을 벌리고 있는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자폭정신,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만탄창되고 있다.

제국주의의 봉쇄와 압살, 자연재해, 식량난... 값 비싼 희생이 뒤따르는 선군혁명의 길, 그러나 반드시 피로써 가야 할 혁명의 길, 사회주의수호의 길을 혁명적동지애로 앞장에서 헤쳐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그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혁명적동지애의 위력으로 기어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은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모두가 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귀중한 혁명동지들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언제나 장군님과 심장의 박동을 맞추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혁명동지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가는 길 아무리 험난해도 웃으며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나갔다.

위대한 한별정신이 나래치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수령결사옹위투사들이 배출되었던가. 당과 수령을 위해 청춘을 바친 길영조영웅, 불 붙는 나무를 몸으로 감싸 기어이 구호나무를 구원해 낸 영웅-전사들 그리고 청년영웅도로건설자들...

이것은 정녕 《동지애의 노래》로 혁명의 준엄한 천만리길을 헤쳐 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동지애, 동지철학을 자기들의 인생철학으로 따라 세운 혼연일체의 모습이다.

가요 《동지애의 노래》를 심장으로 부를 때마다 우리는 피로써 개척되고 피로써 헤쳐 가야 할 혁명의 천만리길에서 하나의 운명공동체가 되려는 비상한 각오,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동지적의리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겠다는 한별정신의 투철한 립장을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생의 좌우명으로 간직하게 한다.

바로 여기에 천만의 심장을 뚫게 하는 가요 《동지애의 노래》의 위대한 생활력이 있는것이다.

사상의 울림, 서정의 진폭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사에는 독창적으로 찾아 쥔 종자가 있어야 하고 시인이 노리는 뚜렷한 주장과 개성적얼굴이 있어야 하며 발견이 깃든 새롭고 풍부한 서정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은 여운을 안겨 주는 시대의 명곡들이 세월의 추억과 함께 그 울림이 큰 것은 바로 사람들의 생활속에서 터득한 심오한 생활철학이 풍부한 서정의 향기속에 진하게 스며여 있기때문이다. 바로 가요 《동지애의 노래》가 그렇다.

가요 《동지애의 노래》에서 철학적사상의 큰

울림은 풍부한 서정적향기의 진폭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아무리 철학적인 종자를 안고 있는 가사라고 해도 형상적발견이 없고 풍만한 서정이 없다면 개성이 없고 그 울림도 잦아 들고 말것이다.

가요 《동지애의 노래》는 시대력사적환경으로 보나 혁명투쟁의 폭과 깊이에 있어서 방대하고 준엄한 시기를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혁명을 하나로 꿰뚫어 볼수 있는 철학적무게를 안고 있는 사상적알맹이를 특색 있게 찾아 쥐고 그에 맞게 서정을 달수 있고 무게 있게 퍼나감으로써 매우 큰 울림을 자아내고 있다.

가요의 시적형상에서 특징적인것은 종자에 적중한 시적구성을 생활체험에 토대하여 새롭게 탐구하고 시종일관 끌고 나간데 있다.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시련의 고비 넘으리
불바람 휘몰아 쳐 와도 생사를 같이 하리라
...

이것은 그 무엇을 위한 정황제시가 아니다. 가요는 1절 첫 두행에서 그 어떤 긴 설명없이 처음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한 없는 동지애속에 성장한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세계를 통해 축적된 감정을 내뿜고 있다.

지난 시기 가사 창작에서는 기승전결의 법칙이 도입되어 첫 두줄에 정황묘사를 주고 3, 4행에서 기본내용이 서서히 시작되고 2절에서는 그것을 승화시켜 3절에서 해결 주는것과 같은것이 일반적흐름으로 되였었다.

그러나 가요 《동지애의 노래》는 이런 종전의 도식에서 완전히 벗어 나 자유분방하게 사색의 나래를 펼쳐 시적구성을 처음부터 독특하게 짜나갔다.

가요는 1절 첫행에서부터 서정적주인공-열혈투사들의 결의를 보여 주면서 그들의 감정세계에도 육박해 들어 감으로써 영원히 한별동지를 모시고 끝까지 따를 사상감정이 더욱 절절하게 안겨 오게 한다.

가요는 1절 첫 두행에서 끌고 오던 사상감정을 1절 3, 4행에서 고조시켰고 1절 마지막행과 2절 마지막행에서 《다진 맹세 번치말자 한별을 우러러 보네》를 반복하여 강조해 주고 있다.

...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
다진 맹세 번치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위대한 한별동지의 특이한 동지애의 철학에 매혹되고 이끌리어 용암처럼 끓고 있는 주인공의 불타는 심장은 영원히 변심을 모른다. 가요는 그 심장의 토로를 철저히 혁명적수령관의 높이에서 시대의 주도적감정으로 더욱 고조발전시켜 감정의 최절정을 터치였다.

가요에는 동지애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경한 해설이나 수령께 충직한 동지가 되자고 호소하는 표현은 더우기 없다.

그러나 가요는 전체 시형상을 통해 하나의 생동한 예술적화폭을 펼쳐 동지애의 무한한 세계에 빠져들게 하고 주인공의 사상감정에 우리의 심장을 더욱 세차게 끓이게 한다.

최대로 함축된 짧은 시행속에 폭 넓고 웅심 깊게 시대의 주도적립장을 서정적으로 노래한 여기에 세월의 흐름도 무색케 한 시적구성의 참기교가 있고 또 철학적사상을 포근히 감싸 안은 서정의 울림이 있지 않겠는가.

가요 《동지애의 노래》의 철학적사상의 서정적 울림은 시적구성에서만이 아니라 시어와 운률에서 평이하면서도 심원하고 독특하고 기발한것이다.

가요를 다시금 되새겨 보느라하면 그 표현 하나가 다 우리가 생활에서 흔히 써오는 표현들이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뜻 깊은 인간문제, 심오한 철학적문제성을 띠고 있는가.

돌, 꽃, 비, 눈, 가는 길, 불바람 등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시어들만 보아도 작품의 종자해명에 필수적인 사회현상의 의미를 깊이 안고 있다.

그리고 《돌우에 피어 나는 꽃은 그 정성 키운 것이고》라는 시적표현은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는 속담을 립체적맛이 나게 위치를 변형시켜 활용함으로써 그것이 그 뒤행과 맞물리어 사상감정을 대조시켜 부각시키고 있다.

가요는 또한 종전의 가사체에서 흔히 쓰던 7.5조나 4.4조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분방하게 회화어에 가까우면서도 생활속에 묻혀 있는 감칠맛 있고 독특한 시어들로 시줄을 엮어 운률을 조성하고있다.

하여 가요의 선율도 매우 숨엄하고 전진하며 혁명적랑만과 기억이 넘쳐 흐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가요 《동지애의 노래》는 동지애의 철학적세계의 깊이에 특색 있고 풍만한 서정의 울림으로 충실하게 화답한 우리 시대의 명곡이다.

높은 사상과 풍만한 서정이 하나로 융합되어 울림이 큰 가요 《동지애의 노래》는 새 세기 선군혁명의 길에서 영원히 울려 퍼질것이다.

명언해설

《인민대중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섬세하여 힘 있는 말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언어의 명수들이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이 명언에는 훌륭한 말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가장 지혜롭고 재능 있는 존재는 인민대중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로서 자기의 자주적 요구와 창조적 활동으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시켜 나간다. 사람들의 교제의 수단인 언어도 인민대중에 의하여 창조되고 발전한다. 인민대중은 무궁무진한 지혜와 힘과 재능을 가지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해 나가는 과정에 자기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언어를 창조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인민대중이 창조한 언어는 언제나 가장 아름답고 섬세하며 힘이 있다.

좋은 앞날이 마중 오누나 외 1 편

한원희

언제나 그 언제나

우리 장군님 우리를 때면

뜻 깊은 예감으로 가슴 설레여 오네

조국의 앞날이 좋아 지리라

그이 법랑철기공장에 오셨을 때도

이같은 생각이 뜨거이 썬 솟았네

오늘은 아직도 부족한 것 많아도

잘 살 날이 오겠구나

모양도 갖가지 색깔도 갖가지

더 많은 법랑그릇 만들자고

하나하나 따뜻이 일러 주시는

우리 장군님 우리를 때

행복이 능금처럼 주렁진 그날이 보여 왔네

풀죽으로 끼니를 에우던

고난의 그 나날 엄혹한 그 시절엔

그 누구인들 생각이나 했으랴

이리도 곱고 고운 법랑그릇으로

인민의 식탁을 차려 주시려

찬 바람 찬 눈길을 헤쳐 오실 줄

아, 시련을 이겨 낸 우리 생활에

좋은 앞날이 마중 오누나

그래그래 이 아니 흥겨운가

즐거움은 식탁에서 먼저 꽃 피야지

그래서 만년대계 토지정리도 하셨고

그래서 염소목장도 찾으셨고

희한스런 닭공장도 보란듯이 일떠세웠고

가는 곳마다 메기공장도 지어 주셨구나

자, 나의 공장아, 어서 만들어 내자

갖가지 아름다운 그릇이 많아야지

원썬들이 상기도 우리를 해치려는 이때에

대포를 무어 내는 공장도 아닌

머나먼 법랑철기공장을 찾아 주신 장군님

그이는 벌써 이 땅에 안아 오신 것 아닌가

살기도 좋은 내 나라 강성대국을!

불속에 피는 꽃

불속에 피는 꽃이라도

불속에 웃는 꽃이라도

불, 불 전기로의 불속에 타지 않고

법랑그릇마다 떨기지는 꽃이라도

꽃이 핀 그릇앞에 나앉으면

음식도 아름다워 눈맛도 있고

꽃향기도 넘칠 듯 정서도 돋구니

좋소, 좋아

우리 장군님 치하하신 꽃이라도

창밖엔 대한추위 눈보라세차도

창안엔 화창한 봄을 안고 오신 듯

해빛같은 미소를 담으시고

인민이 좋아 하겠소

우리 장군님 기뻐 하신 꽃이라도

불길속에 피어 나는 꽃이라도

사시절 다 가도 지지 않는 꽃이라도

불, 불, 그 꽃을 피워주는 그 불은

우리 장군님의 사랑이라도!

아 남산의 푸른 소나무

한광춘

나의 삶에 푸르름을 주자고
내 가는 앞길에 봄을 안겨 주자고
김형직선생님
력사의 그 새벽길에
안고 떠나시었던가 남산의 푸른 소나무

수난의 어둠을 불 사르며
천신만고의 길 가고 가신 선생님
한몸 던져 압제의 얼음장 부시며
서른두살의 고귀한 생애를
선생님은 사시였다 소나무처럼

눈서리를 맞아 보아야
소나무의 굳은 절개 알수 있듯이
《고난의 행군》길 헤치며 내 알았노라
광복의 봄빛을 불러
선생님 마음속에만
남산의 소나무가 푸른것이 아니었음을

몸이 열고
흐르던 전류도 얼어 붙던 그 나날
굵어도 쓰러져도 굽히지 않았던
나의 신념의 대지엔
남산의 푸른 소나무가
억척스레 뿌리 내려 있었거니

너는 그저 나무가 아니였기에
우리는 가장 준엄한 때에
너를 보며 조국의 장한 모습 생각했더라
《지원》의 뜻이 잎새마다 어렸기에
시련의 찬 서리속에서도
우리의 래일은 봄빛을 잃지 않았더라

강한 사람에게
굴하지 않는 넋이 있다면
그 넋이 너에게 있어
모진 눈보라 휘몰아 쳐도
푸른빛 떨치며 꺾꽂이 머리 쳐드는
생활과 투쟁이 너에게 있어
김형직선생님
더운 숨결을 주시고
원대한 뜻을 엮으시어
조선혁명의 대지에 심고 가꾸신
아 남산의 푸른 소나무여

이 땅에 살아 높뛰는
선생님의 그 념원 길이길이 꽃 피우며
내 삶의 태양 우러러
언제나 너처럼 한빛으로 살리라
그 언제나 너처럼 한모습으로 살리라

상식

21 세기 초에 예견되는 에네르기구조의 변화

원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풍력, 조수력 등 에네르기자원들가운데서 원유와 석탄이 현재 세계에네르기공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원유로 환산하여 약 50억t에 이르는 세계 에네르기수요를 충당하고 있는 원천을 보면 원유 39%, 석탄 30%, 천연가스 22%, 수력 및 기타 재생에네르기 4%, 원자력이 5%이다.

주체 109(2020)년경에 가서 세계에네르기수요는 원유로 환산하여 75억t정도에 이르게 되고 에

네르기구조는 원유를 중심으로 하는것으로부터 석탄 및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하는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초보적인 계산에 의하면 천연가스는 주체 129(2040), 석탄은 주체 139~주체 149(2050~2060)년, 원유는 주체 109~119(2020~2030)년경까지 다 소비될것이라고 한다.

결국 심각해지는 원유자원의 고갈에 의하여 주체 109(2020)년경부터 원유에네르기공업은 쇠퇴기에 들어갈것이며 새로운 에네르기가 개발되지

않는 한 원유이외에 에네르기자원가운데서 가장 공급량이 많고 소비량이 많은 석탄이 세계에네르기공급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게 될것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탄을 비롯한 화석에네르기의 고효률사용기술이나 이산화탄소의 회수 및 고정기술의 개발 등이 연구중에 있다. 또한 환경피해도 적고 사용년한이 비교적 긴 천연가스가 세계에네르기 공급에서 차지하는 몫이 늘어 나 석탄 다음 가는 두번째 자

리를 차지하게 되며 수력 및 기타 재생에네르기의 몫이 늘어 나는 반 면에 원자력에 의한, 에네르기소비는 줄어들게 될것이다.

앞으로 일어 나게 될 이러한 에네르기의 구조 변화에 대처하여 인류는 원유를 대신하게 될 새로운 에네르기개발에 힘을 넣고있으며 수력, 풍력, 조수력, 태양열을 비롯한 자연에네르기개발과 안전한 핵에네르기리용에도 관심을 돌리고 있다.

수령님의 애국은...

리연희

일곱살

너무도 어리신 아드님이시였다
오로지 그 가슴에 사랑을
사랑만을 그윽히
부어 주고 싶으신 어머니이시였다

4월의 봄하늘

칠색무지개를 비껴 안은 가슴에
만경봉의 푸른 숲살
해빛속에 뛰노는 어린 꿈우에
보다 령롱한 따뜻한
래일을 약속하고 싶으신 어머니이시언만

아드님을 앞세우시고

강반석어머님은 들어 서시였다
해빛 한줄기 스미지 않는
우중충 하늘을 가리운 담장
또다시 닫기운 무거운 철문
다시 쇠살창으로 둘러 막힌
감옥으로

무거운 쇠고랑을 끌으며 오는 소리

야수들의 악형으로 피멍든 온몸에
수의를 입은 아버지모습
그것은 조국이였다
빼앗긴 조국의 모습이였다

허나 굴함없이 꾹꾹이
태연하신 미소로

굳세게 아드님의 손을 잡아 쥐신 두주먹
뼈가 부서져 가루가 되여도
열어 죽어도 끓어 죽어도 맞아 죽어도
대를 이어 기어이
기어이 찾아야 할 조국이였기에

사랑이 세상인줄

어머니 그 품이 온 세상인줄
아직은 그밖에 더 모를 일곱살
여린 그 가슴에 증오를
원췌에게 짓밟혀 신음하는 조국
크낙한 조국의 세계를 안겨 주신 어머니

그렇게 바치시였다

바치는 사랑이 그대로 행복인
모성의 그 권리를
그렇게 바치신 사랑이여서
그렇게 바치신 행복이여서
수령님은 한평생
조국을 불러 어머니라고
사무치는 그 이름 어머니라 부르셨던가

그날에 받아 안으신 조국이였다

한평생 가꾸신 수령님의 조국은
그날에 안으신 사랑이였다
오, 한평생
수령님 바치신 애국은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이였다

동지애의 력사는 오늘도 흐른다!

-최근에 발표된 어버이수령님형상에 바쳐진 몇편의 단편소설들을 두고-

리용일

한장두장 펼쳐 가는 수령형상단편소설의 갈피마다에서 울려 나오는 한결 같은 웨침이 있다.

《동지애의 력사는 오늘도 흐른다!》

단편소설들이 생활내용도 시대적배경도 서로 다르며 지난 시기를 형상하고 있지만 작품에 펼쳐진 어버이수령님의 동지애의 세계는 오늘에 이어 지며 우리의 가슴에 뜨겁게 흘러 든다.

그것은 작가들이 시대를 안고 즐기게 흐르는 위대한 동지애의 세계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혁명전사와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한평생을 오로지 믿음과 사랑의 정치를 베푸시는 인민의 수령의 위대한 귀감이다.》

위대한 동지애의 세계에서 의의 있는 종자를 탐구하고 그를 시대정신이 약동하는 생활을 통하여 해명한 작품들에서 우리는 영생하는 태양의 모습을 우러르게 된다.

여러차례 평론에서 이야기되었지만 단편소설 《동지애에 대한 추억》(권정웅작, 《조선문학》주체89년 4호)에 형상된 어버이수령님의 동지애의 세계는 음미할수록 새로운 뜻과 커다란 감동을 불러주며 우리의 가슴을 두드린다.

소설에서 회고록을 집필하시다가 김책동지에 대하여 회상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추억의 세계를 통하여 동지는 곧 귀중한 조국이고 성스러운 혁명이라는 고귀한 사상을 우리는 커다란 감동속에 받아 안게 된다.

혁명이자 동지, 동지이자 혁명, 여기에 수령님께서 발견하신 동지애의 진리, 주체적동지관의 철학적깊이가 있고 작품의 사상적책이 있다.

동지란 의미를 혁명과 결합된 새로운 경지에 올려 세운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소설의 종자는 시대정신이 비껴 간 생활을 통하여 깊이 해명되고 있다.

어째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수십년이 넘도록 김책동지의 사진을 금고에 보관하고 꺼내보시면서 그를 못잊어 하시는것인가? 김책동지를 생각하시면서 한생을 바쳐 오신 혁명에 대하여 돌이켜보시는것인가?

사실 수령님께서 김책동지와 우정을 나누신것은 10여년밖에 안되며 특별한 혈연적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김책동지가 혁명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특히 혁명의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지니고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였기때문이었다.

소설에서 김책동지의 뜻밖의 희생을 두고 비통함을 금치 못해 하시는 수령님의 추억속에 생시처럼 펼쳐 지는 장면들에 대한 형상을 두고도 그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비분에 잠기신 수령님의 눈앞에 떠오른것은 해방후 당창건추진사업과 혁명무력건설을 위하여 뛰여 다니며 단단히 한뼘한 김책동지, 파괴된 산업을 복구하는 어려운 일도 선뜻 맡아서 훌륭히 해제긴 김책동지의 미더운 모습이였다.

정녕 그는 희생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맡겨진 혁명임무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받들어 온 진짜배기 충신이였다.

실력가, 실천가로 혁명에 몸 바친 동지를 그토록 잊지 못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무한한 애정세계에 시대정신이 비껴있다.

선군의 붉은 기치 휘날리는 우리 시대에서 발휘되는 혁명적동지애에는 참으로 숭고한 뜻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이 보다 높은 단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모두가 높은 실력을 가지고 일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선견지명, 특출한 정치실력을 지니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현지시찰의 길에서 말은 사업에서 높은 실력을 가지고 높은 실적을 낸 혁명전사들을 만나시였을 때 제일 기뻐하시면서 그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아낌없이 돌려 주신다. 장군님의 이 동지애의 세계에는 실리전의 요구에 맞게 실력을 키워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바라시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어려 있으며 이 땅, 이 하늘아래 우리 힘으로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은 사회주의강성대국대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려는 철의 신념과 의지가 비껴 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말은 사업에서 높은 실적을 내는것으로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을 발휘하며 장군님과 뜻도 마음도 운명도 하나가 되는 순결의 인간, 순결의 동지가 되기 위한 지향으로 가슴 불 태우고 있다.

시대의 흐름이 비껴 간 작품의 생활은 오늘날 위훈과 기적을 창조해 가는 선군시대 혁명전사들

에게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세계에서 어버이수령님의 동지애의 세계를 뜨겁게 받아 안게 한다.

오늘도 흐르는 어버이수령님의 동지애의 세계는 단편소설 《다래나무지팡이》(신용선작, 《조선문학》 주제90년 4호)에서도 뜨겁게 느낄 수 있다.

소설에는 항일혁명선열들의 넋원을 꽃 피우기 위해 30여년을 묵묵히 방목에 바친 로당원에게 베풀어 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이 사랑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이 감동적인 사랑의 세계를 속새꿀혁명사적지로 가는 길은 번듯하게 꾸려졌지만 인민들이 덕을 볼 수 있도록 방목지로 가는 길을 꾸리는 일에 무관심한 일군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 감정과 결합시켜 형상하고 있다.

이러한 형상으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전사들에 대한 동지애는 인민을 위해 실속 있게 일하는 혁명전사에게 베풀어 지는 사랑이라는 것을 뚜렷이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혁명적 동지애의 세계를 시대적 견지에서 그린 작가의 탐구가 있다.

소설에서는 이로하여 수령님께서 속새꿀밀영에 발자국을 찍으시던 항일혁명투쟁의 그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평생 걸으신 길은 인민들과 혁명전사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진 길이라는 사상을 시대적의의가 있게 해명할 수 있었다.

단편소설 《파란 머리수건》(김영희작, 《조선문학》 주제90년 7호)도 인상적이다.

소설에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본의 아니게 파오를 범하고 산골농장에 내려간 녀성과 과학자 림동휘를 찾으시고 그를 알게 된 것을 기뻐 하시면서 그에게 뜨거운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강냉이종자 연구에 바쳐 가는 그의 성실한 노력과 깨끗한 양심을 귀중히 여기시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각하고 있다. 작품은 수령님께서 림동휘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세계를 과학기술중시, 인재중시의 시대적 요구에 맞게 펼쳐보임으로써 수령님이 시야말로 우리 과학자들을 친어버이사랑으로 뜨겁게 안아 키워 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이시라는 사상을 절절하고 감동 깊게 밝히었다.

이상과 같이 단편소설 《동지에 대한 추억》에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시대의 전형인 김책 동지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세계, 단편소설 《다래나무지팡이》에서는 현실적의의가 있는 문제성이 비껴간 위대한 동지애의 세계, 단편소설 《파란 머리수건》은 과학기술중시사상이 반영된 숭고한 동지애의 세계를 진실하고 감동 깊게 펼쳐보임으로써 제기한 종자와 사상을 의의있게 해명하였다.

하여 소설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의 모습,

오늘도 굽이치는 위대한 동지애의 역사를 뜻 깊게 펼쳐 보일 수 있었다.

소설들의 성과는 혁명사업에서 높은 실적을 내기 위해 투쟁하는 전사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동지애의 세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깊이 있게 형상하려는 소설가들의 탐구가 얼마나 다양하고 깊이 있게 진행되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어버이수령님의 동지애의 세계를 형상하는데서 작가들이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은 믿음에 관한 종자, 위대한 믿음의 철학세계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탐구하는 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동지애의 세계를 취급하는 단편소설에서 동지에 대한 불변의 믿음을 깊이 있게 형상할 때 작품의 사상을 시대적의의가 있게 해명할 수 있으며 오늘도 줄기차게 흐르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지애의 역사를 깊이 있게 형상할 수 있다.

조국해방전쟁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 있는 단편소설 《따뜻한 눈》(최영학작, 《조선문학》 주제89년 7호)에서 일부 사람들이 내각성원인 림병선의 남다른 생활경력과 복잡한 주위환경을 두고 불신할 때 어버이수령님께서 그에게 변함없이 크나큰 믿음을 주신다.

작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준엄한 시기에 보통 사람으로서는 선뜻 내릴 수 없는 용단으로 믿음을 주시는 사건자체에 대한 묘사에만 그치려고 하지 않았다. 작품은 수령님께서 고아를 데려다 돌보아주시는 사실, 포로들에게 대우를 잘해 주도록 하시는 사실들에 대한 묘사, 불신과 증오가 원자탄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지고 사회를 전멸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전쟁의 준엄한 환경에서 사회의 요람인 사랑과 믿음을 지켜 갈 사명감을 간직하시며 인민의 자주적삶을 위한 투쟁위업의 정당성을 확인하시는 수령님의 내면심리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동지에 대한 불변의 믿음이 참다운 인간성, 인민에 대한 사랑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폭 넓게 밝히고 있다.

소설에서는 동지에 대한 절대적이고 변함 없는 믿음에서 무적의 힘과 승리의 길을 찾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체험세계를 그리고 있다.

《믿음시다. 믿고 정을 주면 천만사람이 따를 서서 승리의 길을 열것이고 의심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 걸면 천만이 흩어지고 한두사람이 남을 것입니다.》

어버이수령님의 믿음이 낳는 거대한 힘에 대한 확신이 마디마디에서 울리는 말씀이다.

소설에서 《인간구원의 길》을 어버이수령님의 믿음의 세계에서 찾는 림병선의 형상도 불변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승리의 길을 안아 오는 것인가를 힘 있게 입증하는데 복종되었다.

이처럼 소설에서는 어떤 정황에서도 변함 없는 어버이수령님의 동지에 대한 믿음을 보여 주는

생활을 여러 측면에서 폭 넓고 깊이 있게 파고 들어 형상함으로써 민음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낳고 위대한 승리를 안아 온다는 사상을 시대적 의의가 있게 해명할 수 있었다.

이 작품에서 우리는 아버지수령님의 동지에 대한 불변의 믿음이 원자탄을 이겨 낼 수 있는 통일 단결의 힘도 안아 왔고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했다는 사상을 뜨겁게 받아 안는다.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동지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끄떡없이 선군령도 따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떨쳐 나 세기적위훈과 기적을 창조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전사들에 대한 불변의 믿음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것이다.

정녕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전사들에 대한 위대한 동지애, 절대적이고 변함 없는 믿음으로 하여 우리의 통일단결은 더욱 철석같이 다져 질것이며 강성대국의 새 아침도 밝아 올것이다.

우리는 소설에 형상된 동지에 대한 불변의 믿음, 신심과 락관을 안겨 주는 믿음의 세계를 두고 오늘날도 흐르는 동지애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이 제일이라는 긍지를 가슴가득 간직하게 된다.

단편소설 《생의 메아리》(김명익작, 《조선문학》 주체90년 8호)에서는 이와 다른 각도에서 아버지수령님의 동지에 대한 불변의 믿음을 보여 주는 생활을 펼쳐 보였다.

그것은 이 소설이 《따뜻한 눈》과 달리 해방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긴 나날의 생활을 펼쳐 보이고 있거나 수령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인물이 아니라 평범한 상공인에게 베푸시는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다.

소설에서는 해방직후 개인기업가인 성태관이 가지고 있던 금피보다 그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여 위험에서 구원해 주시고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죄인으로 몰린 그를 보증해 주시며 오늘날에는 나이가 많아도 인민을 위하여 일하도록 이끌어 주시여 한생을 빛내여 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수십년동안 변함 없는 믿음과 사랑의 세계를 형상하였다. 돈밖에 모르던 개인기업가로부터 사후에 애국렬사릉에 안치되는 애국공신으로의 극적인 성장과정은 곧 새 인간의 탄생과정이었다. 소설에는 한평생 수령님의 혁명전사에 대한 변함 없는 믿음은 그 무엇보다 인간을 중시하는 사상이 안반침된 믿음이며 그것은 자주적인간의 탄생, 값 있는 생을 안아 온 믿음의 세계라는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혁명전사에 대한 믿음을 힘과 승리의 철학세계로 형상한 단편소설 《따뜻한 눈》과 달리 자주적인간의 탄생, 참된 삶, 인생관에 대한

문제를 깊이 있는 철학세계로 보여 준 《생의 메아리》의 특징이 있다. 또한 이 작품이 수령님께서 복잡한 생활경력을 가진 상공인을 애국자로 키운 광복의 믿음, 불변의 믿음으로 남 달리 과란곡절이 많은 우리 인민의 참된 삶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시었다는 사상을 시대적높이에서 펼쳐 보일수 있는 비결이 있다.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 수많은 영웅들을 키워 낸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의 세계를 그려 보게 된다.

적들속에서 굴함없이 싸운 나 어린 인민군대전사들, 수십년동안 감옥에서 신념을 지켜 싸운 비전향장기수들,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수많은 영웅적인간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변함 없는 믿음속에서 태어난것이 아닌가!...

《아버지수령님의 동지애의 력사는 오늘도 흐른다!》이 열렬한 주장과 웨침은 소설들의 특색 있는 형상세계를 통하여 더욱 힘차게 울려 나오고 있다.

의의 있는 사상과 종자해명을 위한 생활, 시대정신이 약동하는 생활은 새롭게 탐구된 형상세계를 통하여서만 옹게 펼쳐 보일수 있다.

현실생활을 취급한다고 하여도 형상이 새롭지 못하면 작품의 종자들 시대적의의가 있게 살려낼수 없다.

일부 수령형상단편소설들에서 생활이 시대정신이 느껴 지지 않게 구태의연하게 형상되는 요인의 하나도 형상세계를 새롭게 탐구하지 못하는것과 적지 않게 관련된다.

최근 단편소설들에서 찾아 볼수 있는 새로운 형상세계의 탐구에서 눈길을 돌리게 되는것은 지난시기 작품들에서 볼수 없었던 인간관계를 형상하고 있는것이다.

무엇보다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관계를 의의 있게 형상하고 있다.

단편소설 《동지에 대한 추억》에서 아버지수령님께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동지》라는 호칭으로 부르시며 제기된 일을 토의하시는 사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령님의 동지애의 숭고한 세계를 누구보다 깊이 파악하시며 동지애를 우리 혁명의 고귀한 유산으로 받들어 빛내여 갈 맹세를 다지는 장면 등 두분의 관계에 대한 형상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동지애의 최고화신, 최고귀감으로서의 한없이 위대한 사상정신세계를 가슴 뜨겁게 받아안게 한다.

단편소설 《생의 메아리》에서 아버지수령님과 함께 성태관의 문제를 토의하시며 그의 삶을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형상은 위대한 동지애의 력사를 대를 이어 빛내여 가시는 인상 깊은 형상으로 안겨 오고 있다.

1960년대 말,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창작되기 시작한 지난 시기 대부분의 수령형상단편소

설들에서는 어버이수령님과 현지도의 길에서 새롭게 알게 되신 평범한 인민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로서의 수령님의 고매한 품모를 보여 주었다.

작품들은 수령과 혁명전사, 수령과 인민들의 관계를 자그마한 간격도 없는 친혈육의 관계로, 믿음과 충성, 사랑과 의리의 새로운 관계로 형상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수 없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어버이수령님의 동지애의 세계를 깊이 있게 보여 줄수 있도록 수령님과 혁명전사들의 관계를 폭을 넓혀 보다 새롭고 다양하게 탐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수령님과 평범한 인민들과의 관계에 대한 형상과 함께 수령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오랜 세월 충성 다해 받들어 온 충신들, 수령님과 깊은 연고가 있는 인물들의 관계를 형상하여 위인의 숭고한 동지애의 세계를 보나 더 깊이 펼쳐 보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단편소설 《동지에 대한 추억》에서는 수령님과 백두의 나날부터 수령님을 충직하게 받들어 온 김책동지와와의 관계, 《따뜻한 눈》에서 수령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업한 내각성원 림병선과의 관계, 《생의 메아리》에서는 수령님과 오랜 연고가 있는 상공인과의 관계를 형상함으로써 오늘도 흐르는 동지애의 세계를 깊이 있게 펼쳐 보일수 있었다.

작가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내면심리묘사에도 깊이 관심을 돌리었다.

단편소설 《동지에 대한 추억》에서는 김책동지에 대하여 회상하시는 수령님의 내면심리를 시종 일관하게, 정면에서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 여러가지 형상수단과 수법을 활용하여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 사랑과 증오 등 다양한 정서적 색깔을 띠고 바뀌어 지는 수령님의 동지애의 세계를 폭넓고 굴곡 있게 묘사하였다.

최근 수령형상단편소설에서 쉽게 찾아 볼수 없는 형상적특징이다.

소설의 내면심리묘사에서 단편소설의 형태적특성에 맞게 속도감과 탄력성, 간결성을 보장하지 못한 부족점은 있지만 철학적깊이와 격이 있는 묘사의 긍정적인 성과는 결코 무시할수 없다.

1970년대에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1932년》에서 소사하집의 어머니를 찾으신 젊으신 수령님의 내면심리에 대한 깊이 있고 진실한 묘사로 하여 독자들에게 오늘도 깊은 인상을 남긴 작가는 수십년이 흘러 간 오늘에도 변함없이 높은 묘사력을 가지고 한없이 위대한 수령님의 내면심리를 격이 있게 묘사하였다.

형상세계에 대한 작가의 높은 탐구정신은 단편소설 《따뜻한 눈》을 두고도 말할수 있다.

일부 평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진정한 기교는 기교가 느껴 지지 않는데 있는 것인데 이 소설가는 언어형상이나 세부묘사에서 지내 멋을 피웠다. 문장표현이 미끈한것 같지만 사상적의미가 명백히 안겨 오지 않는것이 있으며 언어구사에서 정확성을 보장하지 못한 결함도 있다. 레하면 《그가 일찌기 손문과 레닌동지를 접견한...》이 아니라 《...의 접견을 받든》이라고 써야 옳지 않은가?...

이는 반드시 고쳐야 할 결함인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결함보다 긍정면에 눈을 돌리고 싶다.

작가는 소설에서 간결하지만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 묘사를 지향하였다. 정서적이고 감각적인 어휘와 문장표현수법들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측근인물의 인생관을 특징적으로 보여 주는 동화적이야기도 인상에 남게 삽입하였다.

소설에는 준엄한 시기의 생활이 흐르지만 수령형상소설의 풍격에 맞게 숭엄하고 밝고 따뜻하며 락관적인 정서가 흐른다.

일정한 낱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가지 형상수단과 수법을 자유분방하게 활용하여 수령님의 동지애의 세계를 특색 있게 형상하려는 작가의 대담한 탐구적지향이 느껴 진다.

중요한것이 이 점이다. 최근 일부 수령형상단편소설들을 보면 새로운 형상세계를 탐구하려는 작가들의 혁신적인 탐구와 사색, 노력이 덜 기울여지고 있다는것을 느낄수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단편소설 《따뜻한 눈》은 매우 시사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형상세계를 보다 더 특색 있게 탐구하여 위대한 동지애의 세계를 진실하고 생동하게 펼쳐 보이지 못한 결함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된 단편소설들에서도 찾아 볼수 있다.

단편소설 《파란 머리수건》, 《바다의 노래》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내면세계를 더 깊이 파고 들지 못하고 강냉이종자연구방도나 물고기잡이 방도에 대하여 즉석에서 결론을 주시는것으로 형상하고 그것을 측근인물의 성격발전의 요인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수령형상단편소설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 오자면 작품의 풍격에 따르는 철학적종자의 탐구문제로부터 세부묘사, 언어형상에 이르기까지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수령제일주의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한 소설가들에 의하여 앞으로 씌여 질 단편소설들에서 보다 높이 올려 나올 열렬한 웨침과 절절한 호소를 듣는다.

《위대한 동지애의 력사는 오늘도 흐른다!》

고향과 추억

김석주

민들레 (1)

파란 잔디위에 노란 민들레꽃
저도 몰래 마음 이끌려
가던 걸음 멈추고 마주 앉았네
꽃도 아이적에 보던 그 모습
나도 아이적에 보던 그 마음

꽃줄기 조심히 꺾어 들고
숨털열매 가볍게 붙어 보는것은
상기 못 버린 아이적마음

고향의 언덕에서 동무들과 함께
그날에 날린 그 꽃씨앗 어디쯤 날아 갔나...

하얀 솜털 우산 쓰고 동-동-
언덕 넘어 개울 넘어 멀리 앞산기슭까지
아무리 멀리 멀리 날아 갔어도
고향땅 그 어디에 내려 앉았지
못 떠나 뿌리 내린 고향민들레

민들레 (2)

길가에 잔디밭에 호젓이도 핀
민들레 민들레는 추억의 꽃
너를 보니 유년시절의 노래가 들리어 오네
비바람이 비틀어도 시들지 않고
또다시 노란 꽃이 피었답니다

희여 가는 귀밑머리 잊게 해주는
민들레 민들레는 유년의 꽃
나를 잠시 아이적 그 시절로 데려다 주네

비바람이 비틀어도 시들지 않고
또다시 노란 꽃이 피었답니다

인생의 먼 길을 왔네 순결한 그 시절의 동요와
함께
고난의 길도 시련의 언덕도 넘었네
내 지금 고향이 배워 준 민들레노래를 불러 보네
비바람이 비틀어도 시들지 않고
또다시 노란 꽃이 피었답니다

고향바다

고향에 올적마다 여기 백사장에
말없이
말없이
나는 바다와 마주 앉는다

그 무슨 기다림에 가슴 울렁이며 앉아 있건만
처절씩
처절씩
바다도 달려 와 덩굴다 그냥 가기만 하고...

무척 그리웠다, 그 말도 다 아니고
무척 사랑한다, 그 말도 다 아니고
터놓을 말을 못 찾고 수많은 말 말없이 나누며
서로 마주 보기만 하다가 헤어지는 고향마다

긴 세월... 이렇게 다정한 말 한마디 없이
헤어졌어도
멀리 가면 또 그리워 지겠지
발가승이시절에 사귀 너와 나
아마 그리움이 크면 정작 할 말도 못하는게지...

어째서인가

류다른 나무들도 아닌데 어째서 내 못 잇는가
기묘한 바위들도 아닌데 어째서 내 못 잇는가
이름난 산천도 아닌데 내 어째서
멋 있고 아름답기로 소문난것도 아닌
그저 그런 바위, 그런 시내, 그런 별판...
고향은 수수한것뿐인데 내 어째서

어째서 사람들 그 땅을 지켜 목숨도 바쳤겠는가
어째서 사람들 그 땅을 가꿔 한생을 바치겠는가
또 나는 어째서 머리 희도록 고향에 바칠 시를
쓰는가

추억은 사랑이다

귀밑머리 희여 가도록
고향에 대한 노래 한편 없는 시인이노라
이따금 고향에 다녀 와선
내 몇번이나 붓을 들었건만
무엇때문이나, 그것만은 정말 쓰기 어렵구나

조개 죽던 바다며 알몸으로 덩굴던 백사장
추석날 아버지 따라 가던 사평의 패랭이꽃이며
유년시절의 시계였던 제강소 고동소리
봄날 어머니 나무दान에 얹혀 오던
그 진달래꽃뭉치며...

모든것 눈에 생생하건만
어린 시절에 떠나
그 땅에 심어 가꾼 나무 한그루 없을진대
고향은 고향이라도
한갓 추억만으로는 시가 되지 않아서인가

리력서에 적을 때만 고향이었지
그 향토에 바친것 이루어 놓은것 없거니
어제를 두고 추억은 가득하나
오늘을 두고 할 말은 없구나

하지만 추억은 사랑이다
내 태어나던 그날 그 밤에
할아버지 어느 발머리엔가 깊이 묻었다는 태가
고향땅에 영원히 내린 인생의 닳이랄가
그것이 향토와 하나로 된지도 오래다

인생은 떠다녀도 닳을 안고 다니는 배와는 달라
한번 내린 운명의 닳을 떠안고 다닐수 없어
내 몸은 어디 있어도 닳은 그 땅에 있거니
고향추억은 한생토록 못 잊어 그리는 사랑이다
피를 묻은 그 땅에 몸도 묻는 사랑이다!

상식

양자컴퓨터

과학자들은 앞으로 여러 측면에서 지금의 컴퓨터를 훨씬 능가하는 양자컴퓨터가 출현하여 끊임 없이 발전하고 있는 정보기술영역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 양자컴퓨터의 연산속도는 지금 쓰이고 있는 컴퓨터를 훨씬 능가하기때문에 재래식컴퓨터로 해결할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 특히 복잡한 수학 적난문제들도 풀수 있을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양자컴퓨터의 외형과 입출구조종방식도 지금의 컴퓨터와 달라 지게 될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의 컴퓨터는 전위의 높낮이로 0과 1을 나타내는것으로 2진법연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컴퓨터는 기본립자의 스핀으로 0과 1을 나타내게 되며 립자스핀의 특수한 성질을 리용하여 방대한 량의 정보를 빠른 속도로 처리할수 있다.

5,000개정도의 양자비트를 가진 양자컴퓨터는 지금의 슈퍼컴퓨터로 100여년이 걸려야 풀수 있는 씨수문제를 약 30초내에 풀수 있다고 한다.

현재 전통적인 반도체제작기술은 그 발전이 이미 극한점에 이르고 있기때문에 컴퓨터제작분야에서는 전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양자컴퓨터는 이런 연구에서 기본 대상의 하나로 되고 있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이미 양자반도체3극소자와 양자고체전기호로 등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언제쯤 양자컴퓨터를 만들어 낼수 있겠는가 하는데서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최근의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앞으로 적어도 20년 이내에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게 될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영원히 백두산의 시인으로 살겠다

나는 시인이다. 시인은 정의와 량심의 대변자라고 한다. 하지만 진정한 정의의 수호자를 찾지 못한 시인은 정의와 량심의 대변자로 될수 없으며 부정의의 흉탕속에서 헤매이지 않으면 안되기 마련이다.

나의 조선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 마음은 조선으로 향하고 있었다. 한번 와보면 다시 오고 싶은 곳이 조선이다. 그것은 바로 21세기의 앞길을 밝히는 위대한 태양이 바로 동방의 조선에서 솟아 올랐기때문이다.

더우기 이번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맞으며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만사를 제쳐 놓고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조선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달려왔다. 백두산이 나를 부르는것만 같아 조선으로 달려가는 나의 마음을 억제할수 없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어떻게 되며 이미 《로동신문》에도 실린바 있는 《**김정일**최고사령관》, 《백두산의 너장군》과 같은 훌륭한 시를 쓰게 되었는데 가고 묻곤 한다. 그때마다 나는 단마디로 대답하곤 한다. 백두산이 나에게 힘을 주고 백두산이 나에게 시를 안겨 주었다고.

그렇다. 백두산이 나에게 시인으로서 지켜야 할 정의와 량심을 안겨 주었고 백두산이 나에게 시인의 용기와 신념, 삶의 희열과 뜨거운 숨결을 주었다. 백두산은 곧 **김정일**동지이시며 **김정일**동지는 곧 백두산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백두산은 **김정일**동지의 고향일뿐아니라 그이께서 지니신 천하제일의 위인상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정의의 수호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인적풍모에 대한 매혹은 나를 진정한 시인으로 키워 주었다.

이번에 나는 또다시 백두산의 장쾌한 절경을 보면서 위인중의 위인이신 **김정일**동지의 장군다운 기질과 배짱, 천하를 쥐락펴락하시는 지략과 담력의 원천을 심장으로 더욱 절감하였다.

오늘 세계는 **김정일**동지의 의지와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 **김정일**동지께서만이 세계를 정의와 평화의 한길로 굳건히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진리이다.

지난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로씨야공식방문은 정의와 평화의 위대한 수호자로서의 그이의 풍

모를 세계앞에 남김없이 과시한 역사적인 사변이었다. 그때 온 로씨야땅이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맞이하는 감격에 설레이었다. 모두가 그이의 영상을 뵈기 위해 일이 끝나기 바쁘게 텔레비존앞에 모여앉곤 하였다.

레닌묘를 찾으신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뵈던 그 순간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 공산주의자로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스크바에 왔었던만 그 누구도 한적속에 잠겨 있는 레닌묘를 찾을 생각조차하지 못하였다. 나는 레닌묘를 찾으신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영상을 우러르며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가슴 뿌듯하게 받아 안았다. 세계는 **김정일**동지를 우러르며 인류의 미래를 낙관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된 《21세기 태양맞이모임 국제연단》에서 나는 일정에는 예견되어 있지 않았지만 꼭 토론을 하게 해달라고 제기하였다. 연락에 나선 나는 시인의 량심을 가지고 미국이 벌리는 반공화국소동에 대해 규탄하였다. 미국의 반공화국책동에 맞장구를 치는 자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인류의 량심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였다.

국제연단에 참가한 사람들모두가 나의 토론에 전적인 동감을 표시하였다. 연락에서 내리자 저마다 달려 와 정말 좋은 토론을 하였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는것이였다.

그 모습들을 보며 나는 정의에 대한 도전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으리라는 신심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이 기회에 영원히 백두산의 시인으로 살려는 나의 확고한 의지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지금 나는 비록 서툰 필치로나마 **김정일**동지의 위인상에 대해 노래하고 싶어 또 한편의 서사시를 준비하고 있다. 곧 태어나게 될 서사시는 백두산의 시인으로서 한생을 살려는 나의 의지와 신념의 노래로 될것이다.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삶의 보람을 안겨 주신 **김정일**동지께 다시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위인중의 위인을 직접 모시고 사는 행운을 지닌 조선인민에게 꼭 부탁하고 싶다. **김정일**동지를 부디 잘 모셔 달라. 이것은 시대의 력사가 조선인민에게 안겨 준 숭고한 의무이다.

로씨야작가 알렉산드르 브레쥬네프

추억에 남는 시

삼각산이 보인다

조벽암

내 요즘 남쪽 창을 열면
의례껏 찾아 보는 버릇이 들었다

맑게 개인 날씨면 신기루인양
아득히 솟아 오르는 삼각산

그도 내가 반가운지
창앞으로 가까이 다가선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련만
멀게만 여겨 저 가슴이 미여지누나

애비 없는 어린것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신음소리가

아들잃은 늙은 어머니의
원췌의 발길에 채우는 소리가

그도 목이 메여 차마 말 못하는데
그밑에서 숨 가쁘게 들려 오누나

내 눈엔 때아닌 먹구름 일어
억수로 퍼부어 지는 설음의 소나기

눈물속에서도 분노의 번개는 쳐
어언중 삼각산도 산산이 부스러지누나

나는 지그시 입술을 깨물며
창문을 도로 닫고

5개년계획의 나의 설계도를 편다
그들에게 곧바로 뚫린 길을 찾아

-1956.6-

작가일화

민족을 사랑하라

주체80(1991)년 6월 어느 날, 당시 민주도이쉴란드의 수도였던 베를린에서는 훔볼트종합대학 조선연구소 소장 헬가 피히트교수의 발기에 의하여 《조선의 통일과 고전 및 현대조선문학의 역할에 관한 국제토론회》가 열렸다.

회의에서 논의된 문제의 중심은 조선중세소설의 존재와 조선에서의 문학사평가원칙에 대한 것이었다.

그런데 국제토론회에서는 예상치 않았던 사태가 일어 났다. 일부 불순분자들과 사이비학자들이 마치도 저들의 주장이 조선문학사의 존재가치를 규정하는듯이 떠벌이는 것이었다.

회의분위기는 조선문학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아니라 민족문학의 우수성을 말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어떤 자는 봉건시기 유교사상이 국가정치의 기본리념으로 되고 한자가 공용어로 쓰이며 한시문을 짓는 것이 과거시험과목으로 되어 량반사대부들이 중국의 시문을 숭상하고

그것을 본따는 등 문학발전에 미친 부정적영향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도 남조선의 김동인의 글자료까지 뒤져 가며 중세에 리인직의 《귀의성》 이전에는 승려들이 쓴 몇가지 력사담과 기남외에 《춘향전》, 《심청전》 등 밖에 없고 그것도 이야기의 주지만을 진할뿐 정본은 구할수 없다는 얼토당토 않은 소리까지 뒤져 냈다. 심지어 어떤 자는 임진왜란후 많은 진기소설들이 중국소설 《삼국연의》를 모방한것이고 허균의 《홍길동전》은 《수호전》의 모방작품이며 김만중도 중국소설을 모방하여 《구운몽》, 《사씨남정기》를 썼다는 등 허황한 소리까지 마구 내뿔었다.

이것은 천추에 용납 못할 민족문학말살행위였다. 이를 용납한다면 국제무대에서 우리 민족의 우수한 유산이 무참히 란도질 당할수 있었다. 실로 참을수 없는 일이었다.

바로 그때 조선문학사에 대한 의혹과 불만이 짙어 가는 회의분위기에 도전이라도 하듯 작달막

한 키의 한사람이 나섰다.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인 주체문학연구소 소장 원사, 교수, 박사 김하명이였다.

쭉 벗어 진 이마, 의지가 비낀 눈동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표동지들,

저는 먼저 이 자리에서 이렇듯 의의 깊은 국제토론회를 마련하여 준 동지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

저는 우리 나라 문학발전의 특수한 조건들과 지난 시기 문학사연구의 실태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문학사에서 사대주의, 모방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평가문제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두툼한 입술이 열리자 불 같은 말마디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는 문학현실에서 사대주의, 모방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대하여 그 주요한 논거를 들어 가며 하나하나 사리정연한 체계를 세워 이야기하였다.

그중에도 18세기의 저명한 실학자이고 작가인 연암 박지원의 평론이 얼마나 예리하였는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하였다.

《연암 박 지원은 시 <좌소산인에게 준다>에서 남이 지은 글을 평하면서 <산문은 의례히 한나라 시기에 비기고 시라면 당나라시기를 이끌어 내>는 모방주의자들을 제단에 구멍 뚫고 살면서 우쭐대는 쥐새끼에 비기었습니다. <영척고서문>을 봅시다. 여기에서는 무턱대고 남의 나라 옛것을 모방하는것을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수박겉이나 핥고 고추를 통채로 삼킨 자와 더불어 맛에 대하여 이야기할수 없고 이웃집 털옷이 부러워서 한 여름에 빌려 입은 자의 철기에 대하여 이야기할수 없는것과 같이 시의 참다운 가치를 모르는 자로 낙인하였습니다.

중세에 이어 8. 15해방이후 사대주의바람은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평가에서도 심중한 해독적작용을 하며 나타났는데 그 대표자들은 <한국근대소설>의 저자 김동인과 <조선봉건왕조시기소설론>의 저자 김기동 등 입니다.

진정한 학자라면 후대들에게 마땅히 역사를 공정하게 사실대로 보여 주어야 하겠지만 조선의 소설을 모두 남의 나라 소설의 모방으로 조작한 이런 사이비학자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장내는 물을 뿌린듯 조용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는 계속하였다.

《이런 몰상식한 견해를 논박하는것은 이야기가 장황해 질수 있는것이므로 그만 두기로 하고 사대주의가 얼마나 사람들을 머저리로 만드는가 하는 실례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8. 15전부터 조선문학을 전공했고 그후에는 큰 대학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문학사관계저술도 하고 일본, 미국 등의 대학에 초빙교수로 가서 강의한 한 어지간히 이름이 난 한 학자는 일본의 한 출판물에다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조선의 17세기 작가 김만중의 유명한 장편소설 <구운몽>을 소개하면서 그것이 18세기 중국작가 조설근의 장편소설 <홍루몽> 등의 영향을 받았다는것은 확실하다고 썼습니다. 알려 진바와 같이 김만중은 1637년에 나서 1692년에 사망하였고 조설근은 1715년을 좌우한 때에 출생하여 1763년에 사망하였으니 장편소설 <구운몽>이 조설근이 세상에 태어나기도전에 창작되었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로 되는것입니다.》

순간 장내에는 요란한 박수가 터져 올랐다.

사리정연하고 명백한 그의 논리가 참가자들의 의욕과 실망이 어렸던 사고를 시원하게 풀어 준 것이다.

홍분, 경탄, 박수가 한데 어울려 회의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의 토론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꽃 핀 민족문학의 우수한 성과를 일반화하고 현 시기 문학발전원칙에 대한 결론으로 마무리 되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다.

《선생은 문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정치적견해로 하여 회의분위기를 주동적으로 이끌어 나갔는데 그러한 지식과 견해를 확립하게 된 기초는 무엇입니까?》

김하명은 대답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라, 그리고 귀중히 여기라, 민족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없다면 매 개인은 자기 민족의 반역자, 민족도 력사도 모르는 머저리가 되고 만다, 나의 지식과 견해의 기초에는 우리 조선민족에 대한 민족애, 민족자주정신이 놓여 있다, 이것은 나의 스승이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주신것이다. 조국통일도 민족문화의 발전도 그 품속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김창조

한그루 버드나무에 깃들인 농촌정서의 새맛

한미영

도시의 정서도 정서려니와 농촌의 정서는 버드나무로 하여 류달리 그윽하다. 도시의 버드나무는 주로 강변에 줄 지어 늘어 서서 사랑에 취한 청춘들을 부른다. 농촌의 버드나무는 대체로 홀로 과묵하게 서서 땀과 흙먼지로 얼룩진 적삼들을 부른다. 이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농촌정서의 주인공인 버드나무의 고색창연함을 노래했던가. 그래도 굳이 이 펜을 든것은 단편소설 《버드나무》(리영환작 《조선문학》 주체90년 2호)에게 종전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농촌정서의 새맛을 강렬하게 느끼고 그에 감흥했기 때문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시대 인민은 문학에서 새형의 인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된 자각을 가지고 자연과 사회를 자기 의사와 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적인간의 전형을 보려고 한다.》

작품에서의 새맛은 새로운 주인공을 넘두에 둔다. 이름이나 생김새가 새로와서가 아니라 성격에 새로운 주인공을 넘두에 둔다.

이때까지 버드나무아래에 모여 들어 땀을 들인 농촌의 주인공들은 땅을 아는 사람들이였다. 땅의 속내를 꿰뚫고 땅과 말하며 땅이 매기는 땀의 값을 귀중히 사던 근면한 사람들이였다.

그러나 단편소설 《버드나무》에서의 주인공 진득현은 땅과 함께 시대를 아는 사람이다. 시대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시대-《고난의 행군》시대를 아는 농민, 그래서 땅을 아는것만으로는 도저히 만족할수 없고 전진할수도 없음을 체득한 농민, 그때문에 더욱 근면해지고 더욱 숭고해 진 새로운 전형이다.

진득현은 우선 《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답하기에 앞서 《생활이란 무엇이며 희망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사람이다. 《나》로 설정된 천일홍의 시야에서 진득현의 성격이 부각된다.

우선 《나》는 누구인가, 세계적인 작곡가가 되려는 사람이다. 희망도 높고 재능도 있는 젊은 청년이다. 대학에 가려고 했으나 아버지에게 이끌려 전혀 그러 본적도 없었던 농촌에 내려 왔다.

그 길로 리당비서 진득현의 손에 《말겨》졌다. 그 무슨 쌀자루처럼... 평양에서 나서 자라 소년궁전을 거쳤고 《기동예술선동대》를 따라 다니면서 손푹금만 타던 《나》가 질통을 지고 돌을 나

르며 허우적일 때 진득현은 말했다. 《꼭 대학엘 가야만 작곡을 할수 있는건 아니야. 어떤 경우엔 로동생활이 더 큰 밑천이 될수도 있어. 중요한 건 희망을 버리지 않는게야.》 하고...

혹가는 묻는다. 작곡가가 될 희망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에게 손푹금대신 질통을 메워주고 대학에 가지 못했음을 아쉬워 말라고 이르는 리당비서가 과연 새형의 인간인가고,... 그러나 진득현은 젊은 청년-《나》의 손에 돌덩이를 쥐여 주었음당정 《벼도깨비》-유명학을 기어이 대학에 떠밀어 보낸 사람이다. 새 품종의 발버를 연구하기 위해 어머니 잃은 딸애를 리당비서에 맡기며 자기를 대학에 보내달라던 유명학, 수확이 높은 벼를 만들어 내기전에는 질대로 물려서지 않으리라는 유명학의 의지를 진득현은 믿었다. 믿고 대학으로 떠밀어 주었고 방금 돌이 지난 딸애를 친자식으로 맡아 안았다. 그는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이쯤 왜야》한다고 말한다. 역시 희망에 대한 문제이다. 천일홍에게는 《중요한건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 유명학에 대해서는 《이쯤 왜야》 한다고 했다. 진득현의 눈으로 보는 두사람의 《희망》은 다르다. 유명학의 희망과 재능은 논벼농사가 잘 안되는 산간지대에서서는 발버를 심어야 한다고 하신 아버지수령님의 교시를 심장깊이 간직환 참된 지식인의것이라면 《나》의 희망과 재능은 그저 막연하게 세계적인 작곡가가 되어 명성을 떨치려는것에 불과하였다.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생활에 대한 수업이 필요하다. 생활중에서도 가장 절박한 생활, 《고난의 행군》에 대한 뼈 저린 체험이 필요하다. 《곡괭이로 땅을 두지고 등어리로 가대기를 끄는 한이 있어도 제 손끝으로 낱알을 만들고 물고기를 길러야 하며 《등잔불밑에서 글을 읽고 신발을 기워야》 하는 고난의 농촌을 알아야 한다. 결국 땅과 시대에 대한 수업이 필요하다. 때문에 진득현은 《나》가 3년동안의 농사일끝에 《재부의 아버지는 로동이고 재부의 어머니는 땅이》라는것을 깨달았다고 자칭하며 근로의 가치를 알만큼 알았다고 기뻐 할 때조차 그에 만족해 하지 않는다. 그는 천일홍이 창작한 노래 《양어장의 달밤》을 두고 《노래에 정서도 있고 랑만도 있고 창작가의 재간도 느껴 진다고 하더라. 그런데 어려운 시기를 이겨 나가는 시대적감정이 잘 안겨 오지 않는다...》 한다.

로동에 지치고 멀어 저가는 희망에 지친 《나》가 드디어 의문을 터쳐 리당비서에게 항변할 때 진득현은 호되게 질책한다.

《넌 마치도 무엇을 바친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은 자신에게만 충실했을뿐이다... 지금 이 시각도 너같은 젊은이들이 군복을 입고 조국을 지키고 있다. 그래 네가 병사들처럼 언 땅에 배를 붙이고 밤을 새보았느냐. 얼음장을 헤치고 강을 건너 보았느냐... 그래도 넌 이불을 덮고 발편잠을 자지. 참새알만 한 희망을 가지고 재능이 뭐 어쨌다고... 병사와 같은 심장을 지님이 없이는 그 어떤 희망에 대하여 말하지도 말아...》

진득현은 《땅을 알고 시대를 아는 희망》, 《병사와 같은 심장을 지닌 희망》에 대해 토로한다. 그것을 떠난 희망은 그 아무리 세계적인것이라도 《참새알》만 한것에 지나지 않는것임을 그는 깨우치려고 애 쓴다. 안해를 잃고 딸을 남의 집에 맡기고 근 20년간 하나의 벼종자를 위하여 한생을 서슴없이 바치는 유명학의 희망에 비해 볼 때 《나》의 희망은 얼마나 가벼운것인가. 그러고보면 희망의 본질은 재능으로 세계를 얻기전에 재능으로 조국을 보태고 풍요하게 하는, 즉 바침으로써 조국의 아들이 되고 그것으로써 마침내 희망을 이루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것이다.

천일홍이 진정으로 인민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노래》를 짓자면 인민을 알아야 하고 인민이 가꾸는 이 땅을 알아야 하며 인민이 이끄는 시대를 알아야 한다.

생활의 격류속에서 드디어 천일홍이 참된 희망이란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체험으로 다져지고 의지로 굳어진 그의 희망을 두고 진득현은 그리도 기뻐 한다. 천일홍이 《정녕 내가 지금껏 무슨 꼴로 살아 왔던가?》하고 뼈 아프게 자책하며 《저도 이제 아바이처럼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한생을...여기서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진득현은 《이녀석아, 그건 아니다. 난 널 양어공으로 키우자고 잔소리 해온건 아니야. 어허...》하고 말한다.

확실히 그는 양어공을 키우기 위해 《잔소리해온》것이 아니었다. 월참에 손퐁금을 타서 농장원들을 기쁘게 하라고만 생각한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천일홍을 채찍질하면서도 칭찬하면서도 시종 희망에 대하여 말하였고 손퐁금이 마사 졌을 땐 집의 돼지를 팔아 손퐁금을 사주었으며 때가 되면 그를 대학으로 떠나보내기 위해 스스로 양어분조장으로 내려 왔다. 연구사 유명학과 후에 작곡가가 된 천일홍의 희망에 바쳐진 진득현의 진정은 그렇듯 헌신적이었다. 하다면 여기에 비친 농촌정서의 새맛은 무엇인가. 이 소설은 흑시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들떠 있

던 한 청년을 진정한 땅의 선물을 아는 작곡가로 키우는것을 기본으로 하는 소설은 아닌가?

아니다. 진득현은 바로 그것으로써 농촌을 가꾸었다. 진득현은 천일홍으로 하여금 《시련을 맞아 웃으며 나가는 불굴의 웨침》, 《이 땅에 감도는 풍요한 대지의 서정》을 찾게 하였다. 그는 천일홍으로 하여금 《버드나무》라는 노래를 지어서 《화려한 꽃도 짙은 향기도 충실한 열매도 없》지만

《자기의 수려한 풍치로 이 땅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온갖 새 날아 들게 하는》, 소박하면서도 의지가 강하고 뿌리가 깊은 농촌의 주인들을 노래하게 했다. 조롱안에 새를 가두어 재롱이니 부리게 한것이 아니라 다 키워 하늘로 날려 보내여 시련을 이기는 우리 시대 농촌을 노래하게 했다.

학자라면 새로운 벼종자를 연구해 낸 박사를! 작곡가라면 바로 우리 농촌을 노래하는 이름 있는 예술가를! 진득현은 그것을 위해 자신을 밀거름으로 바쳤고 그것으로 농촌을 꾸렸다.

벼가 없을 때는 새 종자를! 사과, 배가 없을 때는 과수원을 꾸렸고 늘그막엔 물고기를 길렀다. 그리고 유명학과 천일홍을 떠밀어 시대의 어엿한 선구자로 내세웠다. 그것으로써 농촌진지를 굳세게 다졌다. 이것이 바로 우리 농촌의 새 풍경이다.

한개 리의 포전이나 양어장을 위하여 《온갖 새를》 부르는 버드나무가 아니라 이 나라 대지를 푸르게 살찌우기 위해 아지를 더 크게 펼치는 버드나무-심장이 크고 속이 바닥없이 깊은 농촌의 새로운 전형을 창조하였다.

나는 그러 본다.

이른 봄, 봄바람에 제일 먼저 눈 뜨고 아지마다 푸른 물을 들여 온갖 새를 부르는 버드나무, 아름답게 자란 줄기는 세월의 풍파를 이겨 내느라 껴실껴실하고 여기저기 상처자리가 남아 있으나 휘늘어진 아지들은 한없이 부드러워 《온갖 새》를 부른다. 《온갖 새》는 그 품에 한껏 정들었다가 차넘치는 노래를 터치며 하늘로, 광활한 하늘로 날아 퍼져 우짖는다. 그리고는 다시 또다시 그 아지에 깃들여 더 아름다운 노래를 준비한다.

버드나무는 언제나 새들을 부르고 또 기꺼이 떠나보냈다가는 어머니처럼 한품에 안아 준다. 새들은 하늘을 나는 자기들의 보금자리가 이 한 그루버드나무임을 본능으로 벌써 깨달았던것이다.

그 아름다움으로 하여 농촌의 풍경은 더욱 이채로와 졌다. 시대라는 풍요한 대지위에 깊이 뿌리내리어 아지를 펼치는 한그루 버드나무-그는

진득현이었다. 이로써 소설은 비교적 성공하였다. 물론 작품에는 일련의 부족점도 있다. 우선 인물관계설정에서 작가의 주관이 지나치게 개입한 것이다. 선택된 인물들 가운데서 천일홍의 아버지는 그 실정이 무의미하다. 군대에서 제대되어 고향으로 내려 온 아버지는 천일홍을 리당비서에게 맡기고(무슨 쌀자루처럼) 방목공이 되어 깊은 산속으로 들어 갔다. 그는 아버지로서의 의무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다만 리당비서에게 맡긴것으로 만족하였다.… 도대체 아버지라는 인물의 실정이 필요하겠는가 하는것이다. 작품을 보면 진득현에게 두 청년이 깊이 맞물려 있는데 딸처럼 말아 안은 상금이는 연구사 유명학의 딸이고 아들처럼 책임지는 천일홍은 제대군관의 아들이다.

어찌 보면 그로 하여 진득현의 성격이 인간적으로 더 부각되는것 같지만 억지감을 지울수 없다.

차라리 상금이를 리당비서 진득현의 친딸로 그냥 두고 천일홍을 유명학의 아들로 했더라면 어땠을런지… 그러면 현재 아무런 형상과제도 없이 한번 나타났다가 쑥 사라진 아버지에 대한 불안감도 없어 지고 유명학과 일홍이 그리고 리당비서, 이런 관계로 하여 소설은 더 탐탁해 졌을 것 같다.

덧붙여 또 한가지, 소설의 이야기를 담은 그릇

문제이다. 소설이 안고 있는 형상과제와 생활력역, 기간에 비해 그릇이 너무 작다. 작게 잡아 3년동안의 생활을 그렸는데… 사실 단편의 매력은 생활의 어느 한 토막에서 새로운 생활철학을 말하는데 있지 않을까. 한 인간의 성격장성과정을 다 그려 주기보다는 어떤 작은 생활토막에서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개성을 포착하여 그리는데 단편의 묘미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보면 이 소설은 중편감이 아니겠는지… 물론 작가는 그 무리감에서부터 탈피하기 위하여 일기형식이라는 구성방식을 취했으나 단편으로써는 확실히 배좁다. 요약한다면 주인공의 형상을 돈구는데 품을 넣던 나머지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맞물림을 오히려 파괴하였고 단편의 참맛도 약간 잃어 버렸다. 그러나 이런 결함은 작가의 창작에서 능히 극복할수 있는 일면적인 흠이라고 본다.

단편소설 《버드나무》는 우리 시대 농촌일군의 전형을 새롭게 창조한것으로 하여 농촌물주제작품창작에서 또 한걸음 내짚은 좋은 작품이다. 앞으로 더 좋은 단편소설을 우리 농촌의 대지에 안겨주어 시련을 뚫고 강성대국으로 나아가는 사회주의농업근로자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하고 우리 문단을 더 풍요하게 하는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하면서 글을 맺는다.

묘향산풍경단시묵음

(총련)권령선

향산의 아침

향산에 아침해살 비치고
구름그늘 산에 비껴 푸른빛 더 짙네
이슬 턴 새들은

노래를 뽑기에 분주한데
향산천은 뒤질세라
일부러 돌을 안고 소리쳐 흐르네

향산의 저녁

가을에 왔으면 하는 나의 소원 알아선가
7월의 향산 노을속에 불 붙네

푸르싱싱한 나무들도 붉게 타올라
가요의 단풍절경 보는듯 싶네

향산의 밤

온 종일 지저귀던 새들도
둥지에서 내려접고
나무잎들도 조용히 잠들었는데

향산천 거울 삼아 아름답음 겨루는가
물속에 잠 못 드는 향산의 달과 별

《문학창작은 심오한 사상과 높은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세계관이 바로 서고 철학적사색이 깊으며 창작적열정과 예술적자질이 높은 작가라야 인민의 사랑속에 역사에 남는 훌륭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김정일

20세기 추억

《동요할아버지》에 대한 추억

김정일

1. 옥류교능수버들밑에서

그 누가 말했던가. 세월은 류수와 같다고.
지금도 생각하면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벌써 10년이 지나갔다.

그날은 기억도 새로운 주체79(1990)년 4월 세번째 일요일이었다.

아동시인 윤복진은 바로 이 자리, 옥류교능수버들밑에 놓여 있는 이 결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동안 심장병이 도져서 한달남짓이 지리에 누워있다가 오래간만에 문밖출입을 하였더니 걸음걸이가 제대로 되지 않고 눈앞이 핑 돈다고 하였다. 얼굴에는 명색이 질었지만 두눈만은 유난히도 빛났다. 보청기를 끼지 않았는데도 여느때보다 더 잘 들었다.

(무르녹는 새봄과 함께 윤복진선생의 건강도 켜 좋아 졌구나.)

나는 무척 기뻐다. 원래 그는 말이 적은 편이었다. 한일자로 꼭 다문 입을 좀해서는 잘 열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은 별스럽게도 이야기를 많이 했다. 요사이 창작실에서는 이번 작품들을 쓰고있느냐고 꼬치꼬치 캐여 묻고 나서 다정다감파 눈길로 능수버들가지를 이윽도록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떻게 썼더라. 내 그 언제인가 이 능수버들을 두고 동요를 쓴적이 있었는데 영 생각이 나지 않누만. 이젠 늙었어.》

《동요 <옥류교능수버들> 말입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쓰셨지요. 제가 한번 읊어 볼테니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 동요를 외우고 있었다.

그 동요는 주체75(1986)년 1월에 쓴것 이였다. 잡지 《아동문학》에 제출되었다가 작가가 한번 더 충고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도로 찾아 오는 바람에 복닥소동을 일으켰던 작품이었다.

그래서 나의 머리속에 더욱더 인상깊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의 귀에 입을 바짝 가져다 대고 소리높이 읊었다.

대동강 한기슭에
능수버들 한그루

몇백년을 자랐나
네아름도 넘누나

비바람 불어 오고
번개가 내리쳐도
푸른 가지 자랑하며
곳곳이도 서 있구나

이렇게 시작된 동요는 계속하여 대동강의 얼음장이 갈라 지기도전에 봄을 먼저 알려 주고 한여름 불별이 내려 쬐는 날에 매암이를 불러 푸른그늘을 노래해 주는 능수버들이 장한 모습을 찬양해 주고 나서 다음과 같은 결구로 끝을 맺고 있었다.

날을 따라 번영하는
우리 평양 바라보며
푸른 잎새 너홀너홀
춤을 추는 나무야

너를 두고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더니
오늘은야 돌을 쪼아
내 이야기 적었구나

나는 동요를 읊고 나서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솔직히 말하면 은근히 칭찬해 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그는 한손을 내저으며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나의 미발표작을 기억해 주어 고맙긴 하지만 그 동요는 졸작일세. 내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쓸테니 두고 보라구.》

그는 버드나무밑등을 쓰다듬으며 이런 말을 하였다.

《임자도 이 나무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다는 모를거야. 내 모습과 꼭 같아서일세. 이 늙은 나무가 세월이 흐를수록 젊어 지는게 뉘 덕이겠나. 제가 잘 나서겠나. 아니지. 해빛을 주구 물을 주구 거름을 주는 따사로운 손길이 있어서 그런게지.》

못 잊을 그 사랑이 바로 이 나무와 나를 안아

키위 준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하늘 같은 크나큰 은덕이란 말이세. 그런데 난 그 사랑을 동요에 뜨겁게 담지 못했던 말일세.》

그는 눈길을 돌려 이번에는 유유히 흘러 가는 대동강 푸른 물결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염없이 쳐다보기만 하였다.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굴렀다.

(그랬구나. 그래서 이 동요를 발표하지 않았구나. 그런데 오늘은 왜 지나간 일에 대해서만 자꾸 이야기한가?)

퍼그나 시간이 흘러 간 뒤였다.

그는 뜻밖에도 이렇게 물었다.

《임자는 저 대동강 푸른 물결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나?》

나는 한동안 말뜻을 몰라 고개를 기웃거렸다.

모르고 묻는 말이 아닐텐데 어떻게 말했으면 좋을까. 피딱 머리속에 떠오르는 동요가 있어 《김조규선생이 동요를 쓰고 리면상선생이 곡을 단 유명한 노래 <대동강>이 있지 않습니까. 모란봉 청류벽을 굽이 돌아서 대동강 맑은 물은 어디로 가나, 원수님 탄생하신 만경대를 지나서 자락을 가득 싣고 바다로 가지...》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 노래는 김조규가 동요도 잘 썼지만 리면상이 곡을 참 잘 달았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동요시인은 작곡가를 잘 만나는데 큰 행복이라고 하였다.

자기한테도 잊지 못할 작곡가들이 많은데 왜 그런지 요새 와서는 그들을 만나보고 고맙다는 인사말을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든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하였다.

《저 대동강 맑은 물결은 나의 노래도 싣고 서해바다로 가겠지. 아니 남해바다에도 가고 랍동강으로 흘러 들어... 나의 옛 고향 대구에도 갈거야.》

그의 두눈에는 향수의 정이 가득 어려 있었다.

순간 나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아니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그 누구나 인생을 마무리 지을 때가 되면 옛 소꿉시절로 되돌아 간다는데... 혹시 윤선생이...)

그는 엉거주춤 일어 섰다. 휘늘어 진 능수버들 가지에서 새파란 잎사귀 한개를 정히 따들더니 비틀거리며 층층계단을 내려 가기 시작하였다.

나는 얼른 그의 팔을 끼고 따라 내려 갔다.

물넉가까이로 내려 간 그는 물위에 버들잎을 띄웠다.

버들잎은 잔잔한 물결을 타고 한들거리며 떠내려 갔다. 그의 입에서는 《버들잎배 동동 대동강에 동동》이라는 동요구절이 흘러 나왔다.

떠내려 가는 버들잎배를 바라보며 그는 빙그레 웃었다. 그 미소는 천진란만한 동심세계에서만 찾아 볼수 있는 가장 깨끗한 웃음이었다.

이것은 내가 마지막으로 본 옛 선배의 모습이다.

2. 《동요할아버지》 윤복진

우리는 그를 《동요할아버지》라고 불렀다.

집에 가면 동네조무래기들이 《동요할아버지, 동요할아버지》하고 부르며 줄줄 따라 다니고 창작실에 나오면 내 나이또래의 젊은 작가들은 말할것도 없고 머리에 흰 서리가 내린 로작가들도 《윤선생》, 《윤동무》라는 호칭보다 《동요할아버지》라는 호칭을 즐겨 부르곤 하였다.

그래서 이전 쏘련에서 출판되었던 아동문학잡지에도 《조선의 아동문학작가들은 윤복진을 《동요할아버지》라고 누르고 있다.》하고 소개된적이 있다.

몇해전에 남조선에서 출판된 윤복진동요집 《꽃초롱 별초롱》에 실려 있는 윤석중의 추천사에는 《윤복진이야말로 우리 나라 동요를 살린 우리 어린이들의 영원한 동요아버지》라는 구절이 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그 의미는 같은것이다. 나는 지난 기간 조국을 방문한 여러명의 해외동포작가들을 만나보았다.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총련의 아동문학작가들도 만나보고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변의 아동문학작가들도 만나보았다.

그들은 윤복진의 동요 《고향하늘》을 비롯한 여러편의 노래들을 눈물이 글썽하여 부르고 또 부르고 나서 약속이나 한듯이 그를 가리켜 《동요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곤 하였다. 윤복진은 어제도 오늘도 수많은 독자들의 기억속에 영원히 살아 있구나. 우리는 어찌하여 그를 《동요할아버지》라고 불렀던가.

한생을 동요창작에 고스란히 바쳐 온 관록 있는 로작가라고만 해서 그렇게 부른것이 아니었다.

정다운 그 호칭속에는 우리 나라 현대동요문학의 개척자의 한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그렇다면 그는 동요창작의 첫 걸음을 어떻게 내짚었으며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지었는가.

누가 그를 빛나는 영생의 언덕위에 높이 내세워주었는가.

나는 이 물음에 대답할수 있는 글을 그 누구든지 꼭 써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아니 내 손으로 쓰고 싶었다.

그러나 선뜻 붓을 들수 없었다.

문학사와 작가론적인 글을 다루기에는 나의 필력이 너무나도 어렸기때문이었다.

그래서 10여년동안 후배로서 선배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못한채 부끄러움을 안고 그럭저럭 지내 올수밖에 없었다. 그러던차에 근래에 와서 나는 두가지 충동을 받게 되었다.

얼마전에 읽은 일이었다.

김형직사범대학 박사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젊은이가 나를 찾아 와 자기는 윤복진동요창작에

대한 학위론문을 쓰려고 하는데 좀 도와 달라고 하였다. 그는 《동요할아버지》가 쓴 대표작들을 거의 다 외우고 있었다.

그런데 작가의 생애와 창작활동과 관련한 자료들은 아무리 옛 출판물을 뒤져 보아야 찾아 낼 수 없었다고 안타깝게 하소연하였다.

《동요할아버지》는 일생동안 2천여편이 넘는 많은 동요들을 썼다.

그러나 자기와 관련한 자서전적인 글들은 거의 쓰지 않다싶이 하였다. 텔레비존이나 방송좌담회에 출연하여 이야기를 한적도 없었다.

만년에 시우들의 간절한 권고가 있어 《아동시 문학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달고 창작수기를 쓰기 시작하였으나 그것마저 아쉽게도 미완성작으로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출판물들을 통해서 그의 발자취를 찾아 보기 힘들다.

그는 그만큼 자기 자랑을 할 줄 모르는 소박하고 겸손한 아동시인이었다.

남아 있는 유일한 《자료》는 그와 오래동안 함께 생활한 작가들과 그와 친교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기억뿐이다.

《동요할아버지》는 우리들에게 동요작법의 여러 가지 묘리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해 주곤 하였다.

그때마다 자기가 겪은 생활체험과 창작경험을 사이사이에 끼워 여담 삼아 들려 주곤 하였다. 그 토막이야기들이 오늘에 와서 그토록 귀중한 자료로 될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그 토막이야기들이 우리의 기억속에 생생히 남아 있다.

그리고 나한테는 그때 부지런히 적어 두었던 작가수첩이 있다. 나는 이 소중한 토막이야기들이 우리의 기억속에서 점점 멀어 지기전에, 세월의 망각속에 영영 파묻혀 버리기전에 한시바빠 수집정리하여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이 내가 받은 첫번째 충동이었다.

두번째 충동은 남조선에서 출판한 윤복진동요집 《꽃초롱 별초롱》을 보고 난 뒤에 받았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혹시 내가 모르고 있는 동요들도 들어 있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은근한 기대와 호기심을 안고 동요집을 단숨에 읽어 보았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요집은 1, 2부로 엮어 저 있었는데 제1부에

들이 있는 동요들은 주체 38(1949)년에 서울에서 출판한 윤복진동요집 《꽃초롱 별초롱》을 그대로 재판한 것이었다. 그 동요집은 인민대학습당에 가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책이었다.

제2부에 들어 있는 동요들도 내가 잘 알고 있는 작품들이었다. 지난 기간 우리 평양에서 출판한 윤복진동요동시집 《아름다운 우리 나라》, 《현대조선문학선집》(아동문학작품집), 《세계아동문학선집》(꽃동산), 《조선아동문학문고》(9) 등을 비롯한 여러 출판물들에 소개된 동요들이었기 때문이었다. 나의 눈길은 동요집후기에 밝혀 저

있는 《반세기만에 다시 해빛을 보게 되는 이 동요집》이라는 구절에서 오래도록 떨어 질 줄 몰랐다. 그러니 《동요할아버지》가 그토록 못 잊어 하던 고향집이 있는 남녘땅에서는 그의 옛 동요들을 반세기동안이나 소개조차 하지 못하게 하였던 말이 아닌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그것은 보나마나 그가 《월북》한 작가였다는 단 한가지 리유때문일 것이다.

나는 민족분열의 비극과 반통일분자들의 죄행에 대해 다시 한번 절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제의 심각성은 거기에만 있지 않았다.

동요집에는 계급성이 뚜렷하고 당대 사회의 전형적인 사회정치적문제를 담고 있는 작품들인 《두만강을 건너며》, 《쫓겨 난 부엌데기》, 《산새는야 춤췄네》, 《팔려 가는 황소》, 《빛나는 사이다공패》등을 비롯한 여러편의 대표자들이 들어 있지 않았다. 신통히도 아이들의 세태생활, 꽃과 나

비, 봄비와 바람과 같은 자연을 노래한 작품들만 위주로 골라 묶었다.

그런가 하면 동요집에 실린 《개구쟁이눈으로 본 세상》이라는 해설글에서는 윤복진의 대표작인 《고향하늘》과 같은 시대정신을 정면으로 담은 작품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극히 부차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몇편의 동요들에 대해서만 운운하였다.

《이것은 <동요할아버지>에 대한 그릇된 평가이다!》 나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만일 《동요할아버지》가 다시 살아 나서 이 동요집을 볼 수 있다면 무엇이냐고 하겠는가. 틀림없이 성이 나면 백마디 말을 대신하여 늘 짓곤 하던 그 버릇대로 《흥-》하고 코웃음을 칠 줄 것이다. 《동요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시대적인 환경과 세계관의 미숙성으로 하여 다소 미약한 동요들도 적지 않게 쓴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 작품들만 절대시할 수 있겠는가. 그 시인이 어떤 시인인가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가 남긴 대표작들을 놓고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작가라면 누구나 다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앞에 땀땀이 내놓을 수 있는 대표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한생을 모태김속에 살며 많은 작품을 쓰기 때문이다. 바라건대 동시대인간들과 후대들이여, 이 글을 읽고 스스로 보시라.

《동요할아버지》-윤복진은 과연 어떤 인간이었으며 어떤 작가였는가를...

3. 눈물나라의 눈물동요들

윤복진은 1908년 1월 9일 경상북도 대구부 궁정에서 가난한 수공업자의 맏아들로 출생하였다.

고향에서 회원소학교의 계성중학교를 마치고 일본에 가서 고학으로 일본대학 전문부 문과를 거쳐 법정대학 영문학부를 졸업하였다.

그후에는 서울에서 월간잡지 《음악평론》사 편집원으로 일하다가 대구로 돌아 가 자택에서 문필활동을 하였다. 그러다가 조선토지경영주식회사와 동양정경공업소 화천광산에서 사무원노릇을 하였다.

이것이 8. 15해방전까지의 그의 간단한 생활경력이다. 윤복진은 일제통치시기의 그 암담했던 나날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눈물나라였다고 말해 주곤 하였다. 그 눈물나라에서 우리 겨레가 당하던 민족적멸시와 생활고통에 대하여, 자기가 직접 목격한 3. 1인민봉기에 대하여... 어떤 때는 눈물이 글썽하여, 어떤 때는 주먹을 틀어 쥐고 경상도사투리를 씌어 가며 띠엮띠엮 말해 주던 그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그가 들려 준 그 수많은 체험담을 나의 서툰 글재주를 가지고서는 아무리 애를 써야 제한된 지면에 다 담을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동요할아버지》의 대표작들 가운데서 몇편을 선택하여 그 동요를 쓰게 된 창작경위와 한두가지 일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한다.

처녀작

《작가라면 누구나 다 자기의 처녀작을 한평생을 두고 못 잊어 하며 지극한 애정을 쏟아 붓습니다. 비록 그 작품이 미숙하기는 하지만...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작품이 자기가 창작의 첫 걸음을 어떻게 했으며 어떤 로정을 거쳐 점차 발전하여 왔는가를 돌이켜 보게 해주기때문이지요.》 하고 말폭지를 때고 나서 《동요할아버지》는 주체 11(1922)년에 쓴 자기의 처녀작에 대하여 말해 주었다.

그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은 추녀 낮은 초가집이었다. 사립문만 열면 무연한 보리밭이 바라보이고 새파란 봄하늘에서 방금 숨이 넘어 갈듯이 자지러지게 우짖는 종달새의 노래소리가 들려 왔다. 어린 가슴을 세차게 흔들어 주는 종달새의 노래소리를 들으며 그는 기쁨에 겨워 웃기도 하고 설음이 북받쳐 울기도 하였다.

이처럼 아름다운 내 고향, 내 조국이 일제의 발굽밑에 짓밟혀 신음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못견디게 솟구쳐 오르곤 하였기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아침이었다.

그는 학교길을 가다가 어디선가 울려 오는 종달새의 처량한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가까이 가보니 길가집 추녀밑에 걸려 있는 조롱안에서 한마리의 종달새가 애처롭게 울고 있었다. 자유를 잃고 구슬프게 우는 종달새의 울음소리가 그의 가슴속으로 파고 들었다.

그날 그는 학교에 가서 처음에는 그 종달새를 두고 작문을 지어 보았다. 그런데 작문은 감정을 풀어서 쓴 탓인지 가없는 종달새의 애달픈 울음소리가 가슴을 치며 잘 안겨오지 않았다.

아마도 이러한 소재는 산문보다 운문으로 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는 동요로 썼다.

보리밭에 종달새
봄이 왔다고
은방울 흔들면서
노래하기를
누구든지 같이 와
놀고 가래요

처마끝 조롱속의
옛집 그린 새
보리밭을 보면서
슬피 울기를
갈래야 갈수 없는
맨 몸이래요

동요는 이렇게 짧은 2련으로 되어 있다.

조롱속에 갇혀 옛집을 그리며 슬피 우는 종달새는 어떤 새인가. 순수 자연의 새인가. 아니 결코 그렇지 않다. 그 종달새는 사랑하는 옛집-조국을 원통하게 빼앗긴 우리 어린이들이었으며 우리 겨레였다.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검열이 하도 심해서 그 시절에는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쏟아 놓을수 없었다. 아무리 철 없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동요일지라도 레외로 될수가 없었다.

그래서 은유와 상징의 수법으로 쓰지 않으면 안되었다. 《동요할아버지》는 자기 처녀작이 가지고있는 우점과 결함에 대해서도 말해 주었다.

우점은 종달새를 통하여 당시 어린이들의 심정을 동심에 맞게 노래한데도 있지만 독특하면서도 미묘한 맛을 가지고 있는 3행시를 시도한것이 주목을 끈다고 하였다. 3행시는 4행시에 비하면 련결법이 까다롭다. 왜냐하면 삼각형을 거꾸로 세워 놓은것처럼 안도감을 주기가 어렵기때문이다.

그래서 시창작에 익숙한 사람들도 3행시를 손대기 꺼려 하는데 어린 나이에 어떻게 쓸수 있었는지 스스로 놀랍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종달새의 고운 노래를 은방울에 비유한것도 적절한 시적표상은 안겨 주는 아름다운 우리 말이므로 자랑하고 싶은 좋은 표현이라고 하였다.

결함은 《노래하기를》, 《슬피 울기를》과 같은 현대아동들의 미감에는 맞지 않는 옛날투로 쓴 표현들이 있는것이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써도 무방하였지만 우리 말에 대한 깊은 연구가 부족했던탓으로 시대를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썼다고 하였다. 결국에 나오는 《맨 몸》이라는 표현은 부정확한 표현이라고 하였다.

《맨 몸》이라는 단어는 무엇에 매여 있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쓴 말인데 아무것도 입지 않

은 벌거벗은 몸이라고도 볼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더 큰 결함은 보금자리를 빼앗긴 종달새의 슬픔을 노래한데 그치고 한걸음 더 나가서 항거의 정신을 노래하지 못한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허물이 있긴 하였지만 동요 《종달새》는 세상에 발표되자마자 작곡(박태준곡)이 되어 널리 불리워 졌다. 산골에서 나무하던 소년들은 지게 바리를 치면서 부르고 도회지에서 공부를 하던 소년들은 푸른 하늘을 쳐다보며 불렀다.

《동요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동요는 아이들이 제일 가슴 아파 히는 감정을 잘 잡아 그것을 슬쩍 건드려 놓기만 하여도 작은 가슴을 크게 울릴수 있다는것을 절절히 느끼곤 하였다고 말했다.

남해바다에서

그의 고향은 바다에서 멀리 떨어 저 있었다.

제일 가까운 바다가 영일만이었는데 대구에서 200리가량 떨어 저 있었고 마산과 부산은 그보다 훨씬 더 멀었다. 그래서 그는 소학교를 마칠 때까지 바다구경을 한번도 하지 못하였다.

중학 1학년때 불국사와 석굴암을 구경하려고 경수로 수학여행을 가던 길에 멀리서 바라본것이 처음이었다. 가파로운 토함산중턱에 올라 서니 영일만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안겨 왔다.

끝없이 잔잔한 바다는 조는듯이 누워 있었다.

먼 날바다에 나갔다가 돛을 달고 돌아 오는 배들은 꿈속길을 오는듯이 오는듯마는듯 하였다.

그 모습은 한쪽의 그림과도 같았다.

그는 아름다운 조국의 바다를 노래 하고 싶었다.

가슴속에서 시정이 꿈틀거렸다. 그러나 아직은 구체적인 생활체험이 없었기때문에 붓을 들수 없었다. 그후 윤복진은 오래전부터 친교관계를 맺고있던 아동시인 리원수가 살고 있는 마산으로 가게 되었다. 남해바다가에 시리 잡고 있는 마산은 예로부터 아름다운 포구로 이름난 고장이었다.

세면이 산으로 둘러 싸여 있는 마산앞바다는 큰호수처럼 잔잔하고 아늑하였다.

때마침 봄철인지라 나지막한 산기슭에는 진달래와 살구꽃이 울긋불긋 피어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리원수가 마산상업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쓴 동요 《고향의 봄》이 저절로 흘러 나왔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

그날 윤복진은 리원수와 함께 해종일 바다가를 거닐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바다가 모래밭에는 푸른 바다물에 씻긴 어여쁜 돌이 짝 깔려 있었는데 고기뱀을 따는 어머니들 곁에서 조무래기들이 이쁜 돌을 주으며 재미나게 놀고 있었다. 아침저녁 늘 보는 돌이건만 아이들은 그 무슨 보석처럼 여간만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불에 대고 비벼 보기도 하고 가슴에 품어 보기도 하였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머리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저것이 바로 조국을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뜨거운 마음이다. 저것이 바로 내가 오래전부터 쓰고 싶었던 아름다운 조국의 바다에 드리는 송가이다.)

윤복진은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심정을 단숨에 썼다.

바다가의 모래밭에
이쁜 돌을 주어 보면
다른 돌만 못해 보여
다시 새것 바꿉니다

바다가의 모래밭에
많고 많은 고운 차돌
이여빠서 바꾸려고
주어보면 싫어져요

바다가의 모래밭엔
고운 돌도 너무 많아
맨 처음에 버린것을
다시 찾다 해가 저요

이것이 《동요할아버지》가 들려 준 《바다에서》의 창작 경위이다. 이 동요도 흥란파가 작곡하여 아이들속에서 널리 불리워 졌다.

조국을 떠나가는 사람들

《동요는 <시대의 창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동시인은 한편의 짧은 동요를 써도 생활의 높은 망루에 올라 서서 시대를 한눈에 더 바라볼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라고 윤복진은 말하고 나서 주체15(1926)년에 쓴 동요 《두만강을 건느며》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다.

그의 집에서 멀리 많은 곳에 정거장이 있었다.

동무들과 함께 정거장에 나가보면 일본이나 만주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았다. 람루한 옷차림, 이고 진 보짐, 흘날리는 백발, 배고파 칭얼거리는 어린것들... 조국을 떠나가는 류량민들의 모습이 너무도 불쌍하여 차마 눈 뜨고 볼수 없었다. 그들가운데는 한 이웃에서 같이 살던 사람들도 있었고 한마을에서 함께 놀던 어깨동무도 있었다. 그때 어린 마음에도 저 늙은이들

이 살아서 고향땅에 다시 돌아 올 날이 과연 있거나 할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좀 괜찮은 편이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몇천리나 되는 멀고 험한 타향길을 로자도 없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 얼마나 많은지 몰랐다.

정거장에 갔다 온 밤이면 불쌍한 류량민들의 모습이 눈앞에서 얼른거리고 처량하게 울리던 기적소리가 귀전에 들려 와서 좀처럼 잠들수 없었다.

그는 그 시집에 어른들이 모여 앉아 두만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것을 자주 들었고 조국을 떠나가며 우국지사가 지었다는 구슬픈 노래도 불렀다. 그리하여 두만강에 깃든 피눈물에 젖은 력사를 어느 정도 알게 되고 나중에는 그에 대한 동요를 쓸수 없겠는가 하는 욕망까지 품게 되었다. 정작 쓰자니 한줄도 쓸수 없었다.

동요라는 그릇은 너무나도 작는데 두만강은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안고 있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몰려 서지 않았다. 동요는 대담한 생략과 집약, 함축과 비약을 요구하는 서정시의 한 형태이다. 그런것만큼 구체적인 생활대상과 시적계기만 잘 잡아 쥐면 얼마든지 쓸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머리속에는 이런 생각이 피뚝 떠올랐다.

두만강의 사나운 눈보라도 조국의 눈보라가 아닌가. 그렇다면 추운 겨울에 두툽한 솜옷도 입지 못чан애 엷은 홀옷을 꺼입고 떠나가는 류량민들을 보고도 심술 사납게 그냥 불어 치겠는가.

아니, 그렇지 않을것이다. 눈보라를 밍게만 보지 말자. 눈보라도 가지 말라고 안타까와 하며 앞길을 막았을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을 굴리니 동요의 룹락이 선명히 떠올랐다. 그는 제격 붓을 들고 단숨에 썼다.

눈보라는 펄펄
가는 길 막는데
보짐을 이고 지고
떠나야만 하나요
이 강을 건너 서면
남의 나라 땅

×

돌아 보면 내 나라
그리운 내 고향
언제 오나 묻지 말아
다시 올 날 있으려니
잘 있으라 내 나라
그리운 내 고향

그는 이 동요의 운률을 우정 얼핏 보면 동시처럼 자유룰로 씌여 진듯이 느껴 지도록 썼다.

시의 내용과 정서적흐름이 그것을 요구했던것이다. 그리고 첫절과 둘째 절의 마감시행을 완전

지행으로 마친것은 시의 여운을 질게 남기기 위해서였다. 그래야 동요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적사색을 오래동안 깊이 할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던것이다. 동요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런 말을 하였다.

《지난 날 내가 남조선에 있을 때 어느 한 부르조아문학평론가는 이 동요를 조국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비탄과 절망의 노래라고 평한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동요에 담겨져 있는 뜻을 모르고 한 수작이지요. 이 동요는 감상적인 눈물만 노래한것이 아닙니다.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광복의 날을 그려 보는 절절한 심정이 밝은 색조로 진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동요의 마지막 두련을 꼼꼼히 읽어 보면 알것입니다.》

불쌍한 갓난이에게

윤복진은 주체 13(1924)년에 동요 《쫓겨 난 부엌데기》를 썼다.

바람 불고 눈 오는 추운 겨울에
가엷은 부엌데기 쫓겨 났어요
심술 궂은 마님한테 쫓겨 났어요

솜옷을 입어도 추운 겨울에
가엷은 부엌데기 쫓겨 났어요
홀옷 입고 발발 떨며 쫓겨 났어요

바람 차고 눈 오는 추운 겨울에
쫓겨 난 부엌데기 어디로 가나
집도 없는 부엌데기 어디로 가나

나는 이 동요를 읽어 볼 때마다 《동요할아버지》가 들려 준 다음과 같은 눈물나는 이야기가 떠올라 저도 모르게 눈시울을 적시곤 한다.

윤복진의 고향집앞에는 사립문도 올라리도 없는 오막살이 한채가 있었다. 코구멍만 한 단칸방에 자그마한 부엌이 달린 집이었다. 그 집에서는 갓난이라는 아이가 어머니와 단 둘이서 참으로 구차하게 살았다. 해빛이 들지 않아 방안은 대낮에도 어둡컴컴하였다. 어린 갓난이는 노닥노닥 기운 흰 치마를 입긴 하였지만 여간만 귀여운 아이가 아니었다. 갓난이는 일 나간 어머니를 대신하여 물도 길고 밥도 짓고 빨래도 하였다.

그는 노래도 잘 부르고 소꿉놀이도 재미나게 놀았다. 그들은 세간놀이를 할 때마다 새각시, 새서방이 되곤 하였다. 윤복진네 집도 살기가 어려웠으나 누룽지가 생기면 갓난이 손에 쥐여 주고 어찌다 떡을 치면 갓난이네 집에도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하루는 웬일인지 갓난이가 보이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이들이 지나고 사흘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다. 윤복진은 갓난이 어머니

의 치마자락을 붙잡고 가만히 물어 보았다.

《갓난이는 어데 갔나요?》

갓난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한참동안 아무런 말도 없이 먼 산만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옷고름으로 눈곱을 닦고 나서 갓난이는 저도 모르는 아버지의 빗값에 팔려 먼 곳에 부엌데기로 끌려 갔다고 말해 주었다.

윤복진의 두눈에서도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 졌다. 그후 윤복진네는 멀리 성밖으로 이사를 하였다. 새로 이사한 집은 자그마한 초가집이었는데 앞에는 대궐처럼 으리으리한 고대광실 큰 집이 솟아있었다. 그때 대구성안에는 잘 사는 지주놈들이 많았다. 그가운데서도 앞집은 만석군으로 소문난 큰 부자집이었다.

그놈의 집은 대문이 몇개나 되는지 몰랐다.

성문처럼 큰 대문을 열고 들어 서면 바깥문과 안문이 있고 중간문과 사랑문이 또 있다고들 하였다. 그놈의 집은 일년내내 진수성찬을 차려 놓고 거들먹거리며 호화롭게 살았다.

이른 새벽부터 고기를 굽고 지지는 냄새가 높은 담을 넘어 풍겨 오고 《분아, 순아, 선아.》 하고 연송 부엌데기를 찾는 소리가 들려 왔다.

밤이면 술판을 차려 놓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허 꼬부라진 소리와 함께 간드러진 기생들의 노래소리와 장고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어느해 여름이었다. 며칠째 내린 장마비에 그놈의 집 담장 한쪽 모서리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윤복진은 그때에야 지주집 부엌을 구경할수 있었다. 너렁청한 부엌에서는 부엌데기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눈코 뜰새 없이 돌아 치고 있었다.

장마가 그치자 지주놈은 개화장으로 무너진 담자리를 가리키며 이왕이면 담장을 한일자로 보기 좋게 쌓으라고 율러댔다. 그바람에 윤복진네 터발이 절반이나 똑 잘리우고 말았다.

높이 쌓은 밍고 미운 담장너머에서 부엌데기를 찾는 지주녀편네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 올 때마다 윤복진은 잊지 못할 소꿉동무-갓난이를 그려보곤 하였다. 그 애는 어느 부자집에 끌려 가서 죽을 고생을 다하고 있을가?

실아 있거나 한지...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길가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한 소녀를 보게 되었다.

그 모습이 신통히도 갓난이 같았다. 가까이 가보니 다행히도 아니었다.

윤복진은 그날 밤 집에 돌아 와 들창밖에서 흘날리는 차디찬 눈을 내다보며 동요 《쫓겨 난 부엌데기》를 썼다.

그는 울고 있었다

그날은 우리 작가들이 인민문화궁전에 가서 혁명영화 《혁명전사》(전편)를 처음으로 본 날이었다. 영화가 끝나자 《동요할아버지》는 나 보고 자기 집에 가서 한잔 마시고 가라고 하였다.

(오늘이 무슨 날이길래 그럴가? 생신날인가? 아니 그렇지도 않은데...)

나는 영문도 모르고 따라 갔다.

《동요할아버지》는 집에 들어 서자 바람으로 저녁상을 들어 오라고 하였다. 상우에는 보기만 해도 얼근해 지는 고려인삼술병이 놓여 있었다.

《동요할아버지》는 심장병이 있어 술이라면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날은 큰 고뿌에 부은 술을 반잔이나 쪽 들이켰다.

흥분에 들뜬 《동요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임자도 알고 있을테지. 영화의 주인공이 뜨거운 애국심을 담아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그 선율이 어떤 노래인지. 그 노래는 나의 동요 <고향하늘>에 나의 동향친구인 박태준이가 곡을 단것일세.

난 영화의 그 장면을 보면서 내내 울었네.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나서...》

나는 그제야 갑자기 마련된 술좌석의 사연을 알게 되었다.

(마침 잘되었구나. 그렇지 않아도 동요 《고향하늘》의 창작경험을 오래전부터 듣고 싶었는데...) 하고 생각하며 나는 그에게 그때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해 달라고 하였다.

그날 밤 《동요할아버지》는 시간 가는줄 모르고 동요 《고향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해마다 수많은 우리 겨레들이 살 길을 찾아 남의 나라로 떠나갔다. 주체14(1925)년 한해만 하여도 조국을 떠난 사람들이 25만명을 훨씬 넘었다. 그 시절에는 한마을에서 살던 소꿉동무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의례히 부모를 따라 현해탄을 건너 간것이었고 한반에서 공부하던 동창생이 없어 졌으면 두만강을 건너 북간도로 떠나 간것이였다.

윤복진네 집도 점점 조들려 갔다.

일제는 주머니끈을 꼬아 장마당에 내다파는 가내수공업의 자그마한 기계마저 제대로 돌아 가지 못하게 가로 막아 나섰다.

게다가 제1차세계대전을 전후로 하여 들이닥친 불경기바람에 그런대로 밥술이나 먹던 살림마저 가랑잎처럼 흩날리고 말았다.

집안어른들은 머리를 맞대고 앉아 살아 갈 길을 걱정하였다. 백발이 성성한 일흔이 넘는 할아버지는 《우리 집 형편에 공부가 당치 않다.

우리 대에 와서 한자책 한권이라도 뎌 사람이 있으면 좋기는 하련만...》 하고 말하고 나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았으며 《이제 한두해만 고생하면 중학을 마칠텐데 하나밖에 없는 손주가 아니심가.》 하고 하소연을 하였다.

윤복진은 열방에서 들려 오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너는 앓아서 듣고만 있을수 없었다.

(그러니 우리도 고향을 등지고 북간도로 떠나 가야 한단 말인가?)

윤복진은 울적한 마음을 달릴 길 없어 사립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발길 가는대로 걸었다. 그날 따라 고향의 푸른 산과 넓은 들이 더더욱 유정하게 보였다. 집앞을 감도는 작은 시내물도 《가지 말아, 가지 말아.》 하고 속삭이며 흐르는 듯하였다. 이 심정을 동요에 담아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불쑥 일어 났다. 직접 당하는 일이라 붓을 쥐면 단숨에 쓸것 같았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끝마칠것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그저 북받치는 흥분만 가슴 가득 차오를뿐이었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는 고향을 두고 노래한 시가 얼마나 많았는가. 고향집앞에 서 있는 한그루의 느티나무를 두고 읊은것도 있고 고향집 뒤뜰에 솟는 박우물에 대해 쓴것도 있다. 어디 그뿐인가. 고향의 넓은 들에 지는 황혼을 두고 노래한것도 있다. 내가 쓰려는 동요는 그와는 색다른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상도 양상도 표현도 새롭게 써야 할것이 아닌가.)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며 고개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새파란 하늘, 늘쌍 보던 고향하늘이 새롭게 안겨 왔다.

(저 하늘처럼 맑고 푸른 하늘이 이 세상 어디에 또 있을까?)

그는 그무렵에 세계 려행가들이 쓴 기행문을 많이 읽었다. 거기에는 하늘을 자랑한 대목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그의 머리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햇빛 밝은 이탈리아의 나뭇리하늘이 아무리 맑다 하여도 우리 하늘에는 비길수 없을것이다! 남아메리카의 가을하늘이 아무리 푸르다 하여도 우리 하늘에는 견줄수 없을것이다!)

사색은 꼬리를 물고 한결음한결음 더 깊이 갔다.

(왜놈들이 제아무리 미쳐 날뛰어도 우리 하늘을 빼앗을수 없다. 저 하늘은 우리 겨레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어 있는 내 고향이요, 내 조국이다. 그렇다면 누가 저 하늘을 제일 사랑하고

그리워하겠는가. 그것은 남의 하늘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일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서정적주인공은 조국을 떠난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머나먼 이역땅에서 나의 서정적주인공은 고향하늘을 그리 보며 하고 싶은 말이 많을것이다. 그러니 나의 동요는 길어질수 있다. 길어 지건 짧아 지건 써놓고보자.)

윤복진은 논두렁에 앉아서 북받쳐 오르는 시정을 《고향하늘》에 담았다.

푸른 산 저너머로 멀리 보이는
새파란 고향하늘 그리운 하늘
언제나 고향집이 그리울 때면
저 산 넘어 하늘만 바라봅니다

동요는 생각했던것과는 달리 너무나도 짧아 졌다. 어디인지 채 말하지 못한것이 남아 있는듯하였다. 그래서 몇번이나 다시 읽어 보았다.

아무리 읽어 보아야 시로써 할 이야기는 다 하였다고 생각되었다.

(그대로 두자. 짧은 동요에 많은 이야기를 담을수야 없지 않는가. 령리한 독자들은 시행과 시행사이에 묻어 둔 뜻을 리해해 줄것이다. 그래야 시적여운도 줄수 있다.)

그는 처음에는 동요의 첫 머리를 《푸른 산》으로 하지 않고 《백두산》으로 떼었다.

그때 두만강에 피눈물을 뿌리며 북간도로 떠나간 사람이나 관부련락선을 타고 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간 사람이나 그 누구 할것 없이 백두산을 바라보며 내 고향, 내 조국의 앞날을 그려 보곤하였기때문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가혹한 검열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검열관놈은 언제나 말썽을 부리며 트집을 잡기 좋아 했다. 아무렇지도 않은 표현을 가지고도 심술을 부리며 시비를 걸고 생억지를 부리곤하였다. 언제나 신경과민중에 걸린 사람처럼 미쳐날뛰는 놈들이 《백두산》이라는 표현을 가만 돌리 만무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푸른 산》이라고 쓸수밖에 없었다.

주체15(1926)년 동요 《고향하늘》이 발표되자 여러 작곡가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선율을 붙여 보내왔다. 두해가 지난 뒤였다.

윤복진은 일본으로 가려고 도항증을 내기 위해가기 싫은 경찰서출입을 하게 되었다.

여우같이 교활한 대구경찰서 고등계주임놈은 차마 입에 담을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다.

《...우리는 대구소년회때부터 네놈을 주목해 왔다. 어린 놈이 그때부터 매일사상이 강했다. 민요 <우리의 마실>을 비롯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노래를 적지 않게 썼지. 그리고 두해전에는 고향을 노래하는척 하면서 조국을 노래했지. <푸른 산>이 무슨 산이냐? 그것은 백두산을 두고 하는 말이지? 우리가 모를줄 아느냐? 그리고도 무슨 럽치로 도항증을 달라고 손을 내밀어? 너 같은 놈은 공부를 하면 더 나빠 질수 있다. 어디 한번 된매를 맞아 보아야 정신이 들겠는가?》

윤복진은 주먹을 짹 틀어 쥐었다.

참을수 없는 분한 생각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으나 그 자리에서 당장 어찌할수 없었다.

그 이듬해에야 겨우 현해탄을 건너 갈수 있었다. 윤복진은 도쿄에서 고학을 하면서 없는 시간을 짜내어 조선인류학생회가 운영하던 야학들을 찾아 다니며 우리 말과 우리 글을 가르쳤다.

빈민굴로 소문난 후구가와 혼쪄, 스미다가와 마라기와기슭에 가면 재일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들의 생활은 차마 눈 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였다. 윤복진은 재일동포들과 그 자녀들에게 새로 나온 우리 나라 노래도 배워 주었

는데 동요 《고향하늘》은 이미 그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 있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언제인가 인민대학습당에 가서 동요 <고향하늘>이 실려 있는 옛 노래집을 본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2절과 3절이 있었습니다. 2절에는 고향을 떠나온지 그 몇해이던가, 저 하늘만 바라보면 가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저 있고 3절에는 울고 있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박꽃 피는 고향집을 그려 본다는 내용이 담겨 저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동요할아버지》는 자기는 2, 3절을 쓴적이 없다고 하면서 그건 보나마나 인민구두창작일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때로부터 얼마 안 있어 전국작가강습이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는 한 외국 영화를 보게 되었다. 영화에는 조선의 빨찌산들이 천고밀림속에서 조국을 그려 보는 장면이 있었다.

그들은 총을 들어 잡고 아름답드리나무에 기대 선채 추억에 잠겨 동요 《고향하늘》을 독창과 합창으로 여러번 반복하여 불렀다.

마침 나는 《동요할아버지》결에 앉아 있어서 실례가 되는줄 알면서도 슬며시 고개를 돌리고 그를 쳐다보았다. 어두워서 얼굴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높아 가는 숨결소리와 《후-》하고 흐느끼는 소리만은 푹푹히 들을수 있었다.

그는 걱정애 못 이겨 울고 있었다.

두가지 질문, 두가지 대답

최근에 문학예술출판사에서는 《계몽기가요선곡집》(주체88년판)을 출판하였다.

노래집에는 윤복진의 주옥 같은 작품들이 12편이나 들어 있다. 이것만 놓고 보아도 《동요할아버지》가 우리 나라 현대 아동시문학사에 얼마나 큰 자욱을 남겼는가를 넉넉히 짐작할수 있다.

그런데 나는 이 노래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질문을 받게 되었다.

하나는 《동요할아버지》의 손녀로부터 받았다.

얼마전에 나는 《동요할아버지》의 자서전도 다시불검 유가족들을 만나보고 싶어 그의 집으로 찾아 갔다. 이제는 허리가 굽어 할머니가 된 부인이 반가와 하며 어서 들어 오라고 손목을 잡아 끌었다. 자리에 앉기 바쁘게 그동안 몰라 보게 자란 《동요할아버지》의 손녀가 밀도 끝도 없이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선생님은 김귀환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겠지요?》

《김귀환? 듣던 이름이긴 한데...》

나는 너무나도 갑자기 들이 대는 물음인지라 선뜻 대답해 주지 못했다.

그러자 손녀는 뽀로통해서 토달거렸다.

《선생님도 모르시누만요. 그 사람이 누군지 꼭 찾아 내야 해요. 그 사람은 우리 할아버지의 동

요를 도적질한 나쁜 사람이야요.》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손녀는 옷방으로 올라 가 《계몽기가요선곡집》을 가지고 내려 왔다. 펼치더니 《이것 보세요. 동요 <동네의원>은 우리 할아버지가 쓴건데 작사 김귀환이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하고 말했다.

나는 노래집을 보고 나서야 무슨 영문인지 일아차리고 푹푹한 대답을 줄수 있었다.

《김귀환이라는 이름은 너의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쓰시던 필명이란다.》

그날 나는 집에 돌아 오자마자 책장안에 깊이 넣어 두었던 작가수첩을 꺼내 들고 펼쳐 보았다.

《동요할아버지》의 손녀에게 다시 와서 너희 할아버지가 동요 《동네의원》을 어떻게 썼는지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왔기때문이었다. 한참동안이나 뒤적거려서야 《자료》를 찾아 냈다. 기억에는 길게 적어 둔것 같았는데 정작 찾아보니 몇줄 되지 않았다.

...어느해 봄, 윤복진은 양지바른 담장밑에 세 아이가 모여 앉아 소꿉놀이하는것을 보게 되었다.

한 아이는 흙가루를 붓고 한 아이는 풀이파리를 모으고 다른 한 아이는 마른 솔잎을 골라랐다.

세아이는 의원놀이를 할 차비를 하고 있었다. 윤복진은 한참동안 서서 의원놀이를 구경하였다. 솔잎침을 놓는 아이 보고 네 이름이 무엇이나고 물어보니 차돌이라고 대답했다.

윤복진은 집에 돌아 와 세 아이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 보며 동요를 쓰기 시작했다.

우리 동네 차돌이

의원이라오

동네안에 이름난

의원이라오

앞담밑에 흙 파서

가루약 지어

풀이파리 따다가

싸서 주어요

여기까지는 제껴 썼다. 그러나 아직 그 무엇인가가 없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어슴푸레 느껴 지기는 하였으나 뽀얀 안개속에 가리워 잘 보이지 않았다. 그 무엇이 없으면 어린이들의 의원놀이를 아무리 아기자기한 말로 재미나게 노래한다 해도 시가 되지 않는다. 작은 유년동요에도 시대정신이 비친 새로운 시적발견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나래쳐야 시의 높은 경지에 오를수 있다.

윤복진은 며칠동안 모대겨서야 다음 련을 전개시켜 나갈수 있었다.

동네애들 병나면

솔잎침 놓고

약 한봉지 써주면

당장 나아오

그래도 맘 좋은
우리 차돌이
약값 한푼 안 받는
의원이라오

《약값 한푼 안 받는 의원》이라는 걸구를 찾아냈을 때의 기쁨이란 이루 다 말할수가 없었다.

동요 《동네의원》은 주체16(1927)년에 창작하여 김귀환이란 가명으로 신문에 발표하였다... 나는 김귀환이란 이름을 두고 이런 생각을 하였다.

《동요할아버지》의 손녀조차 모르고 있는데 어느 독자들이야 어떻게 알수 있겠는가.

알고 있는 독자들보다 모르고 있는 독자들이 더 많을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요 《동네의원》의 작가가 누구인지 혼돈을 가져 올수 있다.

나는 이 책의 편찬성원들에게 앞으로 다시 재판할 때 이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제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작사 윤복진》이라고 명백히 밝혀주던가 불가피하게 원전 그대로 두는 경우에는 꼭 주해를 달아 달라고...

다른 하나의 질문은 어느 한 젊은 작가로부터 받았다. 그는 《계몽기가요선곡집》에 들어 있는 윤복진의 가사 《방아찢는 색시의 노래》가 동요인가 신민요인가고 물었다.

나는 신민요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책에는 왜 신민요편에 넣지 않고 동요편에 넣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그렇리 없겠는데...》 하고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며 나는 혹시 그가 잘못 본것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차례를 살펴 보았다.

분명히 동요편에 들어 있었다. 나는 가사를 두세번 꼼꼼히 읽어 보았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근거를 알아 낼 길이 없어 젊은 작가에게 두리몽실하게 말해 줄수밖에 없었다.

《이 가사의 서정적주인공은 기껏해야 열여섯살 난 애젊은 색시일거야. 그때는 조혼시대였으니까 그보다 더 어렸을수도 있지. 그러니 요새 말로 말하면 사춘기노래라고 할수 있지, 모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편찬성원들이 편의상 동요편에 넣었겠지. 그리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그쯤 알고 넘어가자구. 어쨌든 이 가사는 동요가 아니야. 그 언젠가 윤복진선생은 이 노래에 대해서도 말해 주었네. 그 이야기를 들려 줄테니 들어 보라구.》

윤복진이 열여섯살 나던 해였다. 외가컨으로 먼 친척별 되는 한 젊은이가 흑가이도탄광으로 돈 벌러 가던 길에 잠시 그의 집에 들린적이 있었다. 젊은이는 늙은 부모와 젊은 안해를 홀로 두고 떠나자니 발길이 떨어 지지 않더라고 하면서 돌아 앉아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윤복진은 젊은이가 당하는 고통이 어쩐지 남의 일같이 생각되지 않았다.

그후 젊은이는 한두번 소식이 오고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오래동안 편지 한장 보내지 않았다.

바로 그무렵에 어느 한 신문사에서 윤복진앞으로 농촌녀성의 세태생활을 그린 작품을 써보내달라는 청탁이 왔다. 그는 며칠동안 밤 길도록 잠 못 들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거리며 궁리하고 또 궁리했다.

(세태생활이라... 무슨 내용을 어떻게 썼으면 좋을가?)

아무리 모대겨야 시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릴수밖에 없었다. 체험된 생활도 없이 허공 중에서 시를 찾자니 점점 더 막연해 지기만 하였다. 바로 그때 한해전에 자기 집에 다녀 간 그 젊은이 생각이 났다.

(갓 시집 온 그의 젊은 안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언젠가 어머니한테서 그 색시는 인물도 곱지만 노래도 잘 부른다는 말만 들었을뿐 만나본 적은 없었다. 그렇지만 그의 머리속에는 이런 광경이 선히 떠올랐다. 세월은 한해 두해 흘러 가는데 집을 떠난 남편은 돌아 오지 않고 웬일인지 요새 와서는 소식조차 끊어 지고 말았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해만 뜨면 사립문을 열고 집앞으로 뻗은 신작로를 바라보며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릴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꽃 피는 봄도 지나가고 잎 떨어지는 가을이 온다. 추석명절을 하루 앞둔 밤 그는 무엇을 할가? 쿵덕쿵 떡방아를 찢으며 밝아오는 둥근 달을 하염없이 바라볼것이다.

그의 눈에는 서러운 눈물이 고이고 그의 가슴에는 한 없는 그리움이 가득차 오를것이다.

됐다! 그의 심정을 그대로 민요에 담아 보자.

그는 노래 잘 부르는 쾌활한 색시라고 했지.

그러니 어떻게만 그러서는 안된다. 눈물이 있으면서도 밝게 그려야 한다...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 난 윤복진은 《방아 찢는 색시의 노래》라는 제목을 달고 1절과 2절을 단숨에 썼다.

팔월이라 열사흘밤 달도 밝구나
우리 랑군 안 계셔도 방아를 찢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햇쌀을 찢어서 무엇하나

북해도라 석탄광은 길기도 하지
우리 랑군 십년세월 석탄만 파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석탄만 파며는 무엇하나

3절에는 무슨 내용을 담았으면 좋을가.

그때 그가 살던 마을에는 한 젊은이가 3년세월

석탄을 파서 돈을 많이 벌어들였다는 소문이 짜하게 돌았다. 사실은 빈 손으로 돌아 온것인데 누구인가 죽을줄 알았던 사람이 선행으로 살아 온것이 너무도 신통하여 헛소문을 크게 냈던것이다.

그 소문을 그 녀인도 들었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썼다.

아래마을 순이 애비 꿀은 못나도
삼년세월 석탄만 파서 돈 벌어 왔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논 사고 밭 사고 집을 짓네

이제는 끝을 맺어야 하겠는데 붓을 놓을수가 없었다. 그러니 어쩔단 말인가. 방아 찧는 색시의 주장이 나와야 할것이 아닌가.

그는 오래동안 생각하던 끝에 다음과 같이 한 절을 더 썼다.

사람 잘난 우리 랑군 언제 오련고
돈은 한일 못 모아도 돌아 올게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님없이 청춘만 늙어 가네

윤복진은 자기가 쓴 민요를 소리내어 읽어 보았다.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나 어린 소년이 사랑노래를 지었다고 누구인가 놀려 줄것 같아 쑥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발표할가 말가 하고 망설이다가 김수향이라는 필명으로 신문사에 보냈다. 그후 얼마 안 있어 윤복진은 서울길을 다녀오게 되었다. 그는 빠고다공원앞을 지나다가 작곡가 홍란파를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 맞은편에 있는 종로빌딩으로 들어 갔다. 홍란파는 반갑게 맞아 주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다.

윤복진은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 했다.

문학을 전공하면서 음악공부도 자습으로 열심히 하여 음악에 대한 글을 지상에 적지 않게 발표하였다. 그것이 연고가 되어 홍란파와 사귀게 되었던것이다. 홍란파는 인사를 나누자마자 그의 손을 잡고 피아노앞으로 갔다.

《이 노래는 며칠전에 새로 작곡한것인데 한번 들어 보고 조언을 주게.》

홍란파는 조용히 피아노를 치면서 민요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 민요는 뜻밖에도 《방아 찧는 색시의 노래》였다. 윤복진은 구슬프면서도 밝은 색깔을 담고 있는 멋들어 진 민요가락에 심취되어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기만 하였다.

《어떤가?》

《좋구만. 내 마음에 꼭 드네.》

그러자 홍란파는 자못 흥분된 어조로 이 가사는 얼마전에 신문에 발표된것인데 어찌나 마음에 들었는지 앉은 자리에서 악상이 떠올라 즉흥적

으로 작곡하였노라고 자랑하였다. 그러면서 김수향이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다.

윤복진은 그저 웃으며 뒤머리만 긁적거리다가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말머리를 돌려 반주곡까지 한통 베껴 갈수 있겠는가고 물었다.

홍란파는 오래간만에 만난 기념으로 준다고 하면서 자기 손으로 정성껏 베껴 주었다.

윤복진은 고향에 돌아 와서 홍란파앞으로 김수향은 나의 필명이라는것을 밝히고 그때 하지 않았던것을 사죄한다는 내용을 담은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민요 《방아 찧는 색시의 노래》는 세상에 발표되자 널리 퍼졌다. 녀성합창으로 《빅타》소리판에 취입한후에는 더욱 유명해 졌다.

명사십리를 거닐며

(명사십리를 한번 보았으면...)

이것은 《동요할아버지》가 중학시절때 늘 가슴속에 품고 다니면 꿈이었다. 그때 원산에는 원산중학교에 다니면서 동요창작에 전념하고 있던 리정구를 비롯한 여러명의 시인들이 있었다.

리정구는 명사십리도 구경할겸 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고 하면서 여름방학에 한번 오는 편지를 여러번 보내여 왔다.

그러나 종시 갈수가 없었다.

대구에서 원산까지는 천리도 넘는 먼 길이었는데 차비조차 마련할 길이 없었기때문이었다.

주체19(1930)년 여름에야 이처럼 바라던 명사십리를 구경할수 있게 되었다.

해가 뉘엿뉘엿 저 가는 저녁이었다.

윤복진은 여럿이 같이 가면 시를 쓰는데 방해가 될것 같아 혼자서 갈마반도로 갔다.

어느새 황혼이 깃들어 인적 드문 명사십리는 고요하였다. 하얀 모래밭으로 한참 걸어 가니 우뚝 서 있는 패말이 나타났다. 거기에는 《외인출입금지》라는 글이 써여 저 있었다.

넓은 모래밭에는 울타리도 없고 대문도 없었다.

저 멀리에 외국선교사들의 별장이 드문드문 바라보였다.

(흥, 누가 주인인데 이따위 패말까지 꽃아 놓았어? 왜놈들한테 나라를 먹힌것만도 통분한 일인데 코 큰 놈들까지 기여 들었구나. 명사십리를 무슨 조차지나 조계지처럼 여기는 모양이지...)

윤복진은 기분이 잡쳐 돌아 가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럴수 없었다.

그럴수록 내 조국의 아름다움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었고 우리 나라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 주고 싶었다. 그는 다시 모래밭을 거닐기 시작하였다. 동해의 푸른 불길은 잠시도 쉬지 않고 들며 나며 그윽한 향기를 한껏 풍기고 있었다. 어디서 날아 왔는지 이름 모를 물새 한마리가 물가에 내려 앉아 종종걸음을 쳤다.

그는 명사십리의 아름다운 풍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노을 비친 저녁하늘, 붉게 핀 해당화, 어여쁜 물새... 눈에 보이는 모든것을 하나도 빼 놓지 않고 다 노래하고 싶었다.

그러나 쓸수 없었다. 시정은 북받쳐 오르는데 동요의 룹락은 떠오르지 않았다.

왜 그럴까? 한참만에야 자기가 지내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저것들이 모두 동요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의 화폭에 다 담을수 있겠는가. 그렇게 못할바에야 여러편 써서 동요초를 묶어 불가 하고도 생각하였다.

(아니야. 명화가는 점 하나를 가지고도 천가지, 만가지를 보여 주지 않는가? 그 묘리가 무엇인가?... 동요의 초점이다. 새로운 시상을 찾아야 한다.)

윤복진은 다시한번 명사십리를 돌아 보았다.

그의 눈에 모래불에 새겨져 있는 물새발자국이 안겨 왔다. 물새발자국은 참으로 이쁘고 귀여웠다. 그것은 머나먼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아름다웠다. 바다물이 사르르 밀려와 이쁜 자욱을 어루만지는가 하면 지나가던 실바람이 발걸음을 멈추고 어루만져 보았다. 마치 서로 먼저 어루만져 보겠다고 다투거나 하듯이...

그런데 갈마반도의 나어린 주인들은 어디로 갔는가. 해가 저서 집으로 자러 갔는가.

아니, 원한의 저 패말이 꽃혀 쫓겨 났다.

억울하게 쫓겨 나긴 했어도 그 아이들의 작은 가슴에는 물새발자국이 크게 새겨져 있을것이다.

왜냐하면 저것은 못 잊을 내 고향이요, 내 조국이기때문에... 이쯤 생각하니 가슴속에 한 시상이 뿌리 내리고 거기서 싹이 돌아나 잎이 피기 시작하였다. 속소도 돌아온 그는 물새발자국을 눈앞에 그려 보며 동요의 초고를 썼다.

우정 추고를 하지 않고 일단 덮어 두기로 하였다. 원산에서 서울로 가는 차칸에서 새로운 눈으로 들여다 보며 다듬고 또 다듬었다.

윤복진은 동요를 추고하면서 재능 있는 우리나라 옛 시인들이 남긴 《천의무봉》이라는 말을 거듭 생각하였다. 이 말은 시는 하늘나라 옷마냥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바늘이 간 자리를 찾아볼수 없도록 써야 한다는것이다.

자기도 그렇게 쓰고 싶었다.

대담하게 쓴 함축도 무리가 가지 않게, 의도적으로 쓴 반복수법도 지루하게 느껴 지지 않게, 알맞는 시어들도 제 자리에 박혀 시정이 아름다운 운율을 타고 흐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렇게 완성하였다.

해 저문 바다가에
물새발자국
바다물이 사르르
어루만져요

고 발자국 이쁘다
어루만져요

하이얀 모래불에
물새발자국
지나가던 실바람이
어루만져요
고 발자국 귀엽다
어루만져요

윤복진은 군더더기가 없이 아주 깨끗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흐뭇하였다.

다시 읽어 보니 명사십리라는 지명을 밝히는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스스로 고개를 흔들었다.

이러한 아름다운 바다서정은 우리 나라의 바다 가라면 그 어디서나 찾아볼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 오히려 밝히지 않는것이 좋을것이다.

그래야 많은 독자들이 부를수 있을것이라는 주장이 생겼기때문이었다.

윤복진은 동요 《물새발자국》을 조선일보사에서 발행하던 잡지 《조광》 편집부에 주었다.

이 동요도 발표되자마자 작곡이 되어 널리 불리워 졌다.

물새찬가

주체20(1931)년 봄 윤복진이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에서 창작활동을 벌리고 있던 때였다. 어느날 그는 조선에 갔다온 한 친구로부터 가슴 뛰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은 백두산마루에 장군별이 높이 솟았는데 피 끓는 조선의 젊은 용사들이 장군별두리에 구름같이 모여 든다는것이였다.

그 친구는 두만강류역에 있는 친척집에 갔다가 들었다고 하면서 《백두산에 별이 솟네 장군별이 솟네》라는 노래를 들려 주었다.

그는 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을수 없어 몇몇 친구들에게 자기가 들은 소식을 전해 주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은 쉬쉬 하면서 왜놈들의 귀에 들어 가면 손에는 쇠고랑이 울고 목에 칼이 들어 온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신이 나서 쑤군거렸다.

나래 돋친 이 소식은 삼시에 도쿄와 요코하마, 가나가와현 등 재일동포들이 살고 있는 일본 각지로 날아 갔다. 그의 가슴은 환희와 걱정으로 설레었다. 어떻게 해서라도 백두산장군별과 그 용사들을 찬양하는 동요를 써야겠다는 욕망이 불같이 일어 났다. 그러나 서둘러 붓을 잡을수 없었다.

일제는 국내는 물론 국외에까지 물 썰틈 없는 감시망을 퍼놓고 총칼로 우리 겨레의 눈과 귀를 틀어 막으려고 미쳐 날뛰고 있었다.

놈들은 특히 출판물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는 어떻게 하면 놈들의 눈길을 감쪽같이 속여 넘길수 있는 백두산에 대한 동요를 쓸수 있을가 하고 오래동안 궁리하였다.

어느덧 겨울이 왔다. 그날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린 추운 날이었다. 윤복진은 눈 덮인 산발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였다.

(백두산에는 얼마나 많은 눈이 내렸을가. 빨찌산들은 눈속에서 나무잎을 덮고 자며 풀뿌리로 끼니를 에우겠지. 그러자니 고생인들 오죽하랴.)

동요에 그들의 생활을 담고 싶은 심정은 절절하였지만 그대로 노래할수 없는것이 안타까웠다.

왜놈들을 속여 넘기려면 상징과 은유의 수법으로 쓴 의인화된 세계를 펼쳐야겠는데 신통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오랜 신고 끝에 백두산을 《흰 눈 첩첩 저 산》으로 표현하고 우리 겨레가 애 타게 갈망하는 광복의 날을 《꽃 피는 새봄》으로 표현하기로 하였다. 잘만 쓰면 어린 독자들이 련상할수 있다는 신심이 생겼다.

그렇다면 춥고 추운 겨울에 누구보다도 꽃 피는 새봄을 앞당겨 오기 위하여 앉아서 기다리지만 앉고 앞장 서서 날고 있는것이 무엇일가?

그것은 나비일수 있다.

그러나 나비는 곱기는 하지만 너무 연약하다. 옳지, 산새이다. 산에 사는 산새는 작아도 얼마나 강한가. 사나운 눈보라가 기승을 부려도 봄맞이 뜻을 굽히지 않고 앞서 날며 노래를 부른다.

장한 산새를 뜨거운 동정심을 불러 일으킬수 있게 그려 보자. 그러면 독자들은 그 산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것이다. 그러다가 그 산새가 백두산의 산새-장군벌님의 용사들이라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윤복진은 《산새는야 춤졌네》라는 제목을 달고 동요를 써내려 가기 시작하였다.

산새는야 춤졌네
정말 춤졌네
흰눈 첩첩 저 산에서
어떻게 사나

산에 사는 저 새는
불새인가 봐

여기까지 쓰고 나서 《불새》라는 표현을 두고 오래동안 생각해 보았다. 써도 일 없을가.

검열관놈들의 의심을 사지 않을가.

다른 표현을 골라 봤지만 이보다 더 적중한 단어를 찾아 낼수 없었다.

우리 나라 옛말에 자주 나오는 《불새》라는 말은 굳센 산새의 표상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적중한 표현이었다.

그래서 고치지 않고 계속 써내려 갔다.

산새는야 춤졌네
정말 춤졌네

꽃 피는 새봄은
언제 오려나

기다리는 우리 봄아
어서 오려마

윤복진은 두련밖에 안되는 짧은 동요에서 《산새는야 춤졌네 정말 춤졌네》를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썼다. 그것은 어린 독자들의 가슴속에 고생하는 산새의 표상을 강하게 새겨 주자는데도 있었지만 중요하게는 자연이 새인듯이 강조해 줌으로써 일제검열관놈의 눈을 가리워 보자는데 있었다. 동요를 추고하고 다시 읽어 보니 너무나도 상징적으로 써서 어린 독자들이 그 뜻을 리해해 주겠는지 몹시 우려되었다. 좀 더 명백하게 써보려고 모대겨 보였지만 다른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는수없이 어린 독자들의 상상에 맡겨 두기로 하였다. 윤복진은 동요를 국내신문사에 보내놓고도 검열에 걸리지 않을가 하고 혼자서 마음을 조였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무런 말썽도 일으키지 않고 신문지상에 빠졌이 발표되었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편집원의 고충과 수고가 컸기때문에 나갈수 있었다.

반영을 들어 보니 적지 않은 독자들이 동요에 숨겨져 있는 뜻을 리해하고 있었다.

윤복진의 기쁨은 말할수없이 컸다.

그토록 쓰고 싶던 백두산에 대한 동요, 불새찬가를 끝내 써내고야 말았다는 궁지감이 가슴 뚫듯이 차올랐다.

보천보전투가 있는 뒤

주체26(1937)년 6월 4일, 갑자기 어두운 밤하늘에서 천둥소리가 울리고 날벼락이 떨어 지듯 보천보전투가 일어 났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님께서 지퍼 올리신 보천보의 불길은 조선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며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고 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일제놈들은 어리석게도 이 사건을 비밀리에 묻어 두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그러나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 타번지는 불길을 가로막을수 없었다.

그무렵에 우리 어린이들도 통쾌한 보천보싸움 소식을 듣고 신이 나서 왜놈치는 군사놀이를 더욱 씩씩하게 하였다.

윤복진은 그들의 심정을 노래한 동요를 쓰고 싶었다. 그러자면 보천보라는 말을 써야 하겠는데 그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였으며 불가능하였다.

아무리 궁리해야 에둘러 쓸수밖에 없었다.

그해 가을, 윤복진은 어린이들이 사이다병마개

를 뽑아 앞가슴에 달고 무슨 큰 공이나 세운것처럼 우쭐렁거리며 군사놀이를 하는것을 보게 되었다. 그때는 사이다도 혼하지 않았다.

사이다값이 이만저만 비싸지 않았고 웬만한 사람은 마실념도 못했다. 그래서 우리 어린것들은 어쩌다가 사이다병마개를 하나 얻게 되면 무슨 보물을 얻은것처럼 기뻐 했다.

너자애들은 소꿉놀이를 할 때 꽃접시나 은종지로 썼으며 사내애들은 군사놀이를 할 때 공패로 여겼다. 공패라는 말은 오늘 말로 훈장이라는 뜻이다. 윤복진은 사이다공패를 앞가슴에 달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앞장서 가는 《대장》 아이를 보는 순간 저 아이의 자랑을 통하여 보천보전투후 달라진 우리 어린이들의 정신세계를 담은 동요를 써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빛나는 사이다공패》라는 제목을 달고 동요를 쓰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서정적주인공을 《나》로 하고 자기 자랑을 노래 불러 보았다.

그 내용이 진실하게 안겨 오지 않았다.

아무리 철 없는 어린이라고 하여도 자기가 한 입을 자기 입으로 자랑하니 어색해 지고 자칫하면 웃음거리로 될수 있었다.

그러므로 서정적주인공을 《우리 동생》으로 바꾸었다. 그제야 동요가 순탄하게 흘렀다.

우리 동생 앞가슴에
빛나는 공패
사이다병마개로
만든 공패지요

원쑤치는 대장놀이
잘도 했다고
동네방네 꼬마들이
달아 준게지요

우리 동생 앞가슴에
빛나는 공패
밤에도 떼지 않고
달고 자지요

윤복은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히 하지 못하고 빙빙 돌들면서 쓰자니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그 시절에는 세살 나는 어린 아이도 《원쑤》라면 《왜놈》으로 여기고 있었기때문에 《원쑤치는 대장놀이》라고 표현하였다.

왜놈치는 싸움에서 큰 공 세운 어린 대장의 자랑도 그대로 쓸수 없었다.

귀여운 동심에 빙자하여 일제검열관의 눈은 속

이기 위하여 빛나는 공패를 밤에도 떼지 않고 달고 잔다는 식으로 보여 주었다.

동요는 발표되자마자 작곡이 되어 《포리틀》소리판에 취입되었고 방송에도 여러번 나갔다.

그는 붓을 꺾었다

날이 갈수록 강도 일제놈들은 피 묻은 식민지 울가미를 더 바싹 졸라 댔다. 놈들은 조선을 지구상에서 영영 없애 버리려고 별의별 악착한짓을 다하였다. 조선의 냇, 민족의 냇이 깃들어 있는 우리 말과 글을 사회생활에서는 물론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일체 쓰지 못하게 하였다.

나중에는 조상대대로 물려 온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고치라고 강박하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일제놈들은 어리석게도 《대동아공영권》의 공패를 꿈 꾸며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조선의 청장년들을 대포밥으로 내몰았다.

윤복진은 일제의 침략전쟁을 반대하여 유년동요 《술일침》을 창작하였다. 동요는 나 어린 서정적주인공이 그림책에 나오는 《누른 병종》(왜놈병정을 의미하는 은유적인 표현임)을 두눈을 부릅뜨고 쏘아 보며 함부로 총질 탕탕 하면 되겠느냐고 꾸짖으면서 정 그러면 술일침을 한대 놓겠냐고 울러메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동요는 그가 일제시기 마지막으로 발표한 작품이다. 윤복진은 주체29(1940)년에 들이 서면서 붓을 꺾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작가로서 붓을 꺾는것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피로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다.

우리 말과 우리 글로는 동요를 쓸수 없었기때문이었다. 일본말과 일본글로 쓸바에는 차라리 지기 손으로 붓을 꺾는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였다. 주체32(1943)년 가을, 《동요할아버지》는 강원도 화천군의 깊고 깊은 산골로 들어가 유령광산에서 사무원노릇을 하였다.

사랑하는 부모처자가 있는 고향을 멀리 떠나 홀로 살아야 했던 그 나날은 그의 일생에서 가장 암담한 시기였다.

그는 신문도 잡지도 라디오도 없이 세상을 등지고 어두운 귀틀집에서 은거생활을 하였다.

저녁이면 가물거리는 광술불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곤 하였다.

《새봄아, 새봄아, 꽃 피는 새봄아, 어서 오려마.》

(다음호에 계속)

총과 미래 외 2 편

김정곤

미래는
손에 잡히지 않는
어디 먼곳에 있지 않습니다

미래는
어머니젖꼭에 안긴
아기의 보조개에 피어 있습니다

미래는
출근길에 오른 활기찬 걸음
옷자락 스치는 소리에도 흐릅니다

미래는
철갑모 눌러 쓴 방선의 초병

그 총창우에 열려 있습니다

보십시오
총창끝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아기의 눈동자에 담긴 파란 하늘
그 하늘에 한점 흑점이 얼룩이여도
서리발 뿜는 총창!

그우에 흐르는 하늘이
그래
미래가 아니란 말입니까!

억천만번 죽더라도

《동무들아 준비하라
손에다 든 무장》
피 타는 마디마디가
우리 군대 행진가에
총의 격침처럼 박혀 있다

노예로부터 주인으로
굴욕으로부터 존엄으로
총대가 울려 세워 준 운명들이
침략자와 결사전을 치르자고
선군의 날창을 꽂아 틀어 잡은 총

병사만이 잡은 총이 아니다
아이들도 철이 들면
붉은청년근위대의 전투모를 쓰고
없드렷 총을 하고
처녀들도 로농적위대 궁지 넘쳐
의젓한 모습으로 가슴 부푼다

회상기 갈피를 번지면
-동지들 이 총을 받아 주
지금도 그 웨침소리 가슴을 두드리고
중기의 압철을 턱으로 누른 영웅은

교문앞에서도 《탄약을 채우라》 부르짖는다

총이자 자주머 권리이고
총이자 운명이고 미래
목숨우에 총이 있다
그래서 목숨은 버리어도
총만은 불안고 넘겨 주는것이 이 땅의 혈통

아아!
총과 운명이 하나의 동체가 되어
숲처럼 일떠선 총대의 조국
맞선 원쑤가 억천만이라 하라

억천만을 손을 짚어 세이면서라도
마지막 한놈까지 갈겨 치우는것이
우리 총대의 체질이며 성격!

그래서 우리는
행진가의 후렴구에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고
목숨 같은 맹약을
총신강처럼 감아 놓았다

로병의 말

한전호에
함께 었디여 있던 전우들
다들 어디 갔는가

총을 놓고
제대증을 받으며
누가 말했던가

홍안의 시절 군복을 입고
머리 희도록 복무하면서
이 무슨 꼴인가
원썩을 코앞에 두고
이렇게 제대되다니...

총을 놓으니
이대지도 늙음이 빨리 오는가
육박해 오는 적이라면
총창으로, 총알로 답새길테지만
발뼉발뼉 소리없이 오는 늙음을
무엇으로 막아 낼수 있단 말인가

무엇을 숨기랴

구배길 좀 뛰여 올라도
목에 겨붙네가 뽀는것을

로병에게야
무슨 제대증이 또 있으랴만
신군시대 로병칭호
번쩍이는 훈장들이 지켜 준다던가

전우들아
마음을 달려 자주 찾아 가 서보게
총을 세웠던 중대의 총가자리
그리고 옛 총번호를
신병처럼 또랑또랑 외워 보게

그러면
봄비 맞은 풀잔디인듯
젊음이 되살아...

총을 다시 잡아 보고야 알았다네
총이 곧
젊음이 아니었던가!

추억 외 1편

인생의 수레우에,
꽃보라 이고 온 길은 잇는다 해도
원썩의 철조망에 살점을 뜯기우며
배밀이 한치 땅을 손톱으로 긁던
결사의 언덕을 나는 못 잇어

탄우속 그 언덕에서
철조망 한기장에 꽃나이 열아홉살을 덮으며
-나를 딛고 앞으로
그 한마디로 생을 마친 전우

살아 웨치는 그 녀이
못 다 넘은 철조망에 었디여 있거니
최고사령관기 머리우에 인 이 마음에
추억은 로병의 장탄이런가

못 다 죽인 원썩을 두고는
잊을수 없는 그 부름앞에
내 삶이 부끄러운
아 로병의 추억이여

탄 창
전쟁에선 삶과 죽음을
탄알로 계산하기에
배는 뚫을 때 있어도
탄창은 채웠더라

전사의 맥박 탄알로 세기에
한몸 부서져도
입에 문 증기압철
파녀를 놓친적 없더라

눈섭 한오리 무거울 때도
실밥 한오리 덜고 싶을 때도
탄약상자 뺏아 지던 진격의 길
결사의 날개 달아 준 탄창이여

내 하고 싶은 말
탄알에 살고 탄알에 죽을수 있어도
마지막탄알로 축포를 쏘기전엔
멸적의 답을 끝 맺지 말라

권태여

목에 부치는 편지

박혜란

광주교도소 김××선생님 앞
보고 싶은 선생님께
선생님, 설이 왔습니다. 온 한해동안 이 작은 어깨를 짓눌러 온 온갖 시름을 털어 버리려고 밖에 나오니 하늘에서는 눈이 펄펄 쏟아 젓죠. 넓고 넓은 공간을 메우며 하염없이 내리는 눈, 겨울의 요정...

얼고 언 감방안에서 설을 맞으실 선생님얼굴이 떠올라 금시 마음이 피로와 집니다.

설이 우리를 축복하여 흰 꽃보라를 날리여도 감옥살이의 해수만 또 한해 불어 나는 선생님에게 기쁨을 주는 설이 아니겠지요.

선생님,
선생님께 광주에 사는 박미양이 세배를 드립니다.

선생님은 절 모르실거지만 저는 선생님을 뵈온 적 있어요. 푸른 수의를 입으시고 가슴에 《1179》라는 번호를 달고 내앞에 서계시던 고령의 수인 그 《1179》번의 량심수가 바로 뵈온 선생님이지였다는걸 오늘 신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나는 기자의 인터뷰는 저에게 두달전 어느 일요일을 회상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로조운동을 벌리다가 감옥에 들어간 순호씨를 면회하러 교도소에 갔었습니다. 면회를 마친 제가 방을 나서는 순호씨를 눈물속에 바라우고 있는데 다음번 차례인듯 싶었던 선생님이 불쑥 면회실안으로 들어 서시는것이였어요.

선생님의 두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오래동안 해별을 보지 못해 창백해진 얼굴에는 피기마져 볼수 없었습니다. 나의 눈길에 가슴에 붙인 수인번호를 거쳐 손등에 닿는 순간 저는 자신이 불에 데기라도 한것처럼 놀랐습니다. 채찍에 메워 꺼떻게 피가 죽은 살가죽에는 썩살이 앓아 언고구마껍질을 방불케 하였고 팔목에는 끊어진 동맥들이 서로 엉켜 불어 웅이져 있었었습니다.

내가 첫눈에 본 선생님의 이 모습이 고문에 짓이겨 질대로 짓이겨진 량심수 《1179》번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유의 구속에서 얽매여 수난을 당해온 산 인간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그만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밖으로 드러난 상처가 그럴진대 옷속에 덮여진 상처는 또 얼마나 험하겠나요. 차라리 볼수 없는것이 다행이라 해야 하지요.

내가 눈을 떴을 때 선생님은 나를 향해 웃어주시더군요.

그때 선생님의 모습은 혹독한 추위속에서도 꽃

꽃이 서있는 청송의 형상이었습니다. 눈속에 뿌리가 묻혔어도 죽지 아니 하고 삶의 존재를 시위하는 락락장송, 선생님의 모습은 바로 그 거목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 생각은 시간이 지난 뒤에 온 깨달음이었습니다. 교도관의 손에 떠밀리워 밖으로 나오자 불시에 고독감이 온몸을 휩싸는것이였습니다. 순호씨는 다시금 철창속으로 들어가고 고문으로 상처 입은 선생님의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질줄 몰랐습니다. 그럴수록 감옥에서 고통 받고 있을 순호씨 일로 해서 제 마음은 더욱 괴롭기만 했습니다. 의지의 파수병이 없는 내 마음속에서는 슬픔이 눈물의 샘을 터쳤습니다. 그러나 저에게겐 슬픔을 위로해 줄 부모님들도 계시지 않았었습니다.

(순호씨, 순호씨만은 제발 내결을 떠나지 말아주세요.)

저는 순호씨도 아빠, 엄마처럼 내결에서 영영 떠나버릴것만 같아 온밤 이불깃을 적셨습니다. 순호씨에게만은 선생님이 받은 그런 고통이 차례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 방황하느라니 먼 옛시절 부모 잃은 불행한 소녀가 불공을 드리러 오르곤 하던 무등산의 《원효사》에 생각이 가닿았어요.

...따스한 가을해별이 내리쬐는 절간주변은 오색단풍으로 단장하고 처마에서는 강남으로 떠날 제비가 작별이 아쉬운듯 지지배배 지저귀고 있던 날이였어요. 평화로운 풍경에 취해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있었던 소녀는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불념을 외우는 소리에 이끌려 절간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나름의 표정을 짓고 열두보살이 주련이 앓아 있는 곳에 이르자 어린 소녀는 불상들의 모양을 살펴 보기 시작했어요. 아빠, 엄마의 사랑에 주린 소녀는 먹을것과 입을것이 생겨나는 여의주창고를 지킨다는 보살을 지나 어느 한 보살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리고는 그앞에 엎드려 슬피울피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 작은 불상이 자기를 애처로이 여겨 동정하고 있는것만 같았던거예요.

스님이 그의 곁에 다가와 넘불을 외워 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는거였어요.

《불쌍한 애야, 부처님이 자비를 베풀어 너에게 천수보살을 내려 보내주실게다. 사랑의 힘을 가진 천수보살님이 너에게 아빠, 엄마의 품처럼 따뜻한 사랑을 가져다 주실것이니 이제 네 얼굴에

서 눈물이 가서 지고 웃음이 피어 날게다.》

그날부터 소녀는 날마다 무등산 《원효사》에 올라 불공을 드렸답니다. 그러나 봄이 오고 또다시 겨울이 와도 소녀가 바라는 행복만은 오지 않았어요. 희망의 새마냥 날개를 폈던 소녀의 소박한 녀원은 나무아미타불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때부터 그의 얼굴에서는 슬픈 표정이 떠날줄 몰랐고 그의 마음은 더없이 고독해 졌답니다. 박정한 현실이 그를 괴롭힐 때마다 혈육의 정조차 남기지 않고 떠나가버린 부모님들을 원망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목마를 태워 주던 아버지와 있는 정을 깡그리 쏟아 부어 주던 어머니가 계셨답니다. 딸애를 것처럼 귀여워 하던 그분들이 바로 나의 아빠, 엄마였어요.

나의 아버지는 《자유가 아니거든 죽음을 달라》고 웨치며 4.19항쟁의 거리에서 피 뿜이며 싸운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목 터지게 웨치던 자유는 아니 오고 아버지는 감옥에서 얻은 폐결핵으로 어머니를 고생시키셨답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아버지를 간호하느라고 꾀은 일, 마른 일을 가리지 않고 일해야 했던 어머니는 다른 집 엄마들처럼 응석을 받아 줄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함께 돌아서 즐겁게 웃던 그 밤만은 잊혀 지지 않아요.

어느 날 늦게야 집에 돌아 온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약을 달여 드리고 나서는 내 머리를 감겨 주시며 이제 아빠병이 나으면 돈을 모아 내 색동옷을 사주겠다 하시는거였어요. 나는 어머니가 하신 말이 하늘로 날아 나 버리기라도 할가봐 얼른 내 손가락을 엄마의 손가락에 걸고 다짐을 받았답니다.

《엄마, 약속 꼭 지켜 주지?》

엄마는 빙그레 웃으며 머리를 끄덕이고 나는 너무 좋아 손뼉을 쳤어요. 그리고는 엄마의 무릎에서 술긱이 잠들었어요. 다음날 어머니는 생활고에 지친 다리를 끌고 집으로 돌아 오다가 미군 찰차에 치워 영영 돌아 오지 못했습니다. 사회를 살려 보려고 투쟁에 나섰던 아버지는 한가정의 운명마저 살려 낼수 없었듯이 원통하여 어머니와 함께 한날 한시에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항쟁의 거리에서 피 흘린 아버지의 정의로운 과거가 제 앞길에 그늘을 던질 때마다 아버지를 원망하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이 사회에서 모난돌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 가정을 살릴수도 있었을텐데요. 다 자란 오늘에 와서 내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건 아버지가 흘린 피를 이 사회가 여직껏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예요. 그럴수록 순호씨의 앞길이 더욱 걱정되구요.

선생님, 이 사회가 외로이 자란 처녀에게서 한가닥의 사랑마저 앗아 갈가 두렵기만 합니다. 땡

정한 현실앞에서 묵묵히 살아 가자 해도 자신을 이겨 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수난자의 제단우에서 혼연히 웃고 계셨거든요.

전 지금 인터뷰에서 하신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금 읽어 보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고통은 죽음보다는 훨씬 가벼운 수난이요. 죽음은 그자체가 죽은것이지만 고통은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하는것이 아니겠소. 죽음에 대한 도전이라 할가, 어쨌든 그건 수난이기전에 삶이요!》

선생님은 이 말씀을 한 인간의 웅변으로가 아니라 산 인간의 언어로 하셨습니다. 선생님, 선생님도 인간일진데 어떻게 범속한 인간의 감정을 초월하여 인간우의 인간의 높이에 서계시는건가요.

선생님한테도 부모님과 함께 살던 고향이 있을거고 한 가정의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사랑을 향유할 인간의 권리가 당당하련만 40년이라는 긴 시간 세월을 철창속에서 고스란히 지내셨어요. 인간이라면 짧은 시절에 누구나 간직할수 있는 청춘의 사랑과 인생의 유산인 단란한 가족도 가져보지 못한채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신 선생님, 이제 더는 유년시절의 꿈이 남아 있는 고향으로 돌아 갈 길 막연함을 아시면서도 웃는 자로 살아가시는것이 놀라기만 해요.

문득 노래 하나가 생각되어요. 어린 시절 소꿉동무 조아라와 돌이서 마을 뒤산에 올라 이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아늑한 산골짜 작은 집에
아련히 등잔불 흐를 때
그리운 내 아들 돌아 올날
늙으신 어머니 기도해
...

이 소설이 끝나면 카톨릭교가정의 딸인 아라는 자기 어머니가 하던대로 기도를 드리곤 했어요. 그가 기도놀음을 끝내면 우린 돌이서 노래의 뒤부분을 부르곤 했습니다.

저 산골짜에 황혼질 때
꿈마다 그리던 나의 집
희미한 등불은 정다웁게
외로운 내 발길 비치네

이 노래를 부를 때면 내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내렸어요. 아빠, 엄마와 함께 살던 나의 집, 단란한 가정의 세계를 지켜 주던 그 등불이 못 견디게 그리워 울었어요.

노래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만 하는것이 아니고 아프게도 한다는걸 전 그때 벌써 체험해 보았습니다.

선생님, 저 분계선장벽너머 고향에 계시는 선생님의 어머니도 노래속의 어머니처럼 밤마다 아들을 기다려 기도를 드리고 계실가요? 고향집의 불빛이 선생님이 돌아 올 날을 기다려 아직도 반짝이고 있을까요? 0.75평의 그 좁은 감방속에서는 어머니의 기도소리도 들려 오지 않고 어머니가 손수 켜놓으신 불빛도 비쳐 오지 않으려면 어쨌든 선생님은 족쇄에 묶이운 병약한 몸을 곳곳이 펴시고 밝게 웃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자신을 이겨 낼수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선생님,

인생의 수난을 참된 삶으로 이겨 내시는 선생님의 씩씩한 용기 배우고 싶어요. 눈물 많고 웃음을 잃은 이 처녀에게도 웃는 법을 배워 주세요.

선생님한테서 소식 올 날을 손 꼽아 기다리겠어요.

선생님께 저의 서툰 솜씨로 뜬 털조끼를 보내드립니다. 추운 감방안에서 그걸 입으시고 마음을 따뜻이 덥혀 주세요.

선생님께 복을 빌면서

미양 올림

×

보고 싶은 선생님께

나무에 움 트는 새싹이 봄소식을 전해 주어요.

오늘 손 꼽아 기다리던 선생님의 답장을 받았습니니다. 결봉에 씌여 진 선생님의 성함을 읽는 순간 너무 기뻐 선 자리에서 편지를 개봉했습니다.

저를 문안해 주시는 선생님의 따뜻한 음성이 글줄에 어려 있는것만 같아 괜히 눈물이 났어요. 순호씨의 편지를 통하여 더욱 그리워 지는 선생님의 모습이라합니다.

제가 전번 편지에 물은적 있지요. 40년간의 고초를 이겨 낼수 있게 한것이 뭐냐고 한것 말이에요.

선생님은 지의 물음에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대답해 주셨지요. 어느 한시도 잊어 본적이 없다는 그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저의 가슴에도 새겨 봅니다. 어린 시절 선생님이 동네아이들과 해종일 밖에서 놀다 집에 들어 오면 어머니는 화로불우에 놓인 남비안에서 더운 밥그릇을 꺼내여 밥상에 놓아 주셨다는 이야기, 김이 문문 나는 밥을 뜨거운 토장국에 말아 먹는 아들을 바라보며 웃음 짓던 어머니의 소박한 사랑이 차디찬 감방바닥에 온기를 부어 주는것만 같아 선생님은 마음이 더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러고 보면 어머니의 사랑은 길고 짧은음으로 계산되는것이 아닌것 같애요. 인간이하의 취급과 모진 고문속에서 육체가 찢기울 때도 마

음속에 소중히 안고 계셨다는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이 바로 선생님의 한생을 지켜 주었는가 봐요.

선생님은 저에게 세월의 연기속에 사그러졌던 내 어머니의 추억을 되살려 주시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어머니의 옛 사랑은 추억일뿐이고 현실은 고독과 고통의 세계가 아닌가요. 그 애트한 추억이 고독한 마음을 잠시 위안할수는 있어도 가혹한 현실을 이겨 내게 할수 있을까요? 제자신의 마음조차 덥히지 못하고 사는 저는 밤마다 눈물을 지을뿐입니다.

저의 마음을 위로해 줄양인지 아침해별이 파스하게 비쳐 들어요. 추운 겨울을 이겨 낸 봄빛이에요. 선생님이 계시는 교도소의 15척당장너머로 바라보이는 무등산에는 철쭉꽃이 한창 망울을 터치고 있답니다. 이제 꽃이 피면 그 꽃잎을 따서 봉투에 넣어 보내드릴게요. 무등산의 철쭉은 유난히 색이 붉고 향기가 진하답니다.

선생님을 그리는 박미양 올림

×

존경하는 선생님께

요즘은 장마철이라 습한 바람만 불어 옵니다. 나쁜 날씨에 기관지천식으로 고생하시는 선생님의 병이 더욱 걱정됩니다.

참, 감옥에서 생일을 맞으셨다지요.

선생님의 생일 축하드려요. 제가 보낸 철쭉꽃을 생일선물로 받으셨다니 모르고 보낸 선물 너무 하찮아 무척 죄스럽습니다. 제가 드린 꽃 한 잎에서도 봄을 사랑하는 남녘청춘세대의 열망을 느끼신 선생님앞에 고마울뿐입니다. 오히려 제가 선생님의 편지에서 따뜻한 인정을 받아 안았어요. 선생님이 들려 주신 생일날의 이야기가 옛말처럼 내가슴에 켜여 저요.

...밤

억울한 운명들의 호소인양 그칠줄 모르던 비소리도 뜸해 지고 15층의 희미한 전등불마저 끄덕 끄덕 조으는 감방안 찜통고문을 하느라고 여러명씩 가두어 더욱 작아 진 철창속의 세계, 인체의 열기로 하여 공기마저 흐름을 멈춘듯 싶은 적막의 세계, 이 세계에서 살아 있는건 푸른 수의를 걸친 두사람의 량심수들뿐.

《동지한테 손가락 있어요 ? 그걸 좀...》

먼저 입을 연분이 종이에 쓴 자그마한것을 바닥에 놓고 손가락으로 톡톡 깨고 있었어요.

《그게 뭔데요?》

《사탕입니다. 운동시간에 누군가 내게 한알 주더군요.》

《원, 그게 뭐라구, 얼른 자시지.》

《허허, 그래도 나누어 먹는 맛이 더 좋지요.》

두사람의 말소리에 이어 다시금 툭툭 사랑 깨는 소리, 드디어 사랑알이 두조각 났습니다.

아차, 그런데 이걸 어쩔담. 한알은 크게 한알은 작게 쪼개어 쪼개거든요.

술가락을 든분이 얼른 한조각을 입에 넣고는 종이우에 놓인 나머지조각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잡쥬요.》

《아니 이걸 큰거군요. 바꾸어 먹읍시다.》

《난 벌써 목안으로 삼켰습니다.》

《허허...》

하는수없이 큰 조각을 입에 넣으니 스프르 꿀맛처럼 달디단 사랑맛이 입안에 감도는 것이었습니다.

《어, 달군.》

그 소리에 술가락을 쥐고 있던분이 물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지요?》

《오늘이요?》

《바로 동지의 생일날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마음이 쩡해 오는 순간 입안을 감돌던 달디단 맛은 자취를 감추고 사나이의 쇠덩이 같은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셨는지요.

《이게 바로 참사랑인가야. 저 하늘의 별들이 빛을 뿌릴수 있는건 태양의 빛을 받아서이기때문이지. 동지의 사랑이 이렇듯 뜨거운건 어머니의 열렬한 사랑이 떠받들어 주고 있기때문이지》라고요. 제마음속에도 그 사랑이 흘러 들어요. 선생님이 느껴안으신 그 철쭉꽃처럼 저도 이제부터는 더욱 뜨겁고 굳세게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옛 친구 조아라의 결혼식에 갔다 온 소식 전해 드릴게요. 카톨릭교도인 그의 결혼식은 성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장을 찾아 성당에 이르니 지붕꼭대기에서는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가 고뇌의 눈길로 나를 굽어 보고 있었어요.

애수에 찬 예수의 표정이 자기 육체에 대한 고통때문인지 아니면 속세에서 허덕이고 있는 인간들에 대한 연민때문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예루살렘(꾸드스)에서 부활되어 이날 이때껏 신자들의 마음속에 메시아(구세주)로 살아 있는거지요.

결혼식은 정말 성대했습니다. 한쌍의 부부를 축복하여 올리는 교회의 종소리가 얼마나 맑던지 내마음의 상처까지도 말끔히 가서 주는듯 했어요. 신부님이 아라의 머리우에 손을 얹고 축복을 보내주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이시여, 그대의 손길에 운명을 내맡긴 어린 양들에게 복을 내려 주

옵소서.》

아라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방울방울 솟구쳐 나와 제단우에 떨어 졌습니다. 예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아라의 표정은 분명 행복의 문턱을 딛고 선 어린 양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느님의 복을 받는 아라를 보니 참 부러운 생각이 드는 것이었어요. 내 마음이 고독한 건 신앙이 없는 탓이 아닐까 하고 후회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도 부처님도 아라와 둘이서 기도함에 정신이 팔렸던 소녀, 《원효사》를 찾아 불공을 드리군 하던 이 가엾은 교아소녀에게는 웬일인지 행복의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답니다.

아라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거나 한듯 기쁜 마음으로 성당을 나설 때 또다시 종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에게는 그 종소리가 아라에게 복을 내려 보내 주시는 하느님의 선물처럼 들려왔어요.

그런데 이것 보시지요. 교회당 멀지 않은곳 어디에선가 방송원의 목소리가 고막을 찢었어요.

《시민 여러분께 알리는 말입니다. 래일부터 련합군사령부의 지휘밑에 XX합동군사연습을 개시하게 됩니다. 이 훈련에는 미공군, 해군, 육군부대들과 국방군 전체 부대가...》

저는 그만 귀를 틀어 막고 말았습니다. 항공모함들에서 날아 오르는 비행기의 엔진소리며 땅크의 육중한 동음이 교회당의 종소리를 뒤덮어 내리고 그곳에서 보았던 행복의 무아경이 산산이 깨어져 나가는듯 한 환각이 들었습니다.

자유를 구속하는 장애물이 이 땅에서 활개치는 한 아라나 내가 바라는 행복, 그 평온이 과연 존재할까, 마음껏 웃음을 향유하며 살 행복의 땅은 어디에 있을까. 저의 생각은 아라가 그토록 가고 싶어 하는 하느님의 성지 예루살렘을 향해 날개를 돋쳤습니다. 그러나 그곳엔 행복의 새가 깃을 내릴 행복의 땅이 아닌것입니다.

지금 그 땅은 총소리, 대포소리가 인류의 숨결을 거칠게 하고 있어요. 그들은 서로 하느님의 복을 독차지하려고 싸우면서 하느님을 노엽히고 있지요. 그래도 하느님이 과연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실까요?

선생님, 이 땅에 전쟁이 없고 마음의 고통을 아물게 하는곳, 웃음이 넘쳐 나는 그런 인류가 바라는 행복의 성지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 행복의 성지를 찾아 방황하는 제 마음은 우울하기만 해요. 순호씨라도 내곁에 있다면 어두운 마음을 가서 주련만 그마저 육체에 상처를 입고 있을것을 생각하니 못 견디게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문득 선생님의 웃는 얼굴이 내 눈앞에 떠오르는거예요. 어머니가 지어 주신 이름대신 《1179》번이라는 수인번호를 단 선생님이 나를 향해 환하게 웃어 주셔요. 아, 그 밝은 웃음, 그것은

40년간의 수난속에서도 곳곳이 지켜 오신 인간의 존엄이었어요.

선생님, 저도 그렇게 웃고 싶어요. 하지만 령혹한 현실이 저를 웃는자로 되게 하지 못해요. 나를 공공 결박하고 있는 고독이 장마철의 습한 공기처럼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때면 작은 잠자리가 되어 선생님곁에 날아 갔음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서 웃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서 웃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선생님의 건강을 빌면서
미양 올림

×

보고 싶은 선생님께

선생님, 오늘이 선생님이 손꼽아 기다리던 추석날입니다.

선생님은 전번 편지에 추석보름달을 보거들랑 그 얘기를 보내라 하셨지요. 감방에서 보낸 40년동안 추석보름달이 뜨는 모양을 두번밖에 못보셨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저러 듭니다.

순호씨가 있는 감방에서는 보름달을 구경할수 있을가요? 선생님을 대신하여 무등산에 올라 보름달구경한 얘기를 순호씨에게도 한장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 전 지금 무등산으로 오르는 토끼등의 부모님묘소에 와 있습니다. 묘앞에 꿇어 앉아 부모님께 술을 부어 드리려니 문득 선생님생각이 떠오릅니다. 추석이 오면 선생님한테도 필경 술병을 기울여 레의를 차려 드릴 분들이 계실거려만 추억으로만 고향묘소를 찾으시려니 서운한 마음 오죽 크시겠나요?

돌아 가신 부모님생각, 감방속에 계시는 선생님파 순호씨 생각에 어느새 부모님생각, 감방속에 계시는 선생님과 순호씨 생각에 어느새 마음이 끝끝해 오는데 그만 내 눈에서 눈물이 술잔속에 떨어 저요.

선생님, 외로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려는지 마침 하늘에서 달이 솟아 옵니다. 정말 크고 환한 보름달이에요! 떠오르는 달을 보니 내 마음도 포근해 지는것 같아요. 보름달이 열은 없어도 빛이 있으니 내 마음의 구원자인셈이지요.

선생님은 편지에도 쓰시였지요.

《...미양이, 내게 후회되는것이 있다면 이제껏 추석보름달구경을 실컷 하지 못한거요. 아이적에도 추석달은 해마다 솟아 올랐건만 눈여겨 볼 생각을 못했소. 하긴 그 시절에는 죽마고우들과 함께 마음 뒀산에 올라 지치도록 놀다가 집에 들어서기 바쁘게 잠에 쏴아 떨어 지곤 했으니까. 어머니가 추석명절날이라고 빗어 준 송편 한짝도

못다남기고 꿈나라로 가곤 했다고. 정말이지 그 시절에는 추석날이 내 가슴속에 얼마나 애뜻한 정을 그리게 하는지 알수 없었소. 추석보름달을 꼭 한번 눈에 새겨 넣게 된것은 해방된후 어느해 추석이었소. 산에 올라 조상례의를 치른후 마을에서 열린 체육경기에 참가하였다가 어슬턱에 집에 돌아 오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어서 달보러 나가자 하시는거였소. 새삼스레 웬 달구경인가 물었더니 떠오르는 추석보름달을 맨 먼저 보는 총각이 인물마음이 제일 고운 처녀한테 장기 든다는게 아니겠소.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에 이끌려 마지못해 어머니와 함께 맑은 시내가 흐르는 동쪽에 앉아 솟아 오르는 둥근 달을 바라보던 그 저녁이 아직도 잊혀 지지 않소.

그러나 이 아들은 나이 70이 가까와 오도록 어머니의 소박한 념원을 풀어 드리지 못하고 있소.

어머니가 지금도 살아 계시여 이 아들이 40년동안 추석달을 두번밖에 보지 못했다는것을 아신다면 얼마나 가슴아파 하실가 하는 생각이 들 때면 옛 추억이 내 마음을 적시곤 하오.

미양이, 무거운 철창이 폐창을 가리우고 내 갇힌 감방이 달 뜨는 쪽과 반대로 놓여 있으니 보고싶어도 볼수 없는것이 달인가 보오. 0.75평의 좁고 찬 바닥이 내 마음을 엮어매일수는 없어도 살아 있는 두눈을 가지고서도 우주를 비쳐 주는 자연의 정다운 빛을 마음껏 볼수 없는것이 내게는 건디기 힘든 고통이라 할수 있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추석날의 달빛을 새겨 안아 주는 미양이며 참된 벗들이 있다는것만으로도 나는 행복을 느끼곤 하오. 그 정답고 고마운 사람들의 마음에 내 마음을 합치고 순호를 비롯한 감옥안의 군센분들의 마음을 합쳐 볼 때면 고독했던 이 가슴속에는 분명 어머니의 한 없는 사랑이 살아 있고 동지들의 사랑이 불덩이를 이루어 내마음을 달구어 주곤 하오. 그래서 나의 더운 피는 식을 줄 모르고 고문으로 찢겨 진 내 몸을 따뜻이 덥혀 주고 있소...》

선생님, 심장으로 바치신 선생님의 이 말씀을 저의 가슴에 피워 안아 보는 사이에 보름달이 토끼등너머의 무등산렬사묘를 포근히 비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들의 묘를 찾을 때마다 슬픈 마음으로 바라보던 광주렬사들의 묘예요. 이 땅의 진정한 민주와 자유를 갈망하여 투쟁의 길에 나섰다가 피를 토하고 쓰러진 그분들을 저는 이제 더는 슬프게만 바라보지 않겠어요. 선생님이 저의 가슴속에도 안겨 주신 그 불덩이가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랑의 불덩이는 저에게 정의의 진리를 새겨 주고 용기를 가져다 주었어요.

전 나의 아버지세대들이 쓰러지면서도 바라던

그것, 광주의 세대들이 피흘리면서도 웨치던 그것이 눈물로나 위안만으로는 절대로 찾을수 없고 오직 자기의 량심과 피로써 성취해야 할 값 비싸고 소중한것이라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거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모두가 한결 같이 바바라고 있는 이 소원은 꿈으로 사신것이 아니라 현실로써 이룩해야 하는거지요. 오직 사랑의 열망만이, 인간의 마음을 용암처럼 녹이게도 하고 바다처럼 억세게도 하는 인간사랑의 열망만이 이 땅의 념원을 성취시켜 줄거라구 생각합니다. 내 가슴의 불덩어리는 순호씨의 마음과 합쳐 지고 남녘의 청춘세대의 마음과 합쳐 저 이 땅에 차넘치는 통일지향에 더욱 세찬 불길을 지퍼 올릴것입니다.

저는 이 시각 작은 잔속에 저의 새로운 열망을 부어 열혈의 령혼들이 누워 있는 무등산의 유정한 한줌 흙에 뿌립니다. 보름달도 내 마음을 알아 주는지 환히 웃어요. 달이 웃는걸 난 침 봐요. 달이 웃으니 나도 기쁘고요.

추석달 뜰 때 미양 드림

×

존경하는 선생님께

선들바람이 불어 오는 프락에는 코스모스가 한창이에요. 아마 이해의 마지막꽃이라 해야겠지요. 제 마음속에도 감옥에서 풀려 나온 순호씨를 만난 기쁨의 꽃이 활짝 피어 났어요. 그러나 아직도 옥중에서 고초를 겪고 계실 선생님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선생님, 순호씨를 통하여 선생님애기를 많이 들었어요. 위탈은 만난 순호씨를 위하여 자신에게 차례진 한덩이 되나마나한 밥마저 잡숫지 않으시고 죽을 만들어 주신거랑, 량심수들에 대한 초보적인 도덕마저 상실한 형리들을 징벌하기 위해 단식투쟁을 벌려 그들의 존엄을 지켜 주셨다는 이야기를 말이에요. 그리고 순호씨를 비롯한 로조단체분들을 출소시키도록 힘 써주신 이야기도 깊은 감동속에 들었습니다.

순호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미양, 평범한 날에는 느낄수 없는 인간의 정의 고생속에서는 그 무엇을 주고도 살수 없는 사랑으로 된다는것을 난 인생체험을 통해서 비로서 알게 되었소. 그 사랑이 인간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어주는지 미양인 아마 알지 못할거요.》

선생님, 연약했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순호씨를 굳센 사람으로 되게 해주신 선생님의 그 뜨거운 인정에 감격했어요. 저에게 선생님이 자유가 구속된 철창속에서도 우리가 갈망하는 그 자유를 마음껏 향유해 가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순호씨는 선생님이 덤혀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 굳세게 살아 가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코스모스가 지면 서리가 내릴거예요.

제 머리에 시 한구절이 떠올라요.

...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은것 아니냐

...

선생님이 긴긴 세월을 이겨 내신것처럼 저도 항상 봄을 희망하며 살아 가겠습니다.

선생님의 건강을 바라는 미양 올림

×

언제나 못 잊을 선생님께

아침에 깨여 나 거리를 내다보니 보이는건 온통 콩크리트뿐입니다. 건물도 콩크리트건물이고요,

울타리도 도로도 전부 콩크리트인데요. 그것으로 해서 이 거리는 인간의 감정이 메탈라 있는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허나 이 거리로 지금 충격의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북에서 량심수였던 리인모선생님을 송환한데 이어 남에 계시는 모든 량심수들을 전부 데려가기 위한 준비를 벌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 진것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쁜건 순호씨로부터 선생님이 인차 감옥에서 풀려 나올것이라는 소식 들은거예요.

드디어 기나긴 감옥살이를 마치시고 자유로운 인생길에 들어 서게 되실 선생님께 인사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선생님이 감옥문을 열고 나오실 때 저와 순호씨 그리고 아라도 모두 함께 선생님을 마중 가겠어요. 아라는 벌써 선생님이 나오시면 입혀 드리겠다고 새옷을 한벌 마련했어요.

선생님, 한생을 땃땃이 총화하시고 감옥에서 나오신 선생님이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 가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저는 선생님이 머지 않아 꼭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 가시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싶어요. 벌써 리선생님이 그 사랑의 손길에 떠받들려 기어이 어머니의 품으로 가는 첫자욱을 떼시지 않았나요. 그 길은 이제 선생님들을 위하여 더욱 넓게 열릴것이라고 생각되어요.

선생님이 언젠가 답장을 보내주시던 글이 생각납니다. 어머니에 대한 추억은 한갓 추억일 따름이고 현실은 어디까지나 고통이 아닌가고 물었던 저에게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어머니의 사랑은 추억으로 끝난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랑을 주고 있다고요. 그 사랑은 감옥에서 병들어 폐인이 된 사람에게 사랑의 보약을 안겨 주어 생의 숨결을 이어 주었고 고통에 모대기는

사람에게는 혈육의 정을 달게 하여 생의 활력을 부어 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애로운 어머니의 사랑이 선생님의 가슴에서도 고향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크나큰 선생님의 인생도 참담하게 해주신거예요. 고향의 어머니는 그 크나큰 사랑이 자기의 아들을 기어이 꿈에 안아 주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정다운 불빛을 비쳐 아들이 돌아 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요. 고향집 어머니의 사랑을 지켜 준 그 품은 선생님의 마음속에 동지를 위해 바치는 사랑을 주시었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게 하는 혁명가의 신념을 주시었어요.

선생님은 이제 우리들 곁을 떠나 그 어머니의 품으로 가시어도 귀중한 진리의 노래를 남기고 가시었어요. 그 노래는 다름 아닌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 사랑의 노래는 우리 남녘청춘세대의 가슴속에 타버리는 통일의 열망을 세찬 투쟁의 불길로 지펴 주고 우리 민족의 소원을 성취하는 길에서 정의의 수호하는 노래로 더욱 높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선생님, 그 사랑의 노래가 태어난 곳으로 우리들도 가고 싶어요. 그곳은 바로 돌아 올 아들을 기다려 한생 사랑을 기울여 준 위대한 품, 그 품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해주는 이 나라의 어버이, 민족의 수령이 계시는 태양의 성지예요. 정녕 그 품은 나와 순호씨 그리고 아라, 모두가 어머니처럼 그리운 품, 죽어서도 가고픈 영원한 숲이예요.

우리들은 마음속에 넘치는 사랑의 열망을 합치고 합치면서 기어이 그 행복의 품, 태양이 품으로 가고야 말렵니다. 그 품을 찾아 가는 길에 죽쇄가 이 몸을 묶고 철창이 내 앞길을 막는 다해도 전 두렵없이 그 태양의 열과 빛을 받아 붉게 피는 철쭉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믿어 주세요. 선생님이 남기신 사랑의 노래는 반드시 이 땅에 통일의 념원을 앞당겨 올 것입니다. 기어이 어머니의 품에 안기게 되실 선생님께 다함 없는 축복을 드립니다.

선생님과
손
손

손
손

광주에서 미양 올림

《농악무》와 열두발상모춤

예로부터 근면하고 낙천적인 우리 인민은 오랫동안 동생활과정에 수많은 민속무용을 창조발전시켜 왔다.

우리 인민의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의 하나인 민속무용가운데는 《농악무》도 있다.

《농악무》는 농사일과 관련하여 발생발전한 민속무용으로서 부드럽고 우아하면서도, 활달하고 기백 있는 조선춤의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다.

20~30명의 꿩과리잡이, 복잡이, 소고잡이, 장고잡이, 징수들과 탈춤꾼들이 흥겨운 장단에 맞추어 춤 추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농악무》에서 절정을 이루는 부분은 상모춤이다. 상모춤기교는 오직 《농악무》에만 있는 것이다.

상모는 전립(모자)꼭지를 참대와 구슬로 꾸미고 거기에다 흰색의 새털이나 길게 오린 흰종이를 달아 매고 바람개비처럼 돌리는 재주이다.

상모에서 긴것은 그 길이가 열두발이나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열두발상모라고 한다.

상모춤은 하나의 미묘한 재주이다. 머리만 돌려 가지고는 오래 돌릴 수도 없고 볼품도 없다. 그러므로 몸을 틀동적으로 출렁이면서 몸으로 돌

려야 한다.

상모춤동작에는 외상모, 량상모, 평상모, 번개상모, 쪽두상모 등 수십가지가 있다. 이러한 춤동작들을 조화 있게 엮어 현란한 상모춤을 만들어 낸다.

두명의 대상모수가 휘돌이동작으로 열두발이니 되는 긴 상모를 돌리면서 돌아 가고 그들의 기세를 돋구어 주며 량열의 남녀무용수들이 좌우로 엇바꾸어 돌며 분위기를 더 한층 돋군다. 대상모꾼들이 가운데에 자리 잡고 서서 상모를 돌리는데 열두발대상모가 돌아 가는 모습은 춤공간을 다 채운다.

남녀무용수들이 짝을 지어 두개의 원을 지으며 달려 나오는 속에 소상모돌리기안삼불은 《농악무》의 절정을 이룬다. 상모춤동작으로 상모를 돌리며 자기의 장기를 남김없이 보여 주는데 그야말로 장관이다.

열두발상모를 중심으로 한 상모춤의 이런 독특한 멋은 오직 《농악무》에만 고유한 것으로 오늘날 그것은 독자적인 춤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그 기교동작들은 더욱 세련되어 가고 있다.

추억의 메아리

유성희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인간의 지향은 저절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이것은 인생의 명백한 리치이다.

그래서인지 나는 오늘의 생활이 벅차고 즐거울수록 더 자주 아버지의 유물을 꺼내보곤 한다. 황금으로 부어 낸 만냥짜리 조각품도 아니고 섬세하게 다듬고 가공한 희귀한 공예품도 아니다. 풍치 아름다운 보통강기슭에 대기념비로 일떠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의 때문에 뚜렷이 부각되어 있어 이제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첫눈에 알아보는 군공메달이다. 그게 뭐라고? -혹시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줄 나는 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가 물려 준 군공메달을 볼 때마다 건잡을수 없는 흥분을 느낀다. 사랑하는 내 조국땅, 그것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친 의로운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 전선고지들에 울려 퍼지던 돌격의 힘찬 웨침소리와 억세고도 명량한 전시가요의 선율을 듣는다.

그러느라면 벌써 여러해전에 곁을 떠나간 아버지가 못 견디게 그리워 진다. 평소에 것처럼 고집스럽고 과격하던 그 성미조차 입김마냥 후덥게만 느껴 진다. 무엇때문일까? 그러나 여기에는 조금도 이상해 할것이 없다. 한생에 가지가지의 추억을 남긴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잊고 살겠는가.

근 50년전 일이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한 그해 가을 고향마을 사람들은 파괴된 공장과 거리를 일떠세우려고 모두가 떨쳐 나섰다.

그 사람들속에 나의 아버지도 있었다. 아버지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동부의 한 고지에서 중대를 지휘하다가 중상을 입고 제대된 영예군인이었다. 병원에서 로동능력상실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온 몸이었으나 사랑하는 정든 고향산천, 원쑤미제가 무참히 파괴한 공장과 거리를 복구하는데 어찌 집안에 가만 앉아만 있을수 있으랴... 아버지는 매일 복구건설장에 나가 속보도 써붙이고 전선에서 싸운 이야기도 들려 주며 건설자들을 고무하였으며 몸에 맞는 일감을 찾아 돕기도 하였다.

어느 날, 아마 아버지의 생일날이었다고 기억된다. 전후의 어려운 때였지만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해 소박한 상을 차렸다. 아버지가 좋아 하는 술도 한병 산에 올랐다.

기분 좋게 한잔 마신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 나서 어느 날 저녁처럼 나에게 전선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그러던 아버지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가렬한 전투의 저기 저 언덕
피 흘린 동지를 잊지 말아라
...

비록 류창하지는 못하고 음정은 정확치 못해도 마디마디에 절절한 심정을 담아 부르는 아버지의 노래소리는 나의 심장속에 파고 들었다.

쓰러진 전우의 원한 씻으려
나가자 동무여 섬멸의 길로

아버지의 눈은 조국을 위하여 귀중한 생명과 청춘을 바친 그리운 전우들에 대한 추억과 미제 원쑤놈들에 대한 증오로 타는듯 이글거렸다.

아버지의 절절한 그 마음에 끌려 나도 노래를 따라 불렀다.

만세 만세 만세 높이 부르며
원쑤의 화점을 짓부시며 앞으로
...

노래를 마친 아버지는 커다란 손바닥으로 내 머리를 쓸어 주더니 화약내 배인 군복에 달았던 군공메달을 떼어 작은 내 가슴에 달아 주었다.

《꼬마병사! 이건 화선병사가 너에게 주는 표창이다.》

그리고는 물기어린 눈으로 나를 정겹게 바라보다가 넓은 가슴에 와락 끌어 안았다. 뜻밖의 애무로 하여 가슴이 몽클해 진 나는 눈물이 스르르 고여 올랐다. 기쁨이었을까? 아니였다. 그 눈물은 어린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감정의 분출이었다. 아, 아버지!...

나는 솟구치는 눈물을 주먹으로 씻으며 아버지의 가슴에 파고 들었다.

그 이튿날부터 나는 복구건설장에 나가 선동연설도 하고 속보도 발간하는 아버지의 믿음직한 방조자가 되었었다...

그 일이 이제는 옛말처럼 되어 버렸다. 세월이 흘러 철이 들었을 때 나는 가끔 그때 일을 돌이켜보며 이런 의혹을 품곤 하였다. 그날, 너무도 작은 내 가슴에 군공메달을 달아 주면서 아버지는 무엇을 생각하였을까?

아버지는 평생 그에 대해서는 한번도 말한적이 없다.

나는 아버지가 단지 내가 노래를 잘 불러서 군공메달을 달아 주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아버지는 의지가 굳세고 강직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으며 생각이 웅심 깊은 사람이였다. 아버지

는 전후에 침상에서 공부를 시작하여 천리마대고조시기에 대학을 졸업하였다. 몸에 파편조각도 몇개 박혀 있었지만 한개 공장의 기술사업을 맡아 분주한 나날을 보내곤 하였다. 결코 나라의 집이 되고싶지 않았던것이다.

《사람은 일을 해야 사는 맛을 알게 된다.》

입버릇처럼 외우는 이 말은 아버지의 생활의 좌우명이었다. 시간이 있으면 늘 기술서적을 뒤적거렸고 기술혁신안이 제기되면 현장에서 밤을 새우곤하였다. 군도서관에서는 《열성독자》로 소문이 나고 공장에서는 《우리 기사》로 존경을 받았다. 그리고 아이들은 《영웅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다. 아직 전쟁을 겪어 보지 못한 어린 세대들에게는 불 타는 락동강과 전선고지에서 적들의 땅크를 까부시며 싸운 로병이 틀림없이 영웅으로 생각되었던것이다.

사실 영웅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에게는 훈장과 메달이 많았다. 건군절이나 전승기념일이면 아버지의 가슴은 온통 훈장과 메달로 번쩍거렸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특별히 귀중히 여기는것은 어릴적 내 가슴에 달아 주었던 군공메달이었다. 아버지는 드문히 군공메달을 꺼내보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처음 보는 물건이거나 한듯 한동안 눈여겨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곤 하였다. 때로는 크고 투박한 손으로 쓸어 보기도 하였다. 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나로 하여금 또다시 한가지 의문을 느끼게 하였다. 아버지에게는 훈장도 적지 않은데 무엇때문에 제일 색 바랜 군공메달을 그로록 귀중하게 여기는것일까?

어느해 건군절 저녁이었다.

전선에서 아버지와 함께 싸운 전우들이 우리 집에 모여 들었다. 그들은 어느 때처럼 전화의 나날을 회고했고 화선노래도 불렀다. 전우들이 찾아와 떠들썩하는 날은 아버지에게 있어 제일 기쁜날이었다. 아버지는 군공메달을 단 가슴을 숙 내밀고 기타를 타면서 노래를 불렀다.

가렬한 전투의 저기 저 언덕
피 흘린 동지를 잊지 말아라
...

노래는 곧 합창으로 번져 졌다. 총창을 비껴 들고 만세높이 부르며 육박전을 벌리던 전우들이 생각되어서인지 로병들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고 목소리는 알릴듯말듯 떨렸다. 세월은 어느덧 검은 머리에 흰 서리를 끼었지만 병사시절의 기백만은 고스란히 간직하고 사는 로병들이었다. 의젓한 몸가짐, 씩씩하고 활기에 넘친 웃음소리, 가슴마다에 빛나는 군공메달들!

나의 머리속에는 불쑥 한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렇다. 가렬치절한 전화의 나날에 받은 메달이어서 아버지는 군공메달을 것처럼 소중히 여기는것이 아닐까?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내가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한것은 그때로부터 세월이 퍼그나 흐른 어느해 초겨울이었다. 그 무렵에 나는 아버지가 일하던 공장의 기시장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하루는 아버지가 공장에 나타났는데 별로 심중하고 근엄한 표정이었다. 아니나다를까 아버지는 내 책상위에 한장의 설계도면을 펼쳐 놓으며 엄하게 따져 묻는것이였다.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물어 둘셈이나?》

그 도면에 대해서는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공장대학을 졸업한 젊은 노동자가 석달전에 완성한 기술혁신안이다. 놀라울 정도로 착상이 대담하고 전망도 좋다. 그러나 도입하는 문제는 심중히 대하지 않을수 없었다. 생산공정을 바꾸고 설비를 개조하자면 품을 많이 들여야 하는데 로력도 자재도 부족하였던것이다. 더군다나 년말도 가까와오는데 일을 벌려 놓았다가 생산에 지장이라도 받는다면 누가 그 책임을 질것인가, 그래서 한달두달 미뤄온다.

내 말이 변명처럼 들렸는지 아버지의 얼굴은 대번에 푸르딩딩해 졌다.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느냐? 너의 이버지세대들은 조국해방전쟁때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면 모든걸 다했어. 야장간을 꾸리고 파편조각을 주어다가 정대와 곡괭이를 버리어 갯도를 뚫고 맨손으로 화선악기도 만들었다. 그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조건이 좋으냐. 그런데두 찍하면 이게 없소 저게 없소 하고 타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 기사자이라는게 편안히 살라는 벼슬자린줄 알았느냐. 응?》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도대체 무엇을 말할수 있단 말인가. 실은 아버지가 말한것보다 더 많은것을 나 자신이 알고있는것이다. 조국해방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아버지세대는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었지만 불사신마냥, 채더미를 털고 오늘의 조국을 일떠세웠다. 그때엔 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 볼 겨를이 없었다. 당의 요구면 그만이었다.

아버지의 말이 옳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나는 어쩔지 마음이 서운하였다. 기사장으로 일하는 이 몇해어간에 나는 아버지의 말과 비슷한 소리를 들어 본적이 없다. 오히려 일을 제낄줄 아는 손탁이 센 일군으로 은근이 자부해 왔다. 그 기술혁신안을 놓고 말한다면 당장 도입하라고 우에서 요구한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괜히 큰 일이나 난것처럼 떠들며 나무람까지 하지 않는가.

나는 술그머니 화가 나는것을 꼭 참았다.

《아버지, 그건 지나친 말씀입니다.》

《뭐, 지나치다구?!》

아버지는 종내 참지 못하고 큰소리를 쳤다. 그러나 웬일인지 다음순간 아버지는 입을 꼭 다물며 피로운 표정을 지었다.

《하긴 누굴 탓하겠느냐. 내가 애비구실, 로병구실을 못했으니...》 하고 조금 지나서야 아버지는

마음을 다잡은듯 한숨을 내쉬며 나직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내가 어린 너의 가슴에 달아 주던 군공메달은 조국이 나에게 준 첫 표창이었다. 난 그 메달을 볼 때마다 전선에서 싸우던 때를 생각하였고 그때처럼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다지곤 했다. 한데 이제 보니 헛살았어. 글썄 로병이라는게 제아들 하나 대를 잇도록 온전히 키우지 못했으니...》

아버지의 음성엔 분명 흐느낌이 섞여 있었다. 가슴을 아프게 하는 자책감으로 무척 피로와 하고 있다는것이 뻔히 알렸다. 아, 그런 아버지를 보는 내 심정이 어떠했으랴. 솔직한 말로 무릎을 꿇고앉아 빌고 싶었다. 이때에 와서야 비로소 어린 내 가슴에 군공메달을 달아 준 아버지의 진정을 알게 되었던것이다. 피는 유전되지만 사상과 넋은 유전되지 않는다. 전 세대들이 이룩한 투쟁정신과 넋을 그대로 이어 주기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담아 아버지는 내 가슴에 군공메달을 달아 주었던것이다. 하지만 나는...

나는 아버지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말았었다... 사람이 살아 가느라 하면 기쁜 일도 어려운 일도 부닥치게 된다. 멀리는 그만두고라도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매 가정, 매 사람들은 얼마나 심각하고도 가슴 아픈 일들

을 체험하였던가. 그러나 우리는 1950년대 그때의 영웅전사들이 그러했던것처럼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으로 싸워력사의 시련을 극복하고 오늘은 선군혁명의 기치드높이 강성대국건설에로 힘차게 내달고 있다. 전 세대들이 유산으로 남기 준 고귀한 투쟁정신과 넋은 언제나 아름답고 고상한 생활을 창조하도록 우리를 떠밀어 주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즈음에 더 자주 아버지가 남긴 군공메달을 꺼내보곤 한다. 불 타는 고지와 포연서린 진격의 길에 찍힌 병사들의 발자국을 본다. 하늘땅을 진감하는 폭음과 우렁찬 만세의 웨침소리 듣는다. 그러느라 마치 종소리마냥 먼 곳에서 울려 오는 메아리가 세차게 내 가슴을 두드린다.

너는 로병의 아들답게 살고 있는가?

로병들이 피로 지키고 신념으로 가꿔 온 이 땅 위에서 저 하나의 안락을 바라며 편안히 살려고 하지 않는가?

나는 물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후대들은 선배들의 이런 물음에 훌륭한 대답을 줄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생의 멀고 먼 끝까지!

상식

생물(DNA) 컴퓨터

지금 세계적으로 생물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생물컴퓨터는 유전물질인 데핵산(DNA)을 리용한 새로운 형식의 컴퓨터이다. DNA 는 모든 생물체에서 유전의 물질적기초로 되는데 4가지 뉴클레오티드로 이루어져 있다.

생물의 유전정보는 바로 이 뉴클레오티드의 배열순서속에 암호로 기억되어 있다.

DNA 의 정보기억능력은 현존컴퓨터의 기억소자나 기타 다른 기억매질보다 훨씬 높다. 1g 의 DNA 의 정보기억용량은 1조개의 CD원판과 같은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수백조개의 DNA 분자는 대단히 좁은 실험관에서도 생화학반응을 통해 작업을 진행할수 있는데 이러한 병렬처리능력은 오늘날 성능이 가장 높은 초고속컴퓨터와 대등하다.

DNA 가 정보기억 및 처리에서 이러한 독특한 우점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하여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컴퓨터제작기술이 극한점을 가까이 흐를수록 생물컴퓨터가 컴퓨터발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놓을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컴퓨터는 0과 1로 정보의 차이를 나타내지만 생물컴퓨터는 정보를 분자암호의 형식으로 DNA 에 배열한다. 그리고 특정한 효소가 《소프트웨어》로 되어 필요한 각종 정보처리작업을 하게 된다.

생물컴퓨터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나온 주체83(1994)년이래 일련의 모형들을 설계한데 성공하였지만 이러한 모형들은 대체로 DNA 가 액체가 가득찬 시험관안에서 떠돌아 다니며 연산을 진행하는것이였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성파로 고체결면에서 DNA 의 연산이 가능하다는것을 증명하였다.

생물컴퓨터에 대한 연구는 시초단계에 있으며 지금의 컴퓨터와 같은 성능을 가진 생물컴퓨터를 제작하려면 많은것을 해결하여야 한다. 지금 연구제작한 생물컴퓨터모형은 어떤 면에서는 《전자수산기》라고밖에 할수 없을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성과들은 보다 성능이 높은 생물컴퓨터를 개발할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지어 주고 있다.

궤도우의 세계

안드레이 블라또노브

김봉녀 역

1

우리 기관구에서는 알렉산드르 와쉴리에위치 말제브를 가장 우수한 기관사로 꼽았다.

나이가 서른살 남짓한 그는 가장 높은 급수인 기관사 1급소유자였고 오래전부터 급행열차를 몰았다.

새형의 첫 대형기관차가 우리 기관구에 도착하였을 때 그가 첫 운전사로 임명되었고 나는 조수로서 그의 작업반에 소속되었다.

기관구행정에서 취한 이런 조치는 나의 마음에 들었다. 새형의 기관차는 보기만 하여도 힘이 솟고 신심이 났다. 또 대형기관차들의 운행과 기관을 배우기 위해서도 1급기관사와 함께 일하는 것이 나쁠것은 없었다.

내가 작업반에 배속되었다는 보고를 하자 말제브는 다른 기색이 없이 나를 맞아 주었다. 그 누가 조수를 하던지 거기에 별로 신경을 쓰는것 같지 않았다.

첫 출발에 앞서 기관차의 외부상태와 일반적 및 기술적상태를 구체적으로 검열한 나는 운행준비가 원만히 되었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놓았다. 나의 작업 전 과정을 찬찬히 주시하고 있던 알렉산드르 와쉴리에위치는 자기가 직접 기계장치들의 기술상태를 다시 검열하는것이였다. 나를 믿지 못해 하는것이 분명하였다.

그후에도 내가 《빈틈없이》 한 모든 일은 꼭 그의 손을 거쳐야 하였다. 그렇게 하는것이 불쾌할 때도 있었지만 나는 거기에 인차 습관되었다. 기차가 운행길에 오르면 나는 지나간 모든 일들을 잊어 버리곤 하였다.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말제브가 끝도 보이지 않는 편성을 끌고 갈 때면 꼭 명배우가 무대우에서 훌륭한 연기를 하고 있는것만 같았다.

알렉산드르 와쉴리에위치의 두눈은 앞을 느낌과 예감으로 보고 있는듯 했다. 나는 그가 우리가 달리는 전 구간의 철길상태를 잘 알고 있으며 궤도를 따라 펼쳐 진 자연풍경과 모든것에 익숙되어있다는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들의 잘못으로 기차가 늦어 본적은 없었다. 반대로 우리가 서지 말아야 할 중간역들에서 우리를 잡아 두곤 했다. 원인은 우리가 시간전에

도착하였으므로 사령실의 지령에 따라 잡아 두었다가 출발시켰기때문이었다.

기차가 달리는 전 기간 우리는 거의나 말이 없었다. 알렉산드르 와쉴리에위치는 이따금 뒤를 돌아 보지도 않고 내가 다른데 눈을 팔지 못하도록 스파나로 보이랴뚜껑을 두드리곤 했다. 나는 손우였던 기관사의 말 없는 지시를 충분히 이해하였고 그 역시 나와 열관리공을 팽정하게 대하였다.

내가 기관상태를 보고 기름을 친 다음에도 그는 다시금 반복하곤 하였다. 나는 후에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무관심을 이해하게 되었다. 누구보다도 기관차를 잘 알고 있던 그는 나나 누구도 자기를 대신할수 없디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자기보다 더 꾸준하고 열성을 낼수는 있으나 자기처럼 기관차를 사랑하고 운전을 잘할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번은 내가 알렉산드르 와쉴리에위치에게 편성을 단독으로 끌어 보자고 제기하였다. 그는 40킬로미터구간만 달려 보라고 승인하고 나와 자리를 바꾸었다. 내가 기차를 몰아 20킬로미터구간을 지났을 때 4분간이나 늦어 졌다. 그는 나와 자리를 다시 바꾸어 앉았고 잃은 시간은 곧 회복하는것이였다.

2

그해 8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거의 1년간 나는 말제브의 조수로 일하였다. 7월 5일에 말제브는 객열차 기관사로서의 마지막승무를 하고 있었다....

그날 우리는 4시간이나 연착된 차를 넘겨 받았다. 운전지휘원은 직접 기차에 올라 최대한으로 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말제브는 그렇게 하자고 응하고 나서 곧 기차를 출발시켰다.

시계는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으나 여름날이어서 해는 아직 중천에 높이 떠서 떠오르는 아침해살마냥 밝은 빛발을 뿌리고 있었다.

알렉산드르 와쉴리에위치는 나에게 열차운행 전기간 보이랴압력을 정상상태에서 0.5기압 높일것을 지시하였다.

30분이 지나 우리는 초원에 이르렀다. 말제브

는 열차속도를 시속 90킬로미터까지 올렸다.

우리는 지평선너머 멀리에서 밀려 오는 먹장구름들을 마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저녁해빛을 받아 불그레하니 물든 검은 구름들사이에서는 분노한 번개가 구름장들을 갈기갈기 찢으며 번쩍거렸다. 마치 멀리로 묵묵히 펼쳐 진 대지를 꿰뚫어보려는듯... 우리 열차는 그속을 전속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알렉산드르 와셀리에위치는 이러한 광경에 매혹되었는지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앞을 내다보고있었다. 연기와 불빛속에서 보는데 습관된 그의 두눈은 유난히 빛나고 있었다. 그는 우리 기관차의 능력이 번개에 비길만큼 대단하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것 같았다.

우리는 초원 한끝에서 먼지를 세차게 휘감아 올리며 이쪽으로 불어 오는 회오리바람을 보았다.

폭풍이 시커먼 먹장구름을 몰아 오고 있었다. 다음순간 사위는 어두워 졌고 메마른 흙먼지와 모래가 사정없이 들썩워 졌다. 앞을 도무지 분간할수없어 나는 방향등을 켜다. 불처럼 뜨거운 먼지가 기관차안으로 몰려 들어 숨 쉬기조차 힘들었다. 방향등의 덕으로 열차는 어둑침침하고 숨막히는 암흑속을 가까스로 뚫고 달렸다. 열차의 속도는 60킬로미터까지 떨어 졌다.

큰 물방울이 창유리에 떨어 졌으니 순간에 말라버리곤 하였다. 뒤이어 푸른 섬광이 나의 눈앞에서 번쩍하였다. 그 순간 나는 말쎈브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런 표정변화도 없이 처음의 자세 그대로 덩덤히 기차를 몰고 있었다.

《방금 지나친것이 무엇이였을가?》

내가 열관리공에게 물었다.

《번개였어.》 그가 대답하였다. 《하마트면 우릴 명중할번 했는데 그만 스쳐 지났지.》

말쎈브가 우리들의 이야기에 끼여 들었다.

《무슨 번개 같은 소리?》

그는 높은 목소리로 물었다.

《방금 쳤지요.》 열관리공이 대답하였다.

《난 못 보았어.》 라고 말하고 난 말쎈브는 다시금 밖을 내다보았다.

《못 보다니?》 열관리공은 놀랐다. 《나는 보이라가마가 폭발하는줄로까지 알았는데 그걸 못 보다니?》

나도 그의 말에 놀랐다.

《어, 그럼 우리질은 왜 안했을까?》

《우리가 듣지 못했을수도 있지 않나.》 열관리공은 설명을 덧붙였다. 《우뢰라는것은 항상 번개에 뒤쫓아 천둥질하지.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달리고 있었으니까. 아마 손님들은 들었을수도 있어. 그들은 우리 뒤에서 달리고 있으니까.》

무더기비가 쏟아 지는 구간을 지난 우리는 고요히 잠든 어두운 초원을 달렸다. 먹물을 뿌려놓은듯 한 어둠이 정적이 깃든 대지를 뒤덮으며 밤을 알렸다. 소나기에 흠뻑 젖은 대지의 눅눅한 냄새와 밀보리이삭들의 그윽한 향기에 취할것만 같았다. 우리는 잃어 버린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 달렸다.

그런데 속도가 100킬로미터를 넘는가 하면 40킬로미터로 떨어 질 때도 있었다. 나는 말쎈브가 기차를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고 있다는것을 느꼈다. 하지만 알렉산드르 와셀리에위치가 지쳐서 그럴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반시간정도 달리면 급수탑이 있는 역에 차를 세워야 했다. 그러니 거기서 식사도 하고 휴식도 좀 할수 있을것이었다. 벌써 40분을 회복하였으니 종착점까지는 적어도 한시간정도는 더 회복할수 있었다.

문득 붉은색 안개구름이 계기들과 기관실 천정을 스쳐 지나는것처럼 느껴 졌다. 나는 창문밖을 내다보았다. 가까운 곳에서인지 아니면 멀리서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웠으나 어둠속에서 붉은 빛이 담벽처럼 우리 앞길을 가로 막고 있었다. 처음에는 영문을 알수 없었으나 인차 이런 순간에 내가 할바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나는 《알렉산드르 와셀리에위치!》 하고 소리 지르며 급성거 기적을 세번 다급히 울렸다.

말쎈브는 얼굴을 돌리더니 무슨 일이냐는듯 태연스레 나를 보는것이였다. 계기의 바늘은 시속 60킬로미터를 가리키고 있었다.

《말쎈브동지!》

나는 목청껏 웨치며 운전대로 손을 가져 갔다. 다음 순간 그는 《비켜!》 하고 고함을 지르더니 급제동력을 밟는것이였다.

열차는 아츠러운 소리를 내며 멈춰 섰다.

우리앞, 같은 선에 10메터도 채 못되는 곳에 다른 열차의 탄수차가 서 있었다. 탄수차우에는 한사람이 서서 빨갛게 단 쇠장대를 휘둘러 대고 있었다. 우리 려객열차를 멈춰 세우려는것이였다.

그런즉 우리는 노란색 신호등도 붉은색 신호등도 여러개의 정지신호등들을 아랑곳없이 스쳐 지나 달렸던것이다. 그런데 왜 말쎈브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

《포스짜!》

알렉산드르 와셀리에위치가 나를 불렀다. 나는 그에게로 다가갔다.

《포스짜!... 우리앞에 있는게 뭔가?》

나는 자기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포스짜! 이제부터 자네가 기차를 몰게. 난 눈이 멀었어.》

다음날 나는 목적지에서 편성해 준 새로운 팀차를 우리 역까지 무사히 끌고 왔다. 기관구책임자에게 운행과정을 그대로 보고하고 나서 나는 말썸브를 데리고 그의 집으로 갔다. 자기가 저지른 일로 해서 마음을 다잡을수 없었던지 말썸브는 책임자한데로 가려 하지 않았다.

그의 집이 보이는 곳까지 이르지 말썸브는 나한테 혼자서 가겠다고 하였다.

《안됩니다. 알렉산드르 와셀리에위치, 동지는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를 만류하였다.

말썸브는 나를 깊은 사색에 잠긴 눈길로 찬찬히 바라보는것이였다.

《이젠 모든것이 보이네. 어서 가보게... 난 모든것을 보고 있어. 저기 우리 집사람이 나를 마중하여 나오지 않았나.》

말썸브의 집 문가에 알렉산드르 와셀리에위치의 안해가 남편을 애 타게 기다리며 서 있는것이 보였다. 그 녀자의 검은 머리카락이 햇빛에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아주머니가 수건을 썼어요. 아니면 쓰지 않았어요?》 나는 물었다.

《안 썼어.》라고 말썸브는 대답하고 나서 《대체 누가 눈이 멀었다는거야? 자넌가? 아니면 난가?》 하고 말하는것이였다.

《앞이 보인다니 어서 가보세요.》

나는 말썸브의 곁을 떠났다.

3

말썸브는 재판에 기소되었고 그가 저지른 사고에 대한 사건심의가 진행되였다.

어느 날 담당검사가 나를 부르더니 말썸브가 저지른 사고에 대한 나의 견해를 물었다.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대로, 말썸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는 번개빛에 의한 타격으로 눈을 멀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아 시신경이 손상을 입었지요.》

《동무의 말대로 그렇게 됐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매한것은 말썸브 그 자신이 번개를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거요.》

《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열관리공도 보았구요.》
《그렇다면 번개가 당신들모두를 다같이 쳤을것인데.》 검사는 나의 말을 반박하였다.

《동무와 열관리공은 타격을 받지 않았고 눈도 멀지 않았는데 어째서 말썸브 그 사람만이 눈이 멀었겠는가 동무 생각은 어떻게?》

한순간 궁지에 빠졌던 나는 곧 생각나는것이

있었다.

《그는 번개를 볼수 없었습니다. 번개불보다 먼저 일어 나는 전자기파의 타격을 받았으니까요. 방전이 먼저 일어나고 번개빛은 후에 따르는것이니 번개를 보고 못 본것이 원인으로 된것 같지 않습니다. 번개가 눈 부신 섬광을 던지고 있을 때 그는 이미 눈이 먼 상태였습니다. 소경이 어떻게 번개빛을 볼수 있겠습니까.》

《참 흥미 있소.》 검사는 미소를 지었다.

《지금도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전에 이 사건에서 손을 뗄거요. 그런데 글썽 그 사람은 지금 나나 동무처럼 앞을 보고 있지 않소.》

《그건 사실입니다. 그는 지금 앞을 보고 있습니다.》

《화물렬차를 향해 것처럼 빠른 속도로 려객렬차를 몰아 갈 때 과연 그가 눈이 먼 상태였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는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주의 깊게 나를 아래위로 훑어 보았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가 어째서 동무에게 운전을 맡기지 않았겠는가. 아니면 기차를 멈추라고 지시도 하지 않았는가?》

《그건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검사는 말을 이어 나갔다.

《자 보시오. 어린 애도 아닌 성인이, 지각과 자각을 가진 사람이 수백명의 목숨을 죽음의 함정으로 끌고 가다가 천만다행으로 불상사를 면하고는 법앞에서 <난 그때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변명을 한다고 합시다. 이런것을 어떻게 보아야 한다고 동무는 생각하오?》

《검사동지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자신도 죽어버렸을것입니다.》

《그 말도 옳소. 하지만... 나는 한사람의 생명보다 수백명의 생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거요.》

검사의 방을 나선 나는 곧바로 말썸브의 집을 찾아 갔다.

《알렉산드르 와셀리에위치, 눈이 멀었을 때 왜 나에게 방조를 청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에게 물었다.

《나는 그때 모든것을 보고 있었댔네. 그런데 무슨 방조야?》

《무엇을 보았다는겁니까?》

《모든것을 다 보았지. 신호등도 초원의 보리밭도 기계들의 움직임도... 모든것을 보았어.》

그의 대답은 나를 아연케 하였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런 사고를 저질렀습니까? 어째서 신호등들을 지나 다른 편성의 꼬리를 맞

받아 달렸습니까?...》

말썸브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더니 마치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구슬픈 어조로 대답하였다.

《난 빛을 보는데 습관되었어.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그런데 그때 그 빛은 나의 머리속에서 느낌으로 상상으로 보이는 것이었어. 사실 그때 나는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으나 그것을 모르고 있었지. 자네가 급제동기적을 울리고 나를 향해 소리쳤을 때에야 붉은 신호등을 보았거든.》

그때야 비로소 나는 말썸브의 그때 행동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눈이 먼 후에도 상상력으로 세계를 보았고 그 현실성을 믿고 있었는데는 것을...하지만 그가 왜 그것을 검사한테 말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알렉산드르 와셀리에위치에게 물었다.

《난 그 사람한테도 이야기했어.》

《그런데 검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검토를 해보아야 한다더군. 그 상상력이란 것이 실제적인 것인지 아니면 허무맹랑한 것인지 자기로서는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내 말이지 현실적으로 큰 사고가 날 뻔 했던 것만은 사실이 아닌가고 하더라니까.》

《그 사람의 말도 맞아요.》

《그래 그 사람 말이 맞지.》 그는 나의 말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나는 잘못이 없어.》

그런데 일이 어떻게 될 것 같나?》

나는 뭐라고 대답할지 알 수 없었다.

4

말썸브는 안전부 구류장에 들어 갔다.

이제는 다른 기관사의 조수로 일하고 있던 나는 말썸브가 무척 그리워 졌다.

그해 겨울 주소재지로 갔던 길에 종합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생을 만났다. 동생은 이야기과정에 자기네 대학 물리실험실에 인공적인 방법으로 번개를 얻을 수 있는 데솔라기구가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순간 나의 머리속에는 한 가지 석연치 않은 생각이 떠올랐다.

집에 돌아와 데솔라기구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고 또 하던 끝에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말썸브의 사건을 말아 보던 검사에게 말썸브에 대한 감정을 데솔라기구로 해줄 것을 제기하였다.

말썸브의 시신경이 근거리에서의 전기적방전에 의하여 타격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사건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오래동안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고 있던 검사는 어느 날 검사장이 내가 제기한대로 종합대학에 있는 실험기구로 말썸브에 대한 감정을 다시 하는데 동의하였다는 회답을 보내왔다.

며칠이 지나 검사의 호출을 받았다. 나는 말썸브의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만 같은 예감이 시뵈시 흥분하여 달려갔다.

검사는 나와 인사를 나누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없더니 서글픈 어조로 말하는 것이었다.

《동무는 자기 동무를 곤경에 빠뜨렸소.》

《뭐라고요?! 그럼 말썸브동무가 재판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말썸브를 구류장에서 내보냈소. 지금쯤은 집에 가 있을 거요.》

《감사합니다. 검사동지!》

나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동무한테서 인사를 받을 건 인사를 받을 건 없소. 동무가 우리한테 한 그 제기 덕분에 말썸브는 다시 눈이 멀었던 말이지.》

《...》

《법의 감정 일꾼들은 말썸브에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어둠속에서 데솔라기구에 의한 감정을 하였소. 전원을 투입하니 기구는 번개를 일으키며 타격을 안겼소. 그런데 감정을 받은 다음부터 말썸브는 다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단 말이지. 이것이 감정의 결과요.》

검사는 목을 추기고 나서 말을 이었다.

《지금 다시 세계를 못 보고 있소. 자기의 느낌과 상상력으로만 보고 있지...》

동무는 그의 동무이지. 그를 많이 도와 주어야 할 것 같구만.》

《검사동지, 이전날처럼 다시 시력이 회복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희망을 이야기하였다.

검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파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때는 처음이었지만 지금은 두번째로 타격을 받았으니?...》

자리에서 일어 선 검사는 흥분을 가라앉히려는 듯 방안은 거닐었다.

《모든 잘못은 나한테 있소. ... 내가 왜 당신의 말을 듣고 법의 감정을 조직하였는지, 나는 산 사람을 놓고 모험하였단 말이지.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모험을 건디여 내지 못했지.》

《검사동지, 검사동지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모험이 아닙니다.》

나는 검사를 위로하였다.

《그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사는 눈 먼 사람이 더 행복합니까. 아니면 죄도 없이 눈을 뻔히 뜨고 감옥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까?)

《너무나도 값 비싼 대가요.》

나는 검사의 방을 나섰다. 나이로 보나 직무상으로 보나 나의 선배인 말쎄브를 불행에서 구원하고 싶었고 그를 위한 일에서 물러 서고 싶지 않았다.

5

다음해 여름 기관사자격시험에서 합격한 나는 기관사가 되어 독자적으로 기관차를 몰고 다녔다.

역구내를 통과할 때면 구내 긴 의자에 앉아 있는 말쎄브를 언제나 볼 수 있었다. 두무릎사이에 끼운 지팡이에 팔굽을 올려 놓고 앉아 있는 그는 언제나 정열로 넘치던 얼굴과 앞을 보지 못하는 두눈을 기관차가 지나가는 방향으로 돌리고 기계소리를 주의 깊게 듣곤 하였다. 무슨 말로도 그를 위로할 수 없었던 나는 그를 뵈수록 피하러 했고 그는 언제나 변함없이 역구내에 많이 있었다.

이해 여름도 다 가고 있었다. 나는 역구내에서는 물론이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대지를 더듬으며 걷고 있는 알렉산드르 와쉴리에위치를 여러 번 만나보았다.

말쎄브는 생활에서 경제적 타격은 받지 않고 있었다. 사회보장금이 많은데다가 안해가 직장생활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일거리가 없었던 그는 신경질이 많아 졌고 안고 있는 불행으로 하여 몸은 점점 수척해 졌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말했다.

《말쎄브동지, 래일 아침 10시 30분에 내가 열차편성을 끌고 갑니다. 나와 약속합시다. 조용히 앉아만 있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운행길에 오릅시다.》

《그렇게 하자구. 그런데 부탁하고 싶은것은 내 손에 아무것도 든 쥐여만 달라구.》

다음날 역구내로 나온 그는 나의 부축을 받으며 기관차에 올랐다.

기차가 출발하자 나는 알렉산드르 와쉴리에위치를 기관사의 자리에 앉히고 그의 손을 조종대 위에 올려 놓은 다음 나의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나의 손이 움직이는데로 그의 손도 움직였다. 궤도우를 기세 좋게 달리는 기관차의 움직임, 얼굴을 맞받아 불어 대는 바람... 이 모든것이 만족스럽게 느껴 졌는지 말쎄브는 아무말없이

앉아있었다. 그는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는 감각 잊어버린것 같았다.

돌아 올 때에도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기차를 몰아 오고 있었다. 기관사의 자리에는 말쎄브가 앉아 있었고 나는 그와 나란히 서서 그의 손우에 나의 손을 얹어 놓고 있었다. 그의 손은 나의 요구에 따라 내 손이 움직이는데로 가볍게 움직였다. 나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 졌다. 어제날의 유능한 기관사였던 그는 다시 앞을 내다보고 잃어버렸던 생활을 다시 찾았다는 기쁨에 잠겨 있는듯 했다.

기차가 안전한 구간들에 들어 설 때면 나는 그의 곁을 떠나 이전날의 자기 자리에서 앞을 내다보곤 했다.

우리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달리고있었다. 기차는 정시로 달리고 있었고 이번 운행도 성과적으로 끝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노란색 신호등이 켜 있는것이 저 앞에서 바라보였다. 나는 속도를 서둘러 늦추지 않고 증기를 내뿜으며 신호등을 향해 기차를 몰았다. 말쎄브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왜선지 초조해 지는 심정으로 옛 기관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증기변을 막게!》

문득 말쎄브가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 순간 나의 심장은 흉벽밖으로 튀어 나올듯 세차게 고동쳤다. 나는 가슴을 부둥켜 안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말쎄브는 자리에서 일어 서더니 제 손으로 증기변을 막는것이였다.

《나는 노란색 신호등을 보고 있어.》

그는 나에게 조용히 말하였다.

《말쎄브동지, 혹시 상상력으로 보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것은 아닙니까?》

나는 알렉산드르 와쉴리에위치에게 물었다.

그는 나를 향해 돌아 섰다. 그의 두볼로는 눈물이 도랑처럼 줄줄이 흘러 내리고 있었다. 나는 너무 기뻐 그를 굳게 포옹하였다.

《알렉산드르 와쉴리에위치, 기차를 종착점까지 몰아 가십시오. 기관사동지는 지금 빗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말쎄브는 나의 방조가 없이 기차를 끌고 왔다. 승무를 마치고 우리는 그의 집으로 함께 갔다.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고 새날을 맞이하였다.